

3·1운동 100주년 기념 준비 학 술 심 포 지 움

주제

“3·1만세운동과 종교계”

일시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2~6시

장소 태화빌딩 지하 대강당

주관 한국기독교역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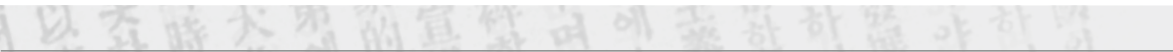
주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기독교대한감리회

CONTENTS

인사말	전명구 감독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4
	윤경로 박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5
발표 및 토론		
기조강연	3·1만세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7
	이만열 (숙명여대)	
제1 발표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23
	한국 종교계의 동향	
	발표 : 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논찬 :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제2 발표	3·1만세운동과 천도교	45
	발표 : 조규태 (한성대)	
	논찬 : 성주현 (청암대)	
제3 발표	3·1만세운동과 불교	67
	발표 : 김광식 (동국대)	
	논찬 : 한상길 (동국대)	
제4 발표	3·1만세운동과 기독교	89
	발표 : 이덕주 (감신대)	
	논찬 : 장규식 (중앙대)	
종합토론	좌장 윤경로 (한성대)	120

학술심포지움 순서



사 회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00-2:15 사전행사	
애국가 제창	다같이
개회사	장규식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장)
축 사	이병우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보존위원장)
2:15-2:45 기조강연 – 이만열 : 3·1만세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2:45-3:15 제1발표 – 김승태 :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	
3:15-3:25 휴 식	
3:25-3:55 제2발표 – 조규태 : 3·1만세운동과 천도교	
3:55-4:25 제3발표 – 김광식 : 3·1만세운동과 불교	
4:25-4:55 제4발표 – 이덕주 : 3·1만세운동과 기독교	
4:55-5:05 휴 식	
5:05-6:00 논찬 및 종합토론 – 좌장 : 윤경로 이진구, 성주현, 한상길, 장규식	

돌아보고 나아갑시다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후 식민지 경영의 통치 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고, 폭압적인 무력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무력통치하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박탈당하였고, 제도적인 착취와 악덕 일본 기업인들의 땅 사들이기와 가혹한 소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된 조선인 차별정책 등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거세지고, 식민통치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독립을 향한 열망이 높아져갔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독립 의지를 바탕으로 국외에서의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 국내에서의 비밀결사 운동, 교육 문화 운동 및 생존권 수호 투쟁 등을 통해 운동 역량이 강화되어 갔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되면서, 1918년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는데 이는 식민지 약소국가를 크게 고무시켜서 민족 해방 운동을 폭발시켰습니다.

3·1운동은 극소수 친일파를 제외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이자 계몽운동, 의병운동, 민족의 생존권 투쟁 등 각계각층이 결집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당시 조선 인구 중 약 3%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구 1.5%인 약 24만 명 중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명, 6월까지 투옥 된 9458명 중 2087명(22%), 여성 투옥자 대부분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기독교 신앙 위에서 참여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결과 일제의 무단통치가 끝나고, 항일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으로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압박 약소국가들의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독립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3·1운동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전, 그 때와 같이 너무나 혼란한 상황입니다. 3·1운동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국론 분열을 극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긴장관계에 있는 남북관계에 평화가 찾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향한 큰 울림을 기대하며

윤경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이사장

올해로 3·1만세운동 9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2년 후면 ‘3·1만세운동10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갖는 학술 심포지엄은 이 점에 유념하면서 우선 98년 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인류평화 및 자유민권 정신과 이념을 전 민족적 운동으로 견인, 연대한 천도교, 불교, 기독교계 등 3종교를 중심으로 ‘3·1만세운동과 종교계’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3·1만세운동을 추동시킨 일제의 포악한 무단통치와 종교정책 및 당대 한국 종교계의 동향과 역할에 관한 깊이 있는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3·1만세운동은 한마디로 ‘세류(細流)가 모여 대하(大河)’를 이룬 우리 민족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타율적 개항 이후 이를 극복하려는 세류와 같은 여러 모양의 구국계몽운동이 모이고 쌓여 1919년에 3·1만세운동이라는 대하를 이루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이 ‘제국(帝國)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역사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목할 때 3·1만세운동을 ‘3·1혁명’으로 지칭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듯 깊고 높고 넓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3·1만세운동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준비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3·1만세운동을 견인한 3종교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한계는 무엇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 어느 때 보다 종교와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심포지엄이 단지 과거사를 돌아보는 데 머물지 않고 매우 혼돈스러운 오늘의 한국사회와 종교계의 큰 울림을 주는 학술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지원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해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논찬을 맡아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감사드립니다.

書

기조강연

3·1만세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머리말

1. 3·1운동의 태동과 그 배경

2. 3·1운동과 종교계

3. 3·1만세운동의 전개

4.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맺는말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3·1만세운동과 종교계의 역할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머리말

3·1운동은 3·1만세운동, 3·1독립운동 혹은 3·1혁명, 3·1대혁명으로도 불려졌다. 역사 용어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만큼, 위의 용어들은 3·1운동을 인식, 강조, 해석, 적용하려는 시대적 및 사상적 맥락과도 연결된다. 용어가 달리 불려졌다고 해서 그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용어는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여주며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삶에도 넓고 깊게 영향을 미친다.

3·1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혁명’이라는 용어가 이미 등장했다. 이 점은 이미 학술적인 쟁점¹으로 이미 등장했지만, 그것은 이미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역사적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시대 역사를 움직였던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혁명’은 그 운동력이 체제를 바꾸었거나 거기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진들이 이미 ‘3·1혁명’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독립운동적 측면에서는 ‘민족혁명’적 성격을 가졌다고도 했고, 전근대적인 정치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정치사회체제를 재래했다는 점에서는 ‘민주혁명’으로 보았다.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그것을 ‘운동’으로 그냥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를 새롭게 읽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면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3·1운동에 대한 관점과 평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천되어 왔다. 우선 운동의 주체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33인 중심으로 이해하려 했지만 최근에는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중심이 옮겨졌으며, 따라서 서울 중심의 3·1운동 이해에서 지방의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3·1운동은 과거에는 ‘독립운동’으로서만 인식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뤄왔으나 최근에는 점차 한국의 민주운동과 관련하여 인식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아마 이 점은 앞으로 더 확대 심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3·1운동의 원인론도 과거에는 1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나타났던 민족자결론의 국제적 요인이 컸다고 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국제적인 요인 못지 않게 일제 강점 이후의 수탈과 피압박 상황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3·1

¹ 이준식, 「‘운동’인가 ‘혁명’인가 - ‘3·1혁명’의 재인식」, 『3·1혁명 95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운동과 사회주의와의 관련성도 점차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3·1운동에서 나타난 폭력성과 관련된 문제도 과거에는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에 매여 비폭력적 운동으로 규정했으나 최근에는 운동과정에서 일제의 폭력에 항거했던 민중의 폭력적 측면도 부정하지 않는다.

이 글은, 제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1만세운동과 그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종교계의 동향과 역할을 정리하는 데에 있다. 거족적인 이 운동이 어떤 경위를 거쳐 이뤄졌으며, 그런 과정에서 종교계의 역할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강점 후 일제는 일제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포고를 통해 민간에서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했으며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 갖고 있는 무기마저 신고하여 몰수해 갔다. 그 때문에 종교계 이외에는 민간이 스스로 집회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3·1운동 같은 거족적 민족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여기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었다. 3·1운동은 그 발화만으로 본다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종교계가 연합하여 이룩한 거대한 민족운동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은 3·1만세운동 전체를 설명하면서 종교계의 역할이 어땠는가를 부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3·1운동의 태동과 그 배경

3·1운동의 태동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시의 국내의 식민지적 상황과 세계사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면서 3·1만세운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간략하게나마 살피고자 한다.

[일제의 무단통치] 3·1운동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이 당한 피압박 상황에 있다. 일제는 강점 후 일제의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박탈했다. 1914년에는 지방행정 구역을 정리하여 종래의 마을(동, 리)과 면, 군을 대폭 줄였는데 이는 행정효율을 명분으로 종래의 조선적인 전통과 향토의식을 단절시키고 일본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조선 민중을 향한 일제의 강압적인 조치들은 일상생활을 겁박했고 치안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인을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즉결에 의한 통제로 나타냈다.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치안대책은, 1911년 1만 8천여명에 달하던 즉결처분이 1918년에는 8만 2천명으로 늘어난 데서도 잘 드러났다. 동맹파업도 1916년에 6건에 362명이던 것이 1918년에는 50건에 4,500여명으로 늘어났다. 생활형편도 1914년에 평균 1석당 평균 15원선이던 쌀값이 1917년 말에는 석당 20원 선이 넘었고 1919년 3월에는 40원을 상회하게 되었다.² 이는 일제 강점 초기, 식민지 백성의 삶을 옥죄고 있는 사회 경제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일제는 1915년 교육관계 규칙을 개정하고 포교규칙을 제정하여 한국인의 신앙생활에도 간섭하려고 했다. 기독교계 학교의 고등보통학교의 승격을 발미로 일본 교사의 채용과 일본어 교육의 강화, 채플과 성경공부를 폐지하도록 유도했다. 미션스쿨의 설립 목적에서 중요시하는 선교적 목적이 배제되고 일본의 언어와 역사를 강조하고 일본적 신민됨에 역점을 두게 함으로써 일제가 추구하는 식민지교육을 강화하려고 했다. 한편 포교규칙을 제정하여 포교당을 설립하거나 그 책임자를 세울 때에는 당국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이는 일제의 통치 정책이 한국인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3·1운동에서 종교인들이 많이 관여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² 이정은, 「3·1운동」『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한국사 47권』,국사편찬위원회, 2003, 309-310

[국제정세와 민족자결론] 3·1운동은 세계 제1차대전이 끝난 1918년 6월 11일에서 본다면 100여일 만에 일어났다. 1차 세계대전은 식민지를 새로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식민지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그것을 빼앗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유럽의 기독교 문명세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유럽은 세계의 패권을 잃고 비유럽권인 미국과 러시아에 그것을 넘기게 되었다. 전쟁 종결에 앞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교전국 쌍방에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평화조건 14개조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민족자결 원칙이다. 민족자결 원칙은 오스트리아제국과 러시아제국 및 터키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백인기독교도들에게 적용하려 한 것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백인, 비기독교도 식민지 민족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알바니아와 발틱 삼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8개국의 유럽 나라들이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해 해방과 독립을 맞게 된 것 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피지배 민족으로서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적용받아 독립한 민족은 하나도 없었다. 베르사이유 조약안 440개 조항 가운데 조선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물론이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동경유학생들은 2·8독립선언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조선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민족자결 원칙이 승전국 식민지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3·1운동은 전승국 제국주의자들의 의도에 개의치 않고 세계사적인 반전을 기하려고 했다. 민족자결의 원칙이 적용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현실적으로 승전국 식민지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이 원칙을 보편적으로 적용시켜 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선을 제압했다고도 보인다. 이를 두고 민족자결주의라는 복음을 “제 것으로 만들려고 용감히 일어선 최초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민족자결의 원칙을 보편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일본도 당황했지만, 동구의 약소민족에게만 적용하려던 다른 전승국가들도 놀랐을 것이다. 민족자결 원칙의 전제는 어떤 나라든 다른 민족을 전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러시아나 오스트리아제국의 전제적 지배가 부당한 것처럼 일본의 조선 통치도 부당하다는 것을 3·1운동은 폭로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피압박 민족 가운데서 윌슨의 원칙을 자기의 운명에 적용시켜 쫓겨난 최초의 봉화가 3·1운동이었다.”³

[신한청년당과 국내외 독립운동]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세계사의 움직임을 간파한 해외독립운동가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중국에 망명한 여운형·장덕수·김철·선우혁·한진교·조용은·조동우 등은 1918년 8월 20일 상해 프랑스 조계지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그 해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따라 파리강화회의에 대표파견을 논의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특사 크레인(Charles R. Crane)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미국은 중국이 종전 후의 강화회의에 참석토록 권하고 있었다. 이 때 크레인을 면담한 여운형 등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식민지 처리원칙으로 ‘민족자결 원칙’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김규식) 파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또 「한국 독립에 관한 진정서」 2통을 작성, 평화회의의장과 미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도록 부탁했다.

김규식은 여비가 마련되자 1919년 2월 1일 상해를 출발하여, 3월 13일 파리에 도착, 평화회의의 한국민 대표관을 설치하고 독립청원서를 강화회의에 제출했다. 김규식은 뒤이어 도착한 헐버트(H.B. Hulbert)와 조용은·여운형·이관용 등의 도움을 받아 5월 10일에는 한국독립항고서를 강화회의에 제출했고 또 여러 문서를 작성, 각국 대표와 언론에 배포했다. 그 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김규식의 신분은 신한청년당 대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바뀌었다. 거의 같은 무렵에 미국에서

³ 노명식,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짚밧히고 찢겨진 20세기 코리아-노명식 전집 05』(책과함께, 2011) 235

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파견을 추진하고 있었다. 대한인국민회의 안창호는 1918년 12월 1일, 파리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을 위해 정한경·이승만·민찬호를 선정, 파견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여권발급이 불가능했다.

상해에서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다는 소식은 독립운동계를 고무시켰다. 신한청년당은 국내와 일본, 만주·노령 지역에 대표를 파견, 독립운동을 권고했다. 국내에 몇 차례에 걸쳐 선우혁·장덕수·서병호·김순애·김철 등을 파견,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준비토록 했다. 특히 선우혁은 평안도 지역으로 들어와 이승훈·양전백·길선주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일본에도 조용은·장덕수·이광수 등을 파견, 독립운동을 논의하고 이광수는 2·8독립운동의 선언서를 작성하고 상해로 돌아왔다. 한편 여운형 등은 만주와 연해주를 방문, 그곳에 체류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만나 독립운동을 독려했다.

[대한독립선언과 2.8독립선언] 3·1운동에 앞서서 「대한독립선언서」와 「2·8독립선언」이 발표된 것은 3·1운동 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앞서 1917년 7월에는 신규식·박은식·신채호·조소앙·신석우·박용만 등 14인이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1910년 융희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주권을 이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일본의 주권강탈은 무효이며 국민주권론을 실행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그 뒤 1919년 2월, 만주, 노령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대조선 독립단을 조직하고, 39명의 명의로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해외독립군이 국내 동포의 위임을 받아 활동한다는 것과 ‘육탄전쟁’에 의한 항일독립전쟁을 주장했다.⁴ 이와 함께 1919년 2월 8일에는 동경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선언을 통해, 한민족이 유구한 역사를 가졌고 역사상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음을 천명하고, 사기와 폭력에 의한 일제의 국권탈취의 불법성과 침략성을 고발했다. 4개항의 결의문 중에는 민족자결주의를 한국 민족에게도 적용시켜 줄 것과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겠다고 주장한 대목이 보인다.

[고종의 崩御와 因山]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파리강화회의라는 국제적 상황 못지 않게 국내적인 상황 변화도 있었다. 1919년 1월 22일에 고종이 승하했는데 그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고종독살설’은 민족적인 울분을 촉발시켰다.⁵ 국장일을 3월 3일로 정하게 되자 은밀히 진행되던 독립운동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인산을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남대문 역 하차 인원이 매일 평균 1,500~1,600명이던 것이 2월 26일에는 3,000여명, 27일에는 6,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많은 ‘불온 인쇄물’이 전국적으로 살포, 전달되었다. 그 즈음 동경 유학생들이 추진한 「2·8독립선언」은 국내의 독립운동 분위기를 만세시위운동으로 상승시켜 3·1만세운동으로 연결,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인산일이 3월 3일로 결정되어 그 전날을 거사일로 잡으려 했으나,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측을 고려하여 3월 1일로 잡았다.

4 金素眞: 『1910년대의 獨立宣言書 研究』1995,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5 『옥파 비망록』(『목암 이종일 비망록』) 1919년 1월 22일자 - 박성수, 「3·1운동과 천도교계 대표」 「3·1독립운동 80주년기념 '민족대표 33인'의 재조명 학술회의」(2004.3.30,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17

2.3.1 운동과 종교계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및 불교계 지도자들이 앞장 섬으로 이뤄졌다. 그런 점에서 이 운동은 종교계의 연대와 선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당시 종교계가 앞장 서게 된 데에는 강점초기의 일제의 강압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간단히 지적했다. 일제는 의병 등 조선인의 반제저항 세력을 소탕하는 한편 기존의 모든 사회 단체를 해산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시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탄압했고 아울러 무기를 압수하는 등 조선인의 저항수단도 제거해 갔다. 일제 무단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봉건적 신체형인 태형(笞刑)을 부활시키고 범죄즉결령도 실시했다.⁶ 이런 상황에서 겨우 유지되는 합법적인 공간은 종교적인 행사밖에 없었다. 3·1운동이 종교계에 의해 선도된 것은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일제 강점 초기의 종교계] 일제 강점 초기에 교단 조직을 가진 종교단체는 천도교를 비롯하여 기독교·불교·유교·천주교 등이 있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중앙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천도교였다. 천도교는 1860년대 최재우의 동학에서 시작, 1894년의 ‘동학혁명’을 거치는 동안 한 때 박해를 받았으나 1900년대에 들어와 대정비하기 시작했다. 1904년 ‘갑진(甲辰)개화운동’ 후 1905년 12월에 동학이란 명칭을 천도교로 변경했다. 천도교는 정치활동을 계속하려던 일진회(一進會)계의 천도교인들을 출교시키면서 교회를 정비하는 한편 손병희를 중심으로 권동진·오세창·양한묵 등 문명개화론계의 교인들을 중용하여 교리와 교회조직을 근대적으로 개편했다. “천도교는 ‘인내천(人乃天)의 이념과 보국안민(輔國安民)·광제창생(廣濟蒼生)의 교리에 따라 천도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변혁을 모색하였다.” 또한 포교에 힘쓰면서 한국의 독립과 계급간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했다.⁷ 천도교가 제 1차 대전 후 새로운 세계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한국의 독립을 모색하려 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 이념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1880년대에 선교사의 입국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20세기에 들어와 성경을 번역 간행하고 교회를 세우며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등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은 미국의 남북 감리회와 미국의 남북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및 호주 장로회 등 6개 교단이었고 한말에 이르러 성결교·구세군·안식교 등도 수용되었다.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장로회가 1901년에 평양에, 감리회는 1905년에 서울에 각각 신학교를 세웠고, 평양과 서울에는 기독교계 전문학교도 설립했으며, 선교 지회가 설치된 도시에서는 중등학교를 세워 교육했다. 교회의 조직도 크게 발전하여, 남북감리회가 연회를 각각 조직했고, 장로회는 1907년 독로회 조직에 이어 1912년에는 총회를 조직, 산하에 7개의 노회를 두고 있었다. 기독교는 수용당시에는 반봉건사회개혁운동에 힘썼고 한말에는 대부흥운동과 국권수호운동에 힘썼으며 일제 강점과 더불어 ‘105인 사건’과 사립학교법개정 및 포교규칙 등으로 신앙생활에도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기독교가 선교사들과 접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늘 경계하고 있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현재 20만을 상회하는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다.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의 기반 위에서 몽골 침략과 임진왜란 때에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발휘했으며 중생 구제와 공동체의 수호를 목표로 활동했다. 그러나 조선의 승유억불 정책으로 승려의 도성출입이 금지

6 이윤상,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8』(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25

7 조규태, 「3·1운동과 천도교-계획과 전개에 나타난 천도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관순 연구』 창간호, 2001.12월호, 183-184

되어 왔는데, 1895년 일본 승려 사노(佐野前勵)의 건백서로 도성출입이 풀리게 되었다. 그 후 일본 불교의 침탈이 가속화되어, 1908년에는 조선불교의 종명이 원종(元宗)으로 선포되었고, 1910년 대중정 이회광은 원종을 일본 불교 조동종과 연합시키려는 대중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갔다. 1911년 1월, 박한영·진진웅·김종래·송중헌·백용성·오성일·한용운 등이 임제종(臨濟宗)을 수호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이는 조선불교계의 자주성을 천명하는 운동이었고 한국 불교의 일대 종풍혁신운동이기도 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1911년 6월 사찰령을 공포, 30본산제를 실시하면서 모든 사찰의 자치권과 운영권을 총독부에 귀속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용운은 1918년 9월부터 불교계를 역사화·시대화하기 위해 종합교양잡지 『유심(唯心)』을 창간했다.⁸

3·1만세운동 당시 한국의 유림(儒林)은 어땠을까. 여기서 독립선언서 서명자 명단 33명에 보이지 않는 유림을 거론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유교계에서는 ‘3·1독립선언’ 뒤에 유림 137인 명의로 발표한 ‘파리장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3·1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직전에 유림에게 서명하도록 권유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도교·기독교 측에서 처음 움직임이 있을 때 유림의 대표적인 김윤식·윤용구 등에게도 민족 대표로서 나서줄 것을 교섭한 적이 있으나 그들은 소극적이었거나 거절했다. 이렇지 않음 한용운이 경남 거창에 있는 지방 유림 대표 광종석을 예방, 접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또 성주의 김창숙에게도 유림의 참여를 권유했으나 모친의 병환 때문에 미루다가 2월 그믐께 상경했으나 그 때는 연서(連署)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김창숙은 유림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통곡하며 아쉬워했다. 이렇게 유림은 천도교·기독교·불교계와는 달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대표가 없었지만, 그 뒤 3·1독립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⁹

[종교계의 참여와 3·1운동의 전개] 3·1운동이 태동하는 데에는 몇 가지 흐름이 있었다. 그것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종교단체의 독립운동 시도와 관련이 있다. 만세운동을 주도한 그룹으로 천도교와 기독교 측을 들 수 있는데, 해외독립운동가들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간파한 두 종교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립만세운동을 구체화했다.¹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이 중심이 되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고 그에 맞춰 국내와 일본, 만주·노령 지역에 대표를 파견, 독립운동을 권유하고 있던 그 때 국내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 독립운동 자금 모금과 독립운동 준비를 권고했다. 당시 일본과 만주 연해주에 몇 사람이 파견되었을 때, 선우혁은 평안도 지역으로 와서 이승훈·양전백·길선주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독립운동을 독려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예년에 없던 특별조치로서 1919년 1월 5일부터 49일간 특별기도회를 개최했다. 1월 상순부터 천도교측의 권동진·오세창·최린은 교주 손병희를 사저인 상춘원으로 자주 방문, 국내외 정세를 보고했다. 이 때 손병희는 “천재일우의 호기를 무위무능하게 간파할 수는 없다”고 격려하는 한편 1월 중순경에는 박영효를 방문, 박영효 윤치호 손병희 세 사람의 명의로 한국 독립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작성, 총독부에 제출하는 데에 협조해 달라고 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 무렵 최린은 송진우·현

8 전보삼, 「3·1운동과 불교계의 역할」 『유관순연구』 제 11집 2002.12, 207-209

9 이정은, 「3·1운동의 전개」 『한국사 47』 324

10 3·1운동의 점화과정과 관련, 천도교계 기독교계 불교계의 연대에 대해서는 이정은 조규태의 앞의 글과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했다. 박성수 전보삼 김순석의 앞의 글과 김광재, 「3·1독립운동과 불교계 대표-한용운의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3·1운동과 민족대표: 3·1 독립운동 84주년기념 학술회의」, 2003.3.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연구위원회, 「3·1운동 연구 협의회 보고서」, 1979.2.26-27/ 송길섭, 「3·1운동의 종교간의 연대문제」 『기독교사상』 309, 1984.3월호/ 장동민, 「3·1운동 시 기독교와 천도교 연합과 그 사상적 배경」 『교회사학』 7-1, 2007/ 한규무, 「기독교와 천도교의 3·1운동 협력에 대한 평가와 오늘의 의미」 『기독교사상』 663호, 2014.3 등

상윤·최남선 등과 함께 송계백 등 도쿄의 2·8독립운동 추진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 후 1월 하순에 최린·오세창·권동진은 손병희 집에서 회합, 독립을 선언하기로 하고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와 귀족원·중의원, 파리강화회의의 열국 위원들,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도 한국 독립을 위한 청원서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 무렵 손병희의 적극적인 격려에 따라 독립운동의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라는 세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¹¹

독립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그 사회의 신망받는 인물들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구한말의 윤용구·한규설·박영효·윤치호와 교섭, 그들을 내세우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자 젊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나서게 되었는데, 이 때 최남선이 최린을 방문, 기독교측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를 나누게 되었고, 김도태를 파견, 정주의 이승훈에게 상경해 주도록 연락을 취했다. 당시 이승훈은 선천의 사경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나 연락을 받자 2월 11일 상경, 김성수의 별저에서 송진우·현상윤과 만나 천도교측의 의사를 듣고 그 이튿날 정주로 돌아가 평안도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의하게 되었다. 그런 후 이승훈이 신분은폐를 위해 평양 기흥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 때 남산현 교회의 신흥식 목사와 길선주 목사의 문병을 받게 되어 서울과 선천에서 협의된 일을 설명, 이들의 동의도 구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¹² 신흥식 목사의 동의를 얻게 된 것은 그 전까지 장로회와 감리회가 각각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때 두 교단이 접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승훈이 장로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안에 서울에서는 감리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있었다. YMCA 간사로 활동하며 서울의 감리회 중앙교회 전도사로 있던 박희도와 기독교신보사의 서기로 근무하며 감리회 정동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박동원을 만나 독립운동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2월 18일 경에 평양의 신흥식 목사가 서울에 와서 YMCA의 박희도를 만나 평양에서의 장로회측과의 접촉을 알려주었다. 서울에서는 또 세브란스의 이갑성도 움직이고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평안도 정주와 평양, 서울에서 움직이고 있던 기독교측의 개별적인 모임들은 이승훈을 통해 하나로 정리되어 갔다.¹³

이승훈은 정주·평양 등의 관서지방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준비하면서 2월 17일 상경했다. 그가 서울에서 박희도의 방문을 받자 신흥식 목사와 접촉한 바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고, 박희도와 함께 신흥식·정춘수(원산)·오화영 목사와도 만나게 되었다. 감리회와 장로회의 공식회합이 이뤄진 셈이다. 19일 밤에는 이갑성의 집에서 감리회·장로회의 합동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에 감리회측에서 박희도·신흥식·오화영·현순, 장로회측에서는 이승훈·이갑성·안세환이 참석하게 되었다. “이 회합에서 천도교와의 연합독립운동을 승인하게 되고 천도교와의 연락책임자로 이승훈을 지명하게 되었다.”¹⁴는 주장이 있으나, 회합날짜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교측은 23일 함태영의 집에서 모여 천도교측과 연대하여 독립선언을하기로 결정하고 이승훈·함태영을 교섭대표로 하여 24일 밤 천도교측의 권동진·오세창·최린을 만나 양측의 협동전선을 성립시켰다.

2월 20일경부터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은 서로 만나 거사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거사에 따른 업무도 분담했다. 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인쇄는 천도교측에서 맡고, 지방 분송은 기독교측과 협력기로 했다. 독립선언서를 일본정부와 귀족원에 전달하는 업무는 천도교 측이, 미국 대통령과 파리 평화회의에 전달하는 일은 기독교측이 맡았다. 양측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를 각각 십수명씩 선정토록 하고, 불교측

11 조규태, 앞의 글, 186/ 이정은, 앞의 글, 320

12 송길섭, 「3·1운동의 종교간의 연대문제」 『기독교사상』 309, 1984.3월호, 62

13 감리회측의 움직임과 장로회측과의 접촉, 기독교측이 연합하여 천도교측과 접촉하게 되는 것은, 다소 난삽하지만, 송길섭의 위 논문이 참고가 된다. 이 논문은 기독교측에서 천도교측과 어떻게 접촉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규태의 위 논문과 대조가 된다.

14 송길섭, 위의 논문, 63.

도 연명에 참가하게 되었다.

불교계와의 연대는 한용운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언급한 바, 한용운이 계동에서 발행하던 『유심』지의 필자 중에는 최린·최남선·유근·이광중·현상윤 등 한학자 민족운동가 승려 등이 있었다. 『유심』 3호를 간행할 즈음인 1918년 12월초에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어 한용운을 자극했다. 이 무렵 한용운과 최린이 은밀히 만나는 것을 계기로 불교계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¹⁵ 한용운은 3·1운동 계획 당시 임제종 설립운동의 주축세력을 불교계의 민족대표로 참여시키고자 했으나, 사찰들이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시 서울에 올라와 있던 백용성 한 사람만 민족대표로 참여시킬 수 있었다.¹⁶ 이 때 두 분에게 영향을 받은 중앙학림 재학의 청년승려들이 독립선언서 배포에 널리 힘썼다.

3.3·1만세운동의 전개

3·1만세운동의 전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와 연구들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상론하지 않겠다. 다만 독립만세운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과 남녀노소, 신분과 이념, 종교와 신앙의 벽을 넘어 혼연일체로 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국내외의 운동 상황과 그 결과를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3·1만세운동 : 국내] 1919년 3월 1일 낮 12시 경부터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이기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 길선주·유여대·정춘수·김병조 4명을 제외한 29명이 참석, 이종일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어서 최린이 경무총감부에 전화로 독립선언을 통고했다.¹⁷ 대표 29명은 손병희를 필두로 다섯 대의 자동차에 분승, 일경에 연행되었다. 불참한 4사람 중 세 사람은 그날 늦게 도착했고, 김병조는 상해로 탈출했다.

그 시각 파고다 공원에서 민족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대표 10여명이 태화관에 와서 대표들의 파고다 공원 합류를 요청했으나 손병희의 반대로 대표들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시가행진에 나서게 되었다.

3월 1일 당일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은 서울을 포함한 8-9곳이다. 확인된 곳은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진남포, 정주,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이었다. 첫날 만세운동에 이어 그 이튿날에는 함흥, 해주, 수안, 황주, 중화, 강서, 대동 등지에서 일어났고, 사흘 째 되는 3월 3일에는 고종의 인산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개성, 사리원, 수안, 송림, 곡산, 통천 등지에서 일어났다. 만세시위운동은 4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4월 이후 만세운동이 퇴조하게 된 데는 일본 군정의 가혹한 탄압 외에,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독립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운동의 추동력을 고갈시켰기 때문이다. 그 뒤 만세시위운동 대신 대중조직운동과 무장투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민중들이 가졌던 뜨거운 독립열망 때문이었다.¹⁸ 4월 1일 67회나 일어나 정점을 이루었던 만세운동은 4월 11일까지 매일 10회 이상 일어났다. 50회 이상 일어난 날

¹⁵ 한용운과 최린의 만남에 대해서도 불교측과 천도교측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 전보삼은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제창되자 여기에 자극이 되어 만해는 3·1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고, “1918년 12월 26일 그는 최린을 은밀히 만나 그간의 결심을 털어놓았다”고 했다.(전보삼, 위의 글, 211) 그러나 조규태는 불교계와의 협동전선을 두고 “최린이 1월 27.8일 경 일본 유학시 알게 된 한용운을 방문하여 독립운동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시작되었다”고 했고, 한용운은 “이후 2월 20일 경 최린에게서 독립선언서의 발표, 독립청원서, 독립건의서의 송부 등에 의한 독립운동의 자세한 계획을 듣고 이것에 가맹하기로 약속하였다”(조규태, 앞의 글, 189)고 최린의 신문조서를 들어 주장했다.

¹⁶ 김순석, 「3·1운동기 불교계의 동향」『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 29집, 2001.12, 12-13

¹⁷ 『옥파 비망록』(『목암 이종일 비망록』) 1919년 3월 1일자

¹⁸ 임경석, 「사상사적 관점에서 본 3·1운동」『3·1혁명 95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만 3일(3·27, 4·2, 4·3)이 있었고, 30회 이상 일어난 날도 15일이나 되었다. 시위참가자는 서울의 수십만을 비롯하여 의주 3만명, 강화읍 2만명, 합천 삼가 1만명, 삭주군 8천명, 선천읍 6천명이나 되었다. (이정은, 위의 글) 시위는 총 2천(일제측 1,524)회가 넘었고 연인원도 20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 통계는 50명 이상 모인 곳만 통계를 잡은 일제 경찰 통계에 의한 것이지만,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1년 간 1천만명이 참여했다는 증언도 있다.¹⁹

서울의 3·1운동에 대해 이런 묘사도 있다. “미리 뭉쳐 있던 청년 학생 중심의 행동대가 가두시위 행렬을 시작하여, 40~50만 군중이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면서 종로 덕수궁 앞 진고개 남대문 거리 등의 시내 주요 가로를 완전히 독립 전선으로 만들”었고, 3월 3일 “국장(國葬) 당일에는 공경하는 마음에서 시위를 피했지만, 연일 가두시위를 벌이고 학생은 휴교하고 상인은 철시하고 직공들은 파업하고, 관리에게는 퇴직이 권고되었다. 조세 납부를 거부하기로 동맹을 맺고, 『독립신문』이 발간되며, 임시정부 수립 방안이 논의되며, 매국하고 적과 내통하는 무리가 탄핵되었다. 북악산과 북한산 꼭대기에 태극대기(太極大旗)가 펄럭이며, 독립문 편액에 색채를 덧칠하였다.”²⁰

3·1운동은,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을 주장했지만, 일제는 무도하게 총검으로 무차별 살육을 감행하여 한국인 사상자를 많이 내었고 교회, 학교 등 재산상에도 많은 손해를 입혔다. 46,948명이 체포, 투옥되었고(3월~5월), 2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미결수 혹은 기결수로 수감되었으며, 15,900여명이 부상당했고, 7,500여명이 살해당했다. 47개의 교회당과 2개의 학교, 그리고 715채의 한국인 민가가 소각당했다.

[3·1만세운동의 해외 확산] 3·1운동은 국내에서만 전개된 것이 아니다. 한말 이래 해외로 나간 한국민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일어났다. 중국의 동북지역(만주)과 러시아 연해주, 미주 지역에서 각각 일어났다.²¹

중국의 동북지역(만주) 지역은 옛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로서 19세기 후반기에 한국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했고, 일제 강점하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한국인들이 남부여대하고 찾았던 곳이다. 3·1운동 당시 북간도에는 35만, 서간도에는 25만이 거주하고 있었다. 북간도에서는 간민회 간민교육회 등의 항일운동 단체가 있었고, 서간도에도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등의 교민단체가 있었다.

국내의 만세운동 소식이 들려지자 3월 13일 연길현 용정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시작되었다. 원근 각처에서 모인 한인들과 12개 한인학교 학생들도 합류하여 용정에서 약 3만명이 운집했고, 이 때 ‘독립선언포고문’이 선포되었다. 이어서 15일부터는 연길현 이도구·두도구·용두산·수산리·국자가·구사평·마패시·화전자·삼도구 등지에서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했다. 화룡현에서도 3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14~5차례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특히 3월 18일의 청산리 시위는 기독교도와 천도교도와 협력하여 신자들과 학생들 900여명이 모여 시위운동을 했다. 왕청현에서도 4월 16일 백초구의 5000여명을 비롯하여 7차에 걸쳐 2만 3000여명이 시위운동을 벌였다. 훈춘현에서도 용정 시위 1주일 후인 20일부터 시작하여 훈춘을 중심으로 연일 수천명이 계속했고 시위 후에는 결사대를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거나 국내정진대를 선발하기도 했다.

서간도의 만세운동도 유화현·통화현·환인현·관전현·장백현·흥경현·안도현·즙안현·안동현

19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20 崔南善, 『조선독립운동사』, 최남선한국학총서 19, 경인문화사, 2013

21 아래 해외운동 부분의 서술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7권, 379~404를 참조

등지에서 계속되었다. 압록강 대안의 집안현에는 우리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3월 17일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어 대회구에서는 천도교인 60여명이 독립만세를 불렀고, 대평구 평석분에서는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400여명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날 남석차 교회에서도 기독교인·천도교인 600여명이 집결,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시가행진을 했다. 집안현의 경우 4월에 10여 차례나 만세운동이 있었다.

노령 연해주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는 1918년 2월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운형이 노령을 방문했고, 1919년에 들어서는 동경유학생 대표가 문창범을 만났다. 2월 25일, 전로한족중앙총회는 니콜리스크에서 전로국내조선인회의를 개최했고, 여기에 간도 훈춘 지역에서도 대표를 파견했다. 국내 3·1운동 소식이 북간도 지역을 거쳐 연해주로 전해지자 3월 1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에 나섰다. 3월 17일 니콜리스크에서는 국민의회를 조직하고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문창범은 니콜리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11개국 영사관과 러시아 관청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다. 이 밖에도 니콜리스크, 라즈돌노예, 녹(둔)도, 스파스크 등지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연해주에서는 국내진공작전을 위한 동지 규합에 나섰다, 3월 26일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노인동맹단’이 조직되어, 이해 7월 강우규 의사를 파견, 9월 2일 서울역 앞에서 신임총독 사이토[齋藤實]에게 폭탄을 투하했다.

미주에서는 1919년 3월 9일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내 3·1운동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소식을 서재필과 이승만·정한경 및 대한인국민회 각 지방회에 알렸다. 안창호는 이날 대한인국민회중앙총회를 열고 이승만·정한경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 대한인국민회중앙총회는 독립의연금을 모집, 5월 26일까지 3만 388달러를 모금했다. 이런 모금은 뒷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돕는 데에 활용되었다. 한편 4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필라델피아에서 ‘자유한인대회’가 열려 150여명이 모였다. 의장 서재필은 한국독립을 위해 미국의 여론을 일으키는 데에 노력했다. 한편 이 해에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선교부에는 『한국의 사정』(The Korea Situation)이라는 책자를 간행하여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고 한국 독립문제에 대한 미국 교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4.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근대 한국사에서 3·1운동은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다. 3·1운동은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고, 세계 제 1차대전 후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재편성을 시도하던 때에 세계사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는 그 역사적 의의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3·1운동은, 한국의 역사학계가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이나 사회주의권에서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대가 흐를수록 그 역사적 의의는 새롭게 해석되는 등 생명력을 더해가고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강점을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찾으려는 거족적인 독립운동이었다. 일제는 강점 후 기만적인 선전을 일삼았다. 한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도 분통해하지 않는 ‘열등민족’이라느니, 일제의 ‘개혁정치’에 열복(悅服)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의 기만적인 식민통치를 호도하려는 선전활동을 계속했다. 3·1운동은 이같은 기만적인 선전의 허구성과 일제의 거짓된 ‘개혁정치’의 실상을 폭로했다. 아울러 일제가 강점 10년 동안에 행한 통치가 한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무단통치였고, 한민족의 생

존권을 위협하는 수탈통치였으며, 한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민족말살통치였음도 아울러 폭로했다. 이 거족적인 몸부림은 한민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 평화와 공존에 바탕한 완전 자주독립임을 드러냈다. 일제가 3·1운동 후에 형식적으로나마 무단통치를 폐지하고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된 것은 이 운동으로 강점후 10년간의 통치 자체에 심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문화통치라는 것도 종래의 식민통치를 더 교활하게 비튼 것이었다.

3·1운동은 근대 한국민족운동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한말 한국 민족주의운동은 성리학에 바탕한 척사위정계,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하여 사회 개혁과 부국강병을 실현하자는 개화운동계, 조선후기 농민운동(민란)을 통해 성장시켜온 반봉건 반외세를 표방해온 민중운동계로 구분된다. 이들 민족주의운동의 흐름은 반봉건·반침략·근대사회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일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 앞에서는 서로간에 연대성을 공고히하여 사회개혁과 국권수호에 적극 대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흐름은 서로 갈등, 분열하여 민족주의의식을 동태화시키지 못했으며, 일제 강점하에서도 융합하지 못해 국권회복운동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3·1운동은 한말 이래 여러 갈래로 산만하게 흩여졌던 민족주의 흐름을 하나의 물줄기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 민족주의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말하자면 3·1운동은 민족운동의 여러 지류들을 모아 통합된 에너지를 창출하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3·1운동은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비롯하여, 그 뒤의 여러 가지 형태의 민족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3·1운동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족주의세력은 만주와 러시아령에서 무장독립투쟁을 강화하여 독립군 부대를 한·만, 한·러 국경지역에서 국내에 진공시켜 일본군을 공격, 승리하였다. 3·1운동 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등은 3·1운동으로 역량이 강화된 무장독립군의 투쟁의 결과였다. 만주와 노령에서 독립군 단체가 40여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은 바로 3·1운동이 거둔 성과라고 할 것이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로 새롭게 부각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구현된 민주공화정 운동이다. 3·1운동은 민주공화정의 토대 위에 대한민국을 건립토록 했다. 이는 3·1운동이 ‘3·1혁명’으로 불려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민주공화정 운동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3·1운동 때다. 3·1운동 이전의 국권회복운동은, 왕조를 회복하자는 일종의 복벽(復辟)운동이었다. 복벽적 독립운동의 목표는 국왕과 양반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일종의 전근대적인 봉건사회로 회귀하는 것이었고, 대한제국의 회복을 의미했다. 그러나 3·1운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세우고자 한 국가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당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물었을 때, 이승훈 등 대표들은 구왕조의 회복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했다. 이 이념에 따라 건립된 것이 대한민국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정부가 임시정부였다. 한성정부와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정부 그리고 상해의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로 나타났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건립하자는 운동은 우리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혁명적 사건이었다.

3·1운동에서 뚜렷이 나타났고 상해 임정을 통해 구현된 민주국가 설립 논의는 한말에 이미 나타났던 것이다.²² 특히 「대동단결선언」(1917)에서 “황권(皇權) 소멸의 시(時)가 즉 민권(民權) 발생의 시”라고 하여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는 민주국가 건설을 천명한 이래 「대한독립선언서」(1919.2)에서 역시 민주주의를 천명하게 되었고, 「2·8독립선언」(1919.2) 역시 한민족의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국가임을 명시했다. 3·1운동의 민족대표들 역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구상했던 바, 결국 그 해 4월 11일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켰다.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약법을 제

22 박찬승, 「3·1운동과 민주공화제 임시정부의 수립」참조

정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여 그 민주공화정 이념을 담아냈던 것이다. 따라서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약법(임시정부 헌법)은 한국 민주운동사에서 민주공화정 이념을 처음으로 정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여 그 민주공화정 이념을 담아냈던 것이다. 따라서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약법(임시정부 헌법)은 한국 민주운동사에서 민주공화정 이념을 처음으로 실현시킨 일련의 단계이면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것이다. 민주공화정으로 이제 모든 국민은 평등권과 자유권을 가진 주권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평민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 의미깊은 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3·1운동은 우리 역사상 민족독립운동과 민주건설운동을 한꺼번에 담보한 중요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의 민족사적인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 3·1운동이 일어나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국에서는 손문계의 「국민일보」를 비롯한 각종 신문과 영자신문 등에도 보도되었다. 천두슈[陳獨秀] 리다자오[李大釗] 부사년[傅斯年] 등이 한국의 3·1운동을 소개했다. 미국에서도 「뉴욕타임스」「연합통신(UP)」 등에서 3·1운동 관련 기사를 자주 다루었고, 미국 의회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특히 미국 캐나다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한국의 사정’을 간행하여 교회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 영국은 일본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때문에 초기에는 관심을 표하지 않았으나, ‘제암리 사건’ 만행에 대한 서울 영사관의 보고와 주일 영국 대사의 현지 보고를 받으며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일본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가진 데다 3·1운동이 자신들의 식민지 문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3·1운동은 세계 반제(反帝)운동과 약소민족해방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우선 3·1운동은 제1차세계대전후 강대국에 의해 재편되고 있던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에 대해 도전한 최초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의의는 뚜렷하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이유 강화회의에서는 전승 연합국이 패전국에 대한 전책(戰責)을 과중하게 부과시켰고, 패전국 식민지에 대한 처리방안도 전승 강대국에 유리하도록 조정되고 있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1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세계질서인 베르사이유체제였다. 그 체제는 3·1독립선언서에서 염원하고 있던 ‘폭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의 강권침략 시대가 새로운 형태로 여전히 온존, 고수되는 신체제였다. 식민지 강대국이 피식민지 민중의 전쟁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전쟁 기간 중에 약속한 약소 국가·약소 민족의 자주독립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오히려 식민지 수탈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자결원칙도 영국 프랑스 등의 반대로 패전국 이외의 식민지, 특히 유럽의 백인 지역 이외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었다. 그 말은 민족자결원칙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전승국의 식민지나 전승국의 지배아래 있는 약소민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도 전승국 일본의 강점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자결원칙이 적용될 수 없었다.

3·1운동은, 바로 이같은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강권·침략주의에 도전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당시 전승국은, 민족자결주의가 선포되는 것을 계기로 도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약속할 것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강권·침략주의를 전승국 중심으로 더 고수하였다. 이 때 한 민족은 3·1운동을 통해 전승국의 하나로서 베르사이유체제의 수혜국이라 할 일본에 저항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승국의 이익을 틈튼히 담보하기 위해 성립시켰던 베르사이유체제에 도전했던 것이다. 베르사이유체제는 그 허구성과 한계성이 얼마 안가 드러나게 되었고, 세계는 곧 제 2차대전으로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게 되었다. 3·1운동은 베르사이유체제에 최초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그 세계사적인 의의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1운동이 이같이 세계의 또 다른 형태의 강권·침략주의에 맞서는 선행적인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베르사이유체제 성립 과정에서 최초로 약소민족의 울분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여파는 다른 약소민족 약소국가에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독립운동이나 국권회복운동에 자극제가 되었다는 뜻이다. 3·1운동은 중국에서 일어난 5·4운동을 비롯하여 동방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²³ 그 몇가지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은 중국 북경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5·4운동’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의 각 신문들은 자주 이 소식을 전했다. 당시 북경대학 교수로서 신문화운동의 지도자였던 천두슈[陳獨秀]는 「조선독립운동지감상」에서 3·1운동을 격찬하면서 중국민족의 궂기를 호소하였다.

또 당시 북경대학생들의 잡지 『신조(新潮)』의 편집인이었던 부사년[傅斯年]도 3·1운동이 ‘혁명계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극찬하고 중국학생들과 국민들의 궂기를 호소했다. 한편 해외 5·4운동에서는 중국인들의 국민대회에 한국 청년들이 참여, 반일문서를 돌리고 선두에서 반일투쟁을 선동했다. 때로는 임정 간부들이 중국 학생들에게 반일강연을 하기도 했다. 5·4운동이 일어난 데에는 중국의 특수한 내적인 조건이 성숙되어 이루어진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같은 사례들은 한국의 3·1운동이 중국의 5·4운동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⁴

둘째, 3·1운동이 인도 국민회의파의 비폭력 독립운동과 인도차이나 반도·필리핀·아랍의 일부지역의 독립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1919년 4월 5일부터 시작된 인도의 ‘사티야그라하(Satyagraha, 眞理把守)’ 운동은 외부적인 자극으로서 3·1운동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3·1운동이 아시아 제국의 피압박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한 박은식은, “우리 민족은 맨주먹으로 분기하여 붉은 피로써 독립을 구하여 세계 혁명사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었다”²⁵고 그 세계사적인 의의를 극찬했다. 박은식의 이같은 평가가 바로 3·1운동의 세계사적 의의라고 생각된다.

맺는말

3·1운동은 일제 강점 초기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한국민이 당시 세계의 한 조류인 민족자결주의의 흐름을 기민하게 활용하여 일으킨 민족독립운동이요, 이와 함께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주사회 건설운동이기도 했다. 이 운동은 비폭력의 방법으로 동양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는 세계사적 목표와도 연결되었다.

3·1운동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정신은 우선 민족독립과 인간해방을 위한 자주(자유)정신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치·사상·신앙·문화적 자유를 의미했다. 이는 곧 “민족의 자주적인 존영을 위한 정치적 자유”와 “민족의 생존권을 위한 경제적 독립”, “언론·집회·결사를 위한 사상적 자유”,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자유”를 의미했다. 또 3·1운동에서 나타난 ‘민주 정신’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의 건설로 구체화되었다. 군국주의 일제가 이 땅에서 ‘식민지근대화’를 앞세워 자유와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는

23 서대숙, 「3·1운동에 대한 北韓史觀」, 『3·1운동과 민족통일, 3·1운동70주년기념심포지움』, 동아일보사, 1989

24 신용하, 「한국독립운동의 의의와 평가」, 『제국주의와 아시아의 독립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 10』, 국사편찬위원회

25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結論」

동안에 한국민은 망명지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민주적으로 정부를 조직하고 민주 훈련을 실험해 갔다. 한국 민주화의 여정이 이렇게 깊었던 것은 그 뒤 서구화로 포장된 이승만의 위장민주주의와 일제 군국주의 아류인 박정희의 유신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이민족 검제(籍制)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정신은 자주정신의 발로다. 일제 강점기에 끊임없는 항일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주정신 때문이다. 자주민은 자기 스스로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냈다. 민주적이고 다수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공화제는, 3·1운동의 혁명적 열정을 바탕으로 임시정부 운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91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3·1운동의 결정적 산물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운동은 3·1운동을 계기로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선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은 선진들이 이미 사용해 왔던 '3·1혁명'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본다.

[이 글은 2014. 2. 26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3·1운동 제 95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3·1정신 재정립의 현재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첨삭 개고한 것이다. - 필자]

書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

1. 머리말
2.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3. 무단통치기 한국종교계의 동향
 - 1) 기독교
 - 2) 불교
 - 3) 유교
 - 4) 천도교
 - 5) 대종교
4. 맺음말

발표 _ 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논찬 _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

김승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일제의 식민지 종교정책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일본 자국에서 실시하던 종교통제정책의 연장이었으며, 그것의 더 가혹한 적용이었다. 그 기초는 국가신도 내지 신사신도(神社神道)를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교파신도와 불교·기독교를 국가의 공인종교로 삼고 국가 시책에 충실히 따르도록 통제·이용하면서, 그 외의 종교는 ‘유사종교단체’라 하여 불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통제·탄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한 공인종교라 하더라도 그들의 통치 방침에 위협조적이거나 위배될 때는 가차없이 탄압하는 것이었다.¹

일제의 식민지 종교정책은 이러한 기초를 유지하면서, 일본 본토에서 제정에 실패한 제반 종교 관련 법안들까지 일찍부터 제정 공포하여 더욱 가혹한 형태로 그것을 한국에 적용하였다. 특히 무력으로 식민지배 체제를 구축해 가던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는 종교에 대한 ‘차별과 통제’에 그 강조점이 주어졌다. 즉 공인받은 종교단체들과 공인받지 못한 종교 단체들 사이에 엄격한 차별이 있었고, 공인받은 종교라고 할 지라도 그들의 이용 가치와 순응 정도에 따라 현격한 차별이 있었다.²

이 글의 목적은 1919년 3·1운동에서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한국 종교계가 주동이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를 배출한 기독교, 불교, 천도교의 3·1운동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살펴보고, 이어서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대종교의 동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종교문제였다. 당시 한국에는 유교·불

1 김승태, 『식민권력과 종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37-42쪽.

2 위의 책, 43-50쪽.

교·천도교·대종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 일제가 장악은 물론 파악조차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 등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자칫 종교를 무단으로 억압·통제할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통감부 시기부터 서구 선교사들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을 그들의 정책에 동조하도록 회유하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내세워 종교인들이 될 수 있는 한 민족운동이나 국권회복운동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헌병경찰들을 동원하여 종교계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자행하였다.

‘한일합병’이 공포된 당일에 발표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통감의 ‘유고(諭告)’에 종교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것은 그들이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고심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의 종교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信教의 자유는 文明 列國이 均認한 바이라 各人이 其崇拜한 教旨를 倚하여서 安心立命之地를 求함은 固雖其所이나 宗派의 異同으로써 漫히 試其紛爭하며 又藉名信教하여 干議政事하며 若企異圖함은 卽 荼毒 良俗하여 妨害安寧한 者로 認하여 當히 按法處斷치 아니치 못하리라 然이나 儒佛諸教與 基督教을 不問하고 其本旨는 畢竟 人心世態를 改善함에 在한 故로 固히 施政之目的과 不爲 背馳而已 뿐아니라 도로혀 可히 此를 裨補할 者로 不疑하니 以是로 各種宗教를 待함에 毫無挾於親疎之念을 勿論하고 其布教傳道에 對하여 適當한 保護便宜』 與함이 不齊함이라 本官이 今奉 聖旨而 莅此地함은 一히 治下生民의 安寧과 幸福을 增進코자 欲할外에 他念이 無함이라 此茲에 諄諄히 其適從할 바를 諭示한 所以라.”³

여기서 그는 신앙의 자유는 문명국이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종교를 빙자하여 정사를 논하거나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은 풍속을 해치고 안경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유교·불교·기독교는 총독부의 ‘시정목적’과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이 되리라 의심치 않으므로 평등하게 포교 전도에 보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본토에서와는 달리 공인종교인 신도(神道) 대신에 유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과 종교를 ‘안심입명’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극히 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들의 ‘치안유지’나 ‘시정 목적’에 어긋날 때는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의도와 위협을 문맥 속에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종교 억압·통제 의도는 이듬해 그들의 시정보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宗教取締에 관해서는 明治 39년(1906년) 통감부령 제45호로 내지인의 종교선포 수속절차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인 및 외국인의 종교에 관한 것은 하등의 법규도 없어서 그로 인해 포교소가 함부로 설치되고 있어 그 폐해가 크다. 특히 조선인의 조직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天道教·侍天教·大倣教·大同教·太極教·圓宗宗務院·孔子教·大宗教·敬天教·大成宗教 등의 여러 宗이 있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잡다할 뿐 아니라, 그 움직임도 정치와 종교를 서로 혼동하여 순연히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그 취체가 불가피하다.”⁴

그리하여 우선 그들의 통제가 가능했던 불교와 유교부터 사찰령과 경학원규칙을 제정하여 총독부가 직

3 『朝鮮總督府官報』 1910. 8. 29, 「諭告」.

4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施政年報』(1911), 77쪽.

접 통제 장악을 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테라우치총독암살미수사건’이라는 ‘105인 사건’을 날조하여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대거 검거함으로써 그 활동을 위축시켰던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는 이른바 이들 공인종교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포교규칙’의 제정을 1911년 초부터 검토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宗教宣布規則

朝鮮에서 現在하는 宗教中에는 專히 人心을 善導함에 努力하는 者이 有하나 其中에는 宗教의 名色으로써 人心을 攪亂하거나 不法의 金錢을 貪하는 者이 있으므로 當局에서 이에 對하여 當히 注意하더니 今回에 朝鮮에서 宗教를 宣布하는 者에게 對하여는 耶穌敎, 佛敎及 朝鮮在來의 各種宗教를 不問하고 整理取締에 關한 規則을 發布할터이라더라.”⁵

이 포교규칙은 1915년 8월에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발표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총독부는 이 규칙에서 “본령에서 종교라 함은 신도 불도 및 기독교를 이룸”이라 하여 이른바 공인종교를 일본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파신도와 불교, 기독교에 한정하고, 이들 종교선포에 종사하는 자는 자격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포교에 관해서는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종교 용도로 쓰기 위한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를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 때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령을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 유사 단체”에도 준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하여,⁶ 이 법령으로 사실상 조선총독은 모든 종교단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종교관련 법규들을 통하여 정작 일본에서는 그 제정이 좌절되었던 ‘종교법’을 조선총독이 입법·사법·행정 및 군사권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식민지 조선에서 제정 실시하였던 것이다.

종교단체에 대한 억압과 통제는 이러한 종교관련 법규들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총독부 관공리들, 특히 헌병경찰들을 통해서 신자 개개인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간접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되었던 것은 1912년 3월에 공포한 경찰범처벌규칙이었다. 그 규칙 가운데 “단체 가입을 강청하는 자”,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화, 시가의 게시, 반포, 낭독 또는 방음을 하는 자”, “함부로 길흉화복을 말하고 또는 기도, 符呪 등을 하고 혹은 守札類를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병자에 대하여 禁厭, 기도, 부주 또는 정신료법 등을 실시하고 또는 神符, 神水 등을 주어 치료를 방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구류 또는 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이 규칙은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모든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조선총독부가 1910년대에 일반 종교계에 대해서는 억압·통제 정책을 실시한 반면에 신사신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령정비를 통하여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주입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일제는 침략에 의하여 식민지를 획득하거나 조차·위임통치 등에 의하여 시정권을 얻으면 그 지역에 예외없이 관폐대사(官幣大社)를 설치하였

5 『매일신보』 1911. 1. 7, 「宗教宣布規則」

6 『朝鮮總督府官報』 1915. 8. 16.

7 『朝鮮總督府官報』 1912. 3. 25.

다. 그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일본 거류민들이 세운 신사를 그 밑에 두고 현지인의 토속신앙을 교화한다고 하는 이른바 ‘종교적 지배체제의 정비’를 꾀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도 내무국 지방과가 중심이 되어 관립신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1912년부터 이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 신사는 경성의 남산 중턱에 20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건립하기로 하고, 제신은 일본 내무대신에게 조회하여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메이지천황(明治天皇)’으로 하였으며, 1918년 12월 일본 내각 총리대신에게 “조선신사 창립에 관한 청의”를 하여 일본 각의의 결의를 거쳐 1919년 7월 18일자 내각고시 제12호로 조선신사 창립을 확정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5월에 공사에 들어가 1925년에 완공하였다. 이들의 이 신사의 건립 의도는 하세가와(長谷川好道) 조선총독이 일본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한 다음과 같은 ‘조선신사 창립에 관한 청의’에 잘 드러나 있다.

“아직 조선 全土의 민중 일반이 존송해야 할 神社가 없어 민심의 귀일을 도모하고 충군애국의 念을 깊게 할 점에 있어 유감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차제에 國風移植의 大本으로서 內鮮人이 함께 존송할 神祇를 勸請하여 반도주민으로 하여금 영구히 報本返始의 誠을 바치도록 하는 것은 조선 통치상 가장 긴요한 일이라 생각된다.”⁸

일제가 메이지유신 초기에 강력히 실시하였던 ‘신도국교화정책’을 그들의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하여 일반 민중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신사신앙을 강요하고, 일본 풍속을 이식하여 ‘동화’시키는 것이 조선통치상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조선신사를 건립하려 하였던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관공립 신사는 물론 민간 신사에 대해서도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신사사원규칙’을 제정 발표하여, 모든 신사의 창립과 존폐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의 신사들도 총독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사에 관공립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다.⁹ 이어서 1917년 3월 22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신사(神祠)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신사(神社)로 공인받지 못한 소규모 집단의 소사(小社)라도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관리를 규정하여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취하였다.¹⁰

따라서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종교차별 통제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무단통치기 한국종교계의 동향

1) 기독교

1910년 8월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일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종래의 회유이용 정책을 버리고 노골적인 억압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기독교의 신앙과 근본정신이 그들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정면으로 대립되었고, 한말 한국 기독교인들이 항일 민족운동과 국권회복운동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 무렵 한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은 불법적 지배를 하던 일제와 이에 저항하던 한국인 사이에 끼어서 자국 정부와 선교 본부의 방침에 따라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엄정한 중립을 표방하였지만, 실

⁸ 『朝鮮神宮造營誌』, 조선총독부, 1927, 9쪽 및 『京城府史』下(1941), 636-637쪽.

⁹ 『조선총독부관보』 1915. 8. 16.

¹⁰ 『조선총독부관보』 1917. 3. 22.

제로는 신생 교회를 보호하고,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일제의 식민권력을 “충성스럽게 인정(loyal recognition)”하는 태도를 취하였다.¹¹ 그렇지만 총독부는 이런 선교사들조차도 믿지 않고, 이들을 한국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거나, 정교분리를 내세워 최소한 학교교육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는 선교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을 부추기거나 일본 조합교회를 지원하여 한국교회를 선교사와의 관계를 끊고 일본교회에 예속시키고자 하였다.

이 무렵 한국교회는 장감 선교사들이 주동이 되어 백만명구령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현실 정치에서 멀리하게 하고 개인적인 신앙과 전도활동에 집중하게 하여 교세를 키우려는 전략이었다. 이 운동은 교파 연합으로 1910년 4월부터 1911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백만매의 전도지와 수십만부의 마가복음서 쪽복음을 반포하며 진행되었지만, 그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의 교회에 대한 경계심만 자극하여 1911년 10월 이른바 ‘105인 사건’을 조작하는 배경이 되었다.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 또는 ‘한인 음모사건(The Korean Conspiracy Case)’으로 알려져 있는 ‘105인 사건’은 당시 식민지 치안을 맡았던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기독교계 민족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친한적인 선교사들을 추방할 목적으로 조작한 관제 허위사건이다.¹² 1911년 10월 12일 평북 선천의 기독교계 학교인 신성중학교 학생 3명을 검거하여 서울로 압송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서울 평양 정주 선천 등지의 기독교계 학교의 학생과 교사, 기독교계 지도자 300여명을 검거하여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그 가운데 123명을 기소하여 1912년 9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05인에게 유죄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에는 매쿰(G. S. McCune), 마펫(S. A. Moffett), 노블(W. A. Noble), 베커(A. L. Becker) 등 북장로회와 북감리회 선교사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미국의 선교 본부들에 알려지고 이들이 일본정부에 기독교 탄압사건으로 항의하고 압력을 가하여 1913년 3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99명이 무죄로 풀려나고, 윤치호·양기탁·이승훈 등 6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총독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었다. 윤치호 등 유죄 판결을 받은 6명은 즉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여, 고등법원에서는 5월 24일 원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복심법원에서 재심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구복심법원에서는 7월 15일 원심 유죄 판결을 유지하도록 선고했다. 그러자 다시 피고들은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고등법원에서는 10월 9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윤치호·양기탁·이승훈·안태국·임치정에게는 징역 6년, 옥관빈에게는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었다. 이들은 결국 감옥살이를 하다가 1915년 2월 13일 신임 천황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¹³

일제는 한국 병탄 전부터 선교사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포교의 자유와 기독교계 사립학교의 존속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독교계 학교가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동화정책에 기반한 그들의 식민통치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에는 그 존립을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 그러나 1911년 8월 조선교육령과 10월 사립학교규칙을 만들어 발표하면서 기독교계 학교의 시설과 교육내용을 문제 삼아 간섭하였다. 1914년 1월 간행한 『朝鮮統治三年間成績』에서 기독교계 학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대개 종래 조선의 보통교육정도의 학교로서 다소 불만한 것은 많은 경우 외국선교사들이 설립에 관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강제한다면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들 학교는 모두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신할 관공립학교가 완비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폐교에 의

11 Arthur Judson Brown, *Report on a Second Visit to China, Japan and Korea 1909*,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CUSA, 1909, p. 81.

12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연구」, 일지사, 1990 참조.

13 「매일신보」 1915. 2. 16.

14 김승태, 「일제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기독교 학교」, 『신학사상』 74, 1991 참조.

해 교육상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것이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다만 그 폐단을 방지함에 그치고, 장래 교육 제도가 완성되는 시기에 이르러 교육과 종교의 분리주의를 힘써 행하려고 한다.”¹⁵ 또한 고등교육은 1911년 8월에 공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전문학교로 그 수준을 제한했을뿐만 아니라, 그 시행도 뒤로 미룸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고등교육을 허용하지 않았다.

총독부는 기독교계가 학교교육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하여 1915년 3월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였다.¹⁶ 이 규칙은 1911년 10월에 제정한 것을 개악한 것으로 개정의 목적은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여, 기독교계 학교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고, 교수 용어도 일본어로 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을 교사직에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즉 기독교 교육이 그들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식민지 교육과 배치되므로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와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의도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가 사립학교규칙 개정의 요지를 설명한 것으로 “개정의 2대 요점”은 종교와 교육의 분리와 교원 자격의 강화임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는 식민지 교육을 총독부가 독점하고, 교원도 일본어에 능하고 그들의 식민지 교육 실시에 적합한 인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 규칙 개정의 주요한 목적이 기독교계 교육의 탄압과 선교사의 교사 자격 박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⁷

1917년 4월 총독부의 인가를 받은 기독교 연합대학 설립 문제를 둘러싸고는 장감 선교부와, 북장로회에서는 선교본부와 한국선교부 사이에 의견차이로 갈등이 있었다. 일제강점 초기 미북장로회 선교본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평양의 숭실대학을 한국에 선교하는 선교부들의 유일한 연합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서울에 대학을 설립하려던 언더우드와 북감리회 한국선교부의 반대 의견에 직면하여 “하나의 기독교 연합대학”을 설립하는 것으로, 후에는 그것을 “서울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자 숭실대학과 미북장로회 한국선교부는 이에 반대하여 “대학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는 선교본부가 숭실대학을 당분간 계속 지원하며, 북장로회 한국선교부는 서울의 기독교 연합대학 설립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각 교파별로 또는 교파연합으로 복음전도와 교육, 의료선교에 힘쓰고, 신학교를 통하여 한국인 교역자 양성에 매진하였다. 조직도 강화하여 장로회는 1912년 9월 총회를 조직하고, 중국 산둥지역 해외선교도 추진하였다. 1915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주간신문인 『기독신보』를 창간했고, 1918년 3월에는 조선예수교장감연합협의회를 조직 운영하였다. 이 교파연합기관은 1924년 9월 창설된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의 전신이다.

참고로 이 시기 기독교 포교상황과 교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독교 포교상황 (1910~1914) |

구 분	교 회	선교사	한국인 포교자	신자수(개신교만)
1910	688	230	2121	160589
1911	664	246	2058	163671
1912	735	303	2045	151157
1913	636	258	2276	136427
1914	640	269	2522	148734

※ 자료: 각 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5 『朝鮮統治三年間成績』, 조선총독부, 1914, 65쪽.

16 『조선총독부관보』 1915. 3. 24.

17 『朝鮮彙報』(1915년 4월), 22~27쪽.

| 기독교 포교상황 (1915~1919) |

구 분	포교소	포교자	신자수	비 고
1915	3059	1999	258932	구교 포함
1916	2893	2145	183851	
1917	2961	2269	178285	
1918	2945	2316	218299	
1919	2915	2309	195578	

※ 자료: 각 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 기독교 각 교파별 교세 (1916~1919) |

구 분	1916		1917		1918		1919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교회	교인
천주교회	206	83893	215	80613	222	82843	224	81504
장로회	1885	124170	1908	114106	1896	156628	1899	141044
미북감리회	553	40361	578	37609	565	40722	564	34414
미남감리회	258	8606	259	16074	252	10722	224	9442
성공회	70	5465	72	4621	72	4622	71	4264
정교회	6	553	6	553	6	549	6	558
안식교회	36	832	49	868	44	859	44	839
동양선교회	10	501	11	1182	13	570	16	850
구세군	81	3916	84	3825	103	4176	97	4725
합계	3105	268297	3182	259451	3173	301691	3145	277640

※ 자료: 각 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2) 불교

조선총독부가 가장 먼저 종교통제에 성공한 것은 불교계였다. 불교계는 조선조의 승유억불정책에 따라 억압을 받아오다가, 1895년 일본 일련종(日蓮宗) 승려 사노 켄레이[佐野前勵]의 건의로 도성 출입금지령이 해제되고, 일본 불교의 각 교파들도 일찍부터 한국에 들어와 일본 거류민들에게 포교하거나 한국 사찰을 일본 사찰이나 포교당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¹⁸

1908년 3월 이회광(李晦光)을 비롯한 13도 각사(各寺) 총대 65인의 발기로 서울 동대문밖 원흥사에 있던 승려학교인 명진학교(明進學校)에서 불교의 교육과 포교를 담당할 각도 사원의 총람기관으로서 불교종무국(佛教宗務局)을 조직하였다.¹⁹ 4월 이들은 원흥사에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의 설치를 결의하고 이회광을 대종정(大宗正)으로 추대하기로 하였다.²⁰ 그리고 그 해 여름 일진회 회장 이용구와 친일내각의 내부대신 송병준이 모의하여 일본 조동종(曹洞宗) 승려 다케다 한시[武田範之]를 이회광이 이끌고 있던 원종종무원 고문(정식 명칭은 十三道佛寺總顧問)으로 추천하여 들여보냈다. 이회광은 다케다의 권고에 따라 1909년 2월 “각도 사찰총대”라는 직함과 “국내 불교의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종무원” 설립을 정부에 청원하였다.²¹ 그리고 그해 12월 12일 원흥사에서 승도 150여명이 모여 국내 사찰을 확장하기로

18 『한국사』 46, 국사편찬위원회, 2000, 123-129쪽; 최병헌, 「일제의 침략과 불교」,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001 참조.

19 『대한매일신보』 1908. 3. 17, 「佛教宗務局趣旨書」

20 최병헌, 「일제의 침략과 불교」,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001, 109쪽.

21 『대한매일신보』 1909. 2. 18, 「佛教統壹」

협의하고 한성부내에 불교총합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다.²² 1910년에 접어들면서 원흥사를 종무원으로 개칭하고, 소속 불교당을 한성의 도성안에 건설하기 위하여 전국 사찰로부터 건축비를 모금하고 부지를 물색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 5월경에 경성 북부 전동(磚洞)에 각황사(覺皇寺) 건축을 시작하여 10월에 준공하였다.²³ 그리고 이와 함께 각황사 주무(主務) 이회광은 총독부 내무부에 원종종무원 설립을 청원하였다.²⁴

일제의 강제 병합이 사실화되자 이회광(李晦光)은 다케다 한시(武田範之)와 협의하여 그의 알선으로 한국의 원종을 일본의 조동종에 '연합동맹'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병탄 직후인 1910년 9월 전국 72개 사찰의 위임장을 받아 일본에 건너가 일본 조동종과 교섭하여 10월 6일 7개조로 이루어진 이른바 「연합맹약(聯合盟約)」을 체결하였다. 이 맹약은 표면상으로는 대등한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적 내용은 한국의 원종을 일본의 조동종에 예속시키는 불평등맹약이었다.

그러나 1910년 12월경 이 「연합맹약」의 원문이 원종종무원 서기를 통해서 통도사에 알려지자 불교계에서 이회광의 '매종역조(賣宗易祖)' 행위에 대한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양사의 박한영(朴漢永), 화엄사의 진진응(陳震應), 범어사의 한용운(韓龍雲) 오성월(吳惺月) 등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는 사찰들에 통문을 돌려 1911년 1월 15일 송광사에서 승려대회를 열어 이회광의 원종에 대립하여 임제종(臨濟宗)을 표방하였다. 여기서 임시종무원을 송광사에 두기로 하고, 관장은 선암사의 김경운(金敬雲)을 선임하였으나 연로하여 직무대리로 한용운을 선임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의 전불교계는 원종과 임제종으로 양분되어 상쟁하였다.

총독부는 이렇게 분열된 한국불교계를 어느 쪽도 인가하지 않고, 이들을 통합·정비·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11년 6월 3일 제령 제7호로 '사찰령'과²⁵ 7월 8일 부령 제84호로 '사찰령 시행규칙'을 발령하여,²⁶ 조선총독이 직접 한국불교계를 통제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300여개의 사찰을 30개의 본산과 본말사 관계를 맺게 하고 본산의 주지 임명은 총독이 직접 이를 승인하며, 그밖의 사찰의 주지들도 지방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사찰의 병합 폐지는 물론 일체 재산의 처분과 사법(寺法)의 제정까지도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이로써 총독부는 한국불교계의 전통적인 자율성을 말살하고 강력한 통제와 전제적 지배권을 확립하여²⁷ 그들의 식민지 교화기구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²⁸

총독부는 경성부를 통해서 1912년 6월 21일 한용운과 이회광, 강대련을 불러 임제종과 원종의 포교당 간판을 모두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²⁹ 그러자 원종측은 그 무렵 개최하고 있던 30본산 주지회의에서 원종을 '조선불교선교양종각본산주지회의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고 밝혔다.³⁰ 원종 사찰들은 즉시 총독부의 지시에 따랐지만, 임제종은 얼마간 총독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조선임제종'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사찰도 있었다.³¹

총독부는 한국의 불교를 선교양종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게 하고, 30본산주지회의를 정례화하여 30본

22 『황성신문』 1909. 12. 19, 「寺刹擴張」

23 김광식,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大覺思想』 6, 대각사상연구원, 2003 참조.

24 『매일신보』 1910. 10. 22, 「宗務院 設立請願」

25 『조선총독부관보』 1911. 6. 3.

26 『조선총독부관보』 1911. 7. 8.

27 李鴻範, 「韓國で行なわれた日本の植民地宗教政策」, 『新羅佛敎研究』, 山喜房佛書林, 1973, 681-683쪽.

28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참조.

29 김광식, 「백용성의 사상과 민족운동 방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72쪽;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40쪽.

30 김순석, 위의 책, 40쪽.

31 최병헌, 「일제의 침략과 불교」, 『한국사연구』 114, 한국사연구회, 2001, 115쪽.

산체제 강화를 통해 불교계를 통제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15년 2월 25일 「조선사찰각본사연합제규」³²를 인가하고, 각황사에 조선사찰삼십본산강학포교연합사무소³³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서울에는 중앙학림, 각 본사에는 지방학림을 두어 불교 강학을 하게 했다. 서울의 중앙학림은 1915년 11월 5일 총독부의 승인을 거쳐 개교하였다.³⁴

참고로 이 시기 한국 불교의 교세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인 설립 사찰 승니 및 신도 수 (1916년 말) |

구 분	사찰 수	승	니	합 계	신도 수
경 기	205	1178	443	1621	122458
충 북	45	141	53	194	18185
충 남	78	331	270	601	26990
전 북	118	325	72	397	48990
전 남	65	856	87	943	22900
경 북	242	1359	90	1449	116452
경 남	168	1383	104	1487	63840
황 해	65	136	27	163	16188
평 남	50	59	5	64	24590
평 북	130	148	7	155	44735
강 원	132	702	142	844	79386
함 남	82	266	120	386	29978
함 북	32	36	0	36	11064
총 계	1412	6920	1420	8340	625756

※ 자료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한일관계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110쪽;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17)

| 한국인 설립 사찰 및 사원 (1910-1918) |

구 분	사찰	승	니	계	사원	사원관리자
1910	966	5210	569	5779	46	—
1911	—	—	—	—	—	—
1912	1283	6834	1066	7900	46	—
1913	1237	6769	1066	7835	46	51
1914	1385	6972	1198	8170	44	46
1915	1401	6963	1284	8247	44	60
1916	1412	6920	1420	8340	44	51
1917	1381	6776	1350	8126	44	50
1918	1350	6686	1275	7961	44	50

※ 자료 : 각 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3) 유교

일제가 식민지배하게 된 한국사회는 많이 쇠퇴하기는 하였지만, 유교가 지배하던 사회였고, 봉건적 윤

³² 『조선총독부관보』 1915. 3. 1; 『매일신보』 1915. 3. 2.

³³ 『조선총독부관보』 1915. 4. 30.

³⁴ 김광식, 「중앙학림과 식민지 불교의 근대성」, 『사학연구』 71, 한국사학회, 2003, 181쪽.

리도덕으로서 유교는 일제에게도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상통한 면이 있어 이용가치가 높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의병전쟁과 순국 투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일제의 식민지화에 저항하던 세력도 유림들이었으므로 총독부 설치 초기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와는 달리 유교를 표면적으로는 공인종교의 하나로 인정하는 듯하면서 회유와 통제에 착수하였다. 병합직후 유력한 양반 유생들에 대하여 ‘상치은금’을 지급하고, 조선 귀족에게 작위를 수여하며, 이른바 ‘합방은사금’을 지급한 것은 유림에 대한 회유 매수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11년 6월 종래의 성균관을 폐지하고 경학원 규정을 발표하여 “경학원은 조선총독에게 속하여 경학을 강구하며, 문묘를 제사하며, 풍교덕화를 비보” 한다고 한 것은 유교계를 조선총독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었다. 지방의 향교에 대해서도 병합 전에 이미 ‘향교재산관리규정’(1910년 4월)을 발표하여 그 재산을 지방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거기서 생기는 수입도 관공립학교의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1911년 10월 ‘지방문묘직원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여 향교에 직원을 두고, 부윤, 군수의 지휘를 받아 문묘를 수직하고 업무를 맡되, 그들의 임면은 부윤, 군수 등의 신청에 의해 도장관이 시행하도록 하여 그 직원을 친일적인 인물로 세워 총독부가 통제하였다.

이와 같이 주요 유교 기관을 장악하게 된 총독부는 그들의 회유에 넘어간 유생들을 이용하여 경학원과 향교를 한국인의 ‘충량화’와 ‘동화’를 위한 사회교화기관으로 삼고자 하였다. 1912년 3월 경학원 대체학의 추천을 받아 경성과 13도에 강사를 임명하고 명륜당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갖게 하는 한편, 지방에도 경학원 직원이나, 각도에서 선발된 강사들이 도내를 순회하며 강연하도록 하였다. 1913년에 발표한 ‘경학원 강사 순강에 관한 건’이나, 1915년 10월에 발표한 ‘경학원 강연 시행에 관한 요항’은 모두 이러한 부유(腐儒)들의 회유 이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15년부터는 이른바 ‘교육에 관한 칙어’를 경학원에 두고 강연회를 시작할 때 이를 ‘봉독’하고 하게 하였다.³⁵ 1918년 2월에는 ‘서당규칙’과 ‘서당규칙 발표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사설 서당까지도 지방관이 이를 단속·통제하여 부족한 관공립 학교와 ‘교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유교정책에 대하여 국내 유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의식과 지조가 있는 유림들은 총독부가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수여한 작위와 ‘은사금’, 기념장 등을 거절했다. 이학순(李學純)과 같이 ‘은사금’을 거절하고 자결하거나, 안효제(安孝濟), 노상익(盧相益)과 같이 해외로 망명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⁶ 벽지에 은둔하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함으로써 일제에 이용당하기를 거부하고 일제의 탄압을 피하는 경우도 많았다.³⁷ 적극적으로는 조선독립의군부나 민단조합, 조선국권회복단, 대한광복회 같은 항일 비밀결사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림들은 일제가 무단통치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는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순응’하고 있었다.

한편, 태극교(太極敎)나 대동교(大同敎), 공자교(孔子敎) 같이 유교의 종교화운동에 참여한 유생들도 있었으나, 이들은 ‘유사종교단체’로 취급을 받거나, ‘인가’를 받지 못해 그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더욱이 유교는 참여자 모두가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양반계층의 인물들이었으므로, 유교가 종교화되지 않는 한 일반 대중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 시기 유교의 교세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지방 유림의 근거지인 향교(鄕校)의 분포와 서당수는 다음과

35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1910-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 제7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91-95쪽.

36 서동일, 「1919년 파리장서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20-21쪽.

37 예를 들면, 1912년 여름 메이지 천황의 사망으로 총독부에서 한국인에게 상복을 입고 요배의식에 참여하도록 하도록 강요하자 유림들은 대체로 외부활동을 자제함으로써 소극적 저항을 하였다.

같다.³⁸

| 도별 향교의 분포 |

도 별	부(府) 수	군(郡) 수	향교 수	1914년 폐지된 곳	1919년 서당 수
경 기	2	20	38	1	2481
충 북	0	10	18		968
충 남	0	14	36		1437
전 북	1	14	26		1539
전 남	1	22	22	10	2417
경 북	1	22	23	18	1770
경 남	2	19	30		1854
황 해	0	17	19	4	2967
평 남	2	15	14	9	1825
평 북	1	19	21		2108
강 원	0	21	25	1	2187
함 남	1	16	14		1976
함 북	1	11	11		501
합 계	12	220	297	43	24030

※ 자료 :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會, 1922, 100-101쪽; 『조선총독부 통계연보』(1919)

| 서당 상황 (1915-1919) |

구분	서당수	교원수	생도수	경비(엔)
1915	23441	23674	229028	734207
1916	25486	25851	268014	864504
1917	24924	24507	264023	1148515
1918	23350	23590	260140	1567171
1919	24080	24173	275261	2368680

※ 자료 : 각 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4) 천도교

천도교는 조선말기 최제우(崔濟愚)가 창설한 동학(東學)의 제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가 1905년 12월 동학을 개칭 개혁한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이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동학도들은 계속해서 조선 정부와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1898년 5월에는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이 체포되어, 7월 처형되었다. 교주를 잃은 동학교도들은 흩어져 은둔생활을 하다가 1900년 7월 풍기에서 중통설법식을 열고 손병희(孫秉熙)가 제3대 동학 교주인 법대도주(法大道主)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이 계속 되어 1900년 동학의 지도자이던 손천민(孫天民)과 서장옥(徐璋玉)이 체포되어 처형되고, 김연국(金演局)도 체포되자, 손병희는 1901년 3월 이용구와 함께 일본에 망명하여 이상헌(李祥憲)이라는 이름으로 변명하고 망명한 개화파 인사들과 교제하면서 근대적 문물수용을 통한 동학교단의 체제정비를 모색하였다.

38 『朝鮮諸宗教』의 저자인 吉川文太郎은 향교의 성격을 1) 법률상 인격권과 재산권을 갖는 법인, 2) 지방의 공공단체, 3) 일종의 지방교육 기관, 4) 유교의 회당, 5) 일종의 관폐사(官幣社)라고 주장한다(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會, 1922, 101-103쪽). 서당은 유교의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교의 경전을 유림출신인 훈장이 가르친다는 점에서 유교의 교세를 추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손병희에 의해 지도되던 동학교단은 1902년 무렵부터 ‘문명개화의 근대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종래의 ‘반일투쟁 노선’에서 ‘친일 협력노선’으로 전환하였다.³⁹ 그는 1904년 2월 동학 간부 40명 정도를 도쿄(東京) 자신의 처소로 불러 국내에서 민회(民會) 개설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같은 해 4월 대동회(大同會)를 조직했으나, 대한제국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고, 같은 해 9월 중립회(中立會)를 조직했으나, 이 또한 친일 또는 친러 단체로 오해를 받게 되자, 이것을 진보회(進步會)로 개칭하여, 그의 심복이던 이용구(李容九)가 지도했다. 이용구가 이끌던 진보회(進步會)는 일본군부를 배경으로 송병준(宋秉峻)이 조직한 일진회(一進會)와 1904년 12월 합동하여 ‘합동일진회’로 개칭한 후 러일전쟁 중 친일활동을 전개했다. 일진회는 러일전쟁 후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이 확실해 지자 1905년 11월 5일 회장 이용구의 명의로 일본의 지도와 보호를 받아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진회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⁴⁰

일본에 있던 손병희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여론이 악화되어 일진회에 대한 비판이 동학교단에까지 미칠 것을 염려하여 일본에 건너온 동학 간부들과 함께 의논하여 12월 1일부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 국내 일간지에 ‘천도교대도주 손병희’의 명의로 광고하였다.⁴¹ 1906년 1월 귀국한 그는 천도교중앙총부를 서울 다동(茶洞) 흥문서골에 설치하고 교단정비에 착수하여, 천도교대헌과 기본 의례인 5관(五款)을 제정 공포하고,⁴² 중앙총부 임직원을 임명하였다. 천도교는 이 때부터 일요일을 시일(侍日)로 정하여 매 일요일마다 신도들이 교당이나 전교실에 모여 성화회식(聖化會式)을 거행하였다.⁴³ 이어서 3월에는 각 지방에 72대교구를 설치하고 구장을 임명하였다.⁴⁴ 이 무렵 활판인쇄소인 박문사(博文社, 4월 普文館으로 개칭)를 설치하고, 6월 17일 민중계도를 위해 일간지로 『만세보(萬歲報)』를 창간하였다.

일진회와의 관계도 정비하여 교도들에게 일진회를 탈퇴하게 하고, 1906년 9월 일진회 회장 이용구를 비롯한 일진회 회원 62명을 출교 처분했다.⁴⁵ 그러나 이용구는 일진회 활동을 계속하며 12월 종교단체로 시천교(侍天敎)를 창립하였다. 천도교는 이용구 일파의 출교와 시천교의 분열로 교인수와 재정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자 1906년 12월 조직을 재정비하여 전국 72개 대교구를 통폐합하여 해당지역 지명을 붙인 23개 대교구로 개편하고 처무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⁴⁶

1907년 4월부터는 제정의 확보를 위해서 ‘성미 납부’제를 실시하고, 교리 교육을 위하여 근대적 교리해설서도 발간하였다. 또한 교단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1908년 제1차 교리강습회를 열고, 1910년 4월 천도교 간부 74인 공동전수심법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기관지로 『천도교회월보』를 창간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 사실이 공표되자 월보사 주간 이교홍(李敎鴻)의 명의로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에 병합 반대 성명서를 발송하여 이 일로 4, 5명의 간부가 투옥되고 발행인이 교체되는 수난을 겪었다.⁴⁷

39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참조.

40 『皇城新聞』 1905.11. 6-7, 「一進會宣言書」

41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8, 128쪽

42 천도교의 5관(五款)이란 주문(呪文), 청수(淸水), 시일(侍日), 성미(誠米), 기도(祈禱)로 교인들이 지켜야 할 다섯가지 정성을 뜻한다. 이 5관은 1911년 3월 손병희 대종사의 공함으로 기본적인 규칙이 정해졌다. 즉 주문은 한울님과 스승님의 감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할 것, 청수는 매일 오후 9시 가정에서 받들 것, 성미는 식구 수대로 밥 쌀에서 한술씩 뜸 것, 시일에는 교당이나 전교실의 성화회에 참여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교리를 공부할 것, 특별기도시에는 전차에 따라 지성으로 축원할 것 등이다(『천도교약사』, 148-149쪽).

43 성화회식(聖化會式)은 기독교의 주일예배와 같은 것으로 청수, 심고, 주문, 설교를 위주로 매 일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12시에 마쳤다.

44 『大韓每日申報』 1906. 3. 17-18, 「雜報」, 교구는 교인수 10만이상으로 정했다.

45 『皇城新聞』 1906. 9. 21, 「天道敎人黜敎」

46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8, 133-134쪽.

47 『천도교약사』, 140쪽.

1910년 12월에는 일반 학교교육에도 참여하여 재정난으로 폐교 위기에 있던 보성학원의 보성학교, 보성중학교, 보성법률상업학교를 인수 운영하고, 동덕여학교, 문창학교, 보창학교, 대구의 명신여학교도 인수 운영하였다. 이 때 교리강습소의 교사를 양성하던 사법강습소를 보성중학교에 병합시켰으나, 그 후 교리강습소의 증설로 교사가 부족하자 1912년 1월 중학강습소를 설치하여 제1차 교리강습회를 열고 지방에서 참여한 중견지도자 500여명에게 10개월 동안 교리교육을 실시하였다.⁴⁸

이 무렵 조선총독부의 천도교도에 대한 인식은 『매일신보』 1911년 10월 11일자 「경고천도교도(警告天道教徒)」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사설이 잘 보여준다.

“彼 天道教徒는 舊習이 尙存하야 靈跡이라 稱하는 虛妄의 讖說로 民心을 教唆하며 誠米라 稱하는 假飾의 名義로 民財를 聚斂할뿐 아니라 所謂 教主는 儀節이 汎濫하야 王者에 擬하고 所謂 總部는 規例가 僭越하야 政府에 倣하니 是를 어찌 宗教家의 本色이라 謂하리오 且 數十人씩 無常會集하야 教理를 講論하거나 教務를 執行함이 아니오 但히 閑談浪說로 政治의 得失을 論難함이 아니면 人物의 是非를 批評함에 不過한즉 此를 어찌 宗教家의 本義라 謂하리오 若此 不已하면 性靈을 修鍊하는 教門이라 稱키 難하고 寧히 遊民俱樂部라 謂함이 可하도다.”⁴⁹

그리하여 총독부는 천도교를 종교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각종 제제를 가하며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거나 총독이 직접 교주 손병희를 불러 위협까지 하였으나, 강제로 해산시킬 수는 없었다.⁵⁰ 그리하여 행정기구를 통하여 그 활동에 여러가지 제제를 가하면서 천도교 내부의 불만을 가진 친일적인 인물들로 천도교혁신회를 조직하게 하여 천도교에 대립하는 분열책을 쓰기도 하였다.⁵¹ 이에 대하여 미주에서 발행하던 『신한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천도교는 우리나라 종교에 제일 큰 단체로 교인은 백만명 이상이 되어 그 정신이 굳건하다고 지목하는 고로 일찍 왜독부에서 그 교주 손병희씨를 청하여 위협도 하며 달래기도 하되 손씨는 말하기를 나 한 사람은 죽든지 살든지 바람 같고 백만명의 뭉친 정신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답하매 사내(寺內)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뒤로 여러가지 음해를 하더니 요사이에는 최제학이란 자가 일인의 창귀가 되어 규칙을 발표하고 그 전 사일환이란 자가 유신회를 조직하여 황성기독교청년회를 박멸하던 방법과 같이 함으로 이에 대하여 교인 전체가 극렬 반대하나 이것이 일인의 설계이므로 낙착이 어찌 될 것을 모르겠다고 일반 통탄한다더라.”⁵²

천도교 교인이 증가하자 1914년 7월 종래 23개 대교구를 35개 대교구로 개편하고 대교구장을 임명하였다. 8월 2개의 대교구를 증설하여 모두 37개 대교구로 확대 개편하여 전국의 191개 교구를 해당 지역 대교구의 관할교구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각 대교구에서 의사원(議事員) 1인을 선임하여 중앙총부에 근

48 김정인, 「1910년대 『天道教月報』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325쪽.

49 『매일신보』 1911. 10. 11, 「社說 警告天道教徒」

50 총독부가 천도교를 강제로 해산시키지 않은 이유는 ‘종교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천도교측의 순응적 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 보다 더 큰 원인은 천도교를 해산할 경우 그 교인들이 기독교로 전입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146쪽)

51 『每日申報』 1913. 8. 9, 「天道教의 大革新」

52 『신한민보』 1913. 10. 10, 「천도교를 박멸하려고」

무하게 하고 교리연구와 해당교구의 연락을 담당하게 하였다.⁵³

이 시기 천도교 교세는 신도수 100만에서 300만까지 주장되고 있으나, 대략 100명 정도를 유지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100만이라는 것도, 천도교는 1910년 9월 1일자로 「가정규칙」을 반포하여 가족단위로 입교하고 포교하게 하였기 때문에,⁵⁴ 천도교 가정의 어리아이들까지 가족 모두를 포함한 숫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 자료를 구할 수 있는 1916년 7월말과 3·1운동 직전 해인 1918년 말의 천도교 교세는 다음과 같다.

| 천도교 교세 (1916년 7월말) |

도 별	교구 수	신도 수	도 별	교구 수	신도 수
경 기	23	47507	함 남	16	118149
충 남	11	16219	함 북	7	29358
충 북	9	12238	강 원	18	47173
전 남	23	55925	서간도	2	16250
전 북	18	68905	임강현	1	426
경 남	8	7714	북간도	1	13638
경 북	5	3603	화룡현	1	4682
황 해	18	65113	연길부	1	9648
평 남	20	215451	합 계	203	1073138
평 북	21	341139			

※ 자료 : 白大鎮, 「天道侍天 兩敎의 内部를 解剖하여 公評을 促함(三)」, 『半島時論』, 1918년 1월호, 54쪽.

| 지역별 천도교 교세 (1918년 말) |

도 별	신도 수	비율(%)	도 별	신도 수	비율(%)
경성부	2609	0.2	황해도	65113	6
경기도	47597	4.4	평 남	219551	20.3
충 남	16719	1.5	평 북	358435	33
충 북	12638	1.2	함 남	118149	10.9
전 남	56225	5.2	함 북	57325	5.3
전 북	69905	6.5	강원도	47253	4.4
경 남	7864	0.7	합 계	1083236	100
경 북	3853	0.4			

※ 자료 : 『신한민보』 1919년 5월 22일자.

5) 대종교

대종교(大宗教)는 우리 민족 전래의 천신신앙(神敎, 하느님신앙) 내지 단군신앙을 체계화 근대화한 민족종교이다.⁵⁵ 대종교를 중광(重光)한 1세 교주 홍암(弘巖) 나철(羅喆, 본명 寅永 1863~1916)은 이기(李

53 『천도교약사』, 153~154쪽.

54 김정인, 「1910년대 『天道敎月報』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316쪽.

55 최경주, 「홍암 나철과 하느님 신앙」, 『홍암 나철 대종사 순명 100주기 초모 학술회의 자료집』, 2016.

沂), 오기호(吳基鎬), 홍필주(洪弼周) 등과 함께 1905년 7월(음 6월)부터 일본을 오가며 국권회복운동을 하던 한말 애국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⁵⁶ 이들은 일본에 건너가 ‘동양평화론’에 입각한 민간외교를 하여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고자 했으나,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실망하고 귀국했다. 나인영은 1906년 7월과 12월에도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계 요인들을 만나 동양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독립과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민간외교활동을 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리하여 을사늑약을 주도한 ‘을사오적’을 살해할 결심을 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1907년 초부터 동지들과 함께 오적암살과 친일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자신회(自新會)를 조직하여 3월 25일(음 2월 15일) 오적암살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더욱이 결사대원으로 참여했던 서창보(徐章輔)가 체포되어 거사가 탄로되자, 4월 1일 이기, 오기호, 김동식 등과 함께 자수하였다. 그는 7월 6일 재판에서 내란죄로 10년 유배형을 선고받고, 7월 11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전남 지도(智島)로 유배지가 확정되었으나, 그의 아들이 지병을 이유로 보방(保放)을 신청하여, 유배가지 않고 7월 13일 석방 귀가하였다.⁵⁷

그는 이와 같은 국권회복운동 과정에서 한 도인으로부터 단군신앙에 대한 경전을 전달받게 되었고, 일본에서 신사신도(神社神道)가 유행하는 것을 보고, 일제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민족종교로서 단군교를 중광하였다. 그가 처음으로 단군신앙에 접한 것은 1906년 1월 24일(음 12월 30일)이었다. 그날 밤 서대문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가던 중 백두산에 있는 백봉신형(白峯神兄)의 명을 받고 왔다는 두암(頭岩) 백전(伯全)이라는 노인을 만나 그에게서 단군교의 경전이 된 『삼일신고(三一神誥)』와 『신사기(神事記)』를 받았다.⁵⁸ 그 당시에는 그 책들을 받기만 하고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1908년 11월 일본정부 요인들과 만나 외교담판을 하기 위해 4번째 일본에 건너가 있던 중 12월 27일(음 12월 5일) 그가 유숙하고 있던 도쿄(東京)의 한 여관에 백전도사(伯全道士) 등 32인과 함께 백봉신사(白峯神師)에게 사사받았다는 두일백(杜一白)이라는 노인이 찾아와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 『고본신가집(古本神歌集)』, 『입교절차(入敎節次)』 등을 주면서 단군교 포명을 부탁하였다. 그 노인은 12월 31일(음 12월 9일) 밤에도 여관으로 다시 찾아와 그 자리에 있던 정훈모(鄭薰模)와 함께 나인영에게 영계(靈戒)를 받게 하고 속히 귀국하여 “단군대황조의 교화”를 펴라고 당부하고 떠났다.⁵⁹

그는 1909년 1월 그 노인의 당부대로 귀국하여,⁶⁰ 1909년 2월 5일(음 1월 15일) 동지 오기호(吳基鎬), 강우(姜虞), 최전(崔顥), 유근(柳根), 정훈모(鄭薰模), 이기(李沂), 김인식(金寅植), 김윤식(金允植) 등과 함께 한성 북부 제동의 집에서 ‘단군대황조신위’를 모시고 제천(祭天)의 대례(大禮)를 행하고 단군교포명서를 공포하여 단군교를 중광하였다.⁶¹ 단군교 입교자는 입교의절에 따라 서고문 낭독을 비롯한 입교의식을 치르고, 포명서와 입도증서를 주었으며,⁶² 봉교절차에 따라 단군대황조지신위(檀君大皇祖之神位)를 모시고 대제(大祭), 중제(中祭), 소제(小祭)의 제례에 참여하게 하였다. 대제는 매년 음력 10월 3일 개천절, 중제는 매년 춘하추동 중심되는 달 15일, 소제는 매월 음력 초1일과 15일이었다. 1909년 11월 15일

56 허태근, 「大倭敎 重光 前後 羅喆의 救國活動과 影響」, 『역사와 경계』 100, 부산경남사학회, 2016. 9 참조.

57 위의 논문, 52-55쪽. 그러나 대중교측의 기록에서는 지도로 유배되었다가 1907년 10월(음) “고종황제의 특사로 사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대중교중광60년사』, 9쪽). 그러나 이 때는 이미 고종 퇴위 후라 그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58 『대중교중광60년사』, 7쪽.

59 『대중교중광60년사』, 44쪽.

60 나인영의 4차 방일의 귀국 일자에 대해서는 대중교측의 기록인 『대중교중광60년사』에서는 두백일의 부탁을 받은 바로 다음날(양 1909년 1월 1일)로 기록하고 있으나(위의 책, 44-45쪽), 일제측의 要視察韓國人舉動 보고서에는 1909년 1월 26일 오후 3시 30분 도쿄를 출발하여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韓人歸國ノ件 [羅寅永의 動靜], 乙秘第二八四號, 明治四十二年一月二十八日』, 『要視察韓國人舉動』 3, 국사편찬위원회, 2002).

61 『대중교중광60년사』, 44-45쪽.

62 『大韓每日申報』 1909. 10. 19, 「檀君敎傳布」.

(음 10월 3일)은 중광 후 처음 맞는 개국경절로 단군교 신도 200여명이 원동의 나인영 집에 모여 대제를 드리고 「단군교5대종지포명서」를 발표하고 경축연을 열었다.⁶³

1910년 1월 11일(음 기유 12월 1일)에는 5대종지를⁶⁴ 개정 발표하고, 1월 21일(음 기유 12월 11일) 교질(司敎, 參敎, 贊敎) 교임(施教師, 巡敎員)제를 공포하고, 나인영의 이름을 나철(羅喆)로 개명하고 도사교(都司敎)에 추대되었다.⁶⁵

일제가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병합하자 나철은 1910년 9월 8일(음 8월 5일) 종래의 단군교를 대종교로 개명하고, 남부지사와 북부지사를 설치하여 교단의 조직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9월 13일(음 8월 10일) 4신(四愼)을 포고하여 교단이 항일단체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⁶⁶ 의례의 개혁도 단행하여 9월 24일(음 8월 21일) 종래의 단군신위를 단군영정으로 바꾸고, 10월 17일(음 9월 15일) 대종교 의례를 제정 발표하여, 종전의 중제, 소제를 폐지하고, 일요일을 경일(敬日)로 정하여 일요일마다 경배식(敬拜式)을 거행하게 하였다.⁶⁷ 그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정훈모(鄭薰模), 이유형(李裕馨), 유탁(俞鐸), 서창보 등이 단군교로 분립 이탈하여 11월 11일(음 10월 10일) 대종교 직임을 사임하자 이들을 출교하였다.⁶⁸

나철은 1910년 11월 26일(음 10월 25일) 북한간도 삼도구에 지사를 설치하여 그 지역 포교의 거점을 삼았으며, 1911년 2월 13일(음 1월 15일)에는 『신리대전』을 저술 발행하고, 종령 제1호로 종규(홍범 의진)를 발표하는 등 대종교의 교리정리와 체제정비에 힘썼다.⁶⁹ 1911년 3월 26일에는 변경된 5종지를 「종령」 9호로 발표하고 11월 6일에는 「대종교시교문」을 발표하였다. 1912년 3월에는 경전인 『삼일신고(三一神誥)』를 간행하고, 이듬해 3월에는 시교문(施教文)을 국한문으로 간행 보급하였다. 또한 김교헌(金敎獻)으로 하여금 대종교의 역사적 연원을 밝힌 『신단실기(神壇實記)』를 저술하게 하여 1914년 2월에 간행하였다.

1914년 6월 6일(음 5월 13일) 대종교총본사를 화룡현 청파호 천산 북쪽으로 이전하고, 서울에 남도본사, 청호에 동도본사를 설치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4도교구와 외도교구를 두어 교계를 설정하고 교세확장을 꾀하였다.⁷⁰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종교통제를 목적으로 1915년 8월 포교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자, 대종교에서도 이에 순응하여 12월 21일자로 포교규칙에 준하는 포교 신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했으나, 총독부는 신청서류를 각하하고 포교활동을 금지하였다. 이 신청서는 남아있지 않아 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종교를 “4370년 전”에 창출된 천신교(天神敎)이므로 일본의 신도(神道)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다.⁷¹ 그렇지만 총독부는 대종교를 순수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항일독립운동 단체로

63 『大韓每日申報』 1909. 11. 20, 「開國日慶祝」; 이숙화, 「대종교 설립초기 일제의 탄압과 대응 양상」, 『선도문화』 18,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159쪽

64 「단군교5대종지포명서」에서 5대종지는 1. 존봉조신(敬奉祖神) 2. 감통영성(感通靈誠) 3. 애합족우(愛合族友) 4. 안고기토(安固基土) 5. 근무산업(勤務産業)이었으나, 개정된 종지는 1. 경봉천신(敬奉天神), 2. 성수영성(誠修靈誠), 3. 애합종족(愛合宗族) 4. 정구이복(靜求利福) 5. 근무산업(勤務産業)이었다.

65 『대종교중광60년사』, 80쪽.

66 4신(四愼)은 1. 교는 시국과 무관하니 안신입명함, 2. 신법(新法)에 주의하여 범과가 무케 함, 3. 재산보호는 소유권과 법률을 신뢰함, 4. 혹 원왕(冤枉)을 피(被)하면 성심으로 해결함이었다(『대종교중광60년사』, 84쪽).

67 최경주, 「홍암 나철과 하느님 신앙」, 『홍암 나철 대중사 순명 100주기 초모 학술회의 자료집』, 70-74쪽.

68 『대종교중광60년사』, 82-83쪽.

69 최경주, 「홍암 나철과 하느님 신앙」, 『홍암 나철 대중사 순명 100주기 초모 학술회의 자료집』, 74-76쪽

70 『대종교중광60년사』, 87-88쪽. 각 교구의 포교 담임 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도교구: 동만일대와 노령연해주 지방, 서도교구: 남만으로 부터 중국 산해관까지, 남도교구: 국내 전역, 북도교구: 북만주 일대, 외도교구: 중국, 일본, 구미지역.

71 허태근, 「大宗教 重光 前後 羅喆의 救國活動과 影響」, 『역사와 경계』 100, 부산경남사학회, 2016. 9. 58쪽.

보고 불법단체로 취급하여 국내 포교를 담임하던 남도본사를 해산시켰다.⁷²

이와 같이 대종교의 국내 포교가 어렵게 되자 나철은 김교헌을 제2세 도사교(都司敎)로 임명하고, 단군 사당이 있어 전통적으로 제천의식을 행해오던 구월산 삼성사(三聖祠)에 들어가 1916년 9월 12일(음 8월 15일) 제천의례인 선의식을 거행한 다음 거처로 돌아와 『순명삼조(殉命三條)』, 전수도통문(傳授道統文)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서를 남기고 폐기법으로 목숨을 끊었다.⁷³ 나철의 유언에 따라 김교헌은 1916년 9월 대종교 도사교의 직을 승임하고, 1917년 봄 대종교총본사가 있는 화룡현으로 이주하여 취임하였다.

1910년대 국내에서 대종교는 처음부터 총독부의 감시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포교에 많은 지장을 받았고, 교세가 약했다. 1910년 6월경 대종교 신도수는 서울이 2,748명, 지방이 18,791명으로 총 21,539명이었다.⁷⁴ 1915년 12월 대종교에서 제출한 포교 신청서를 총독부에서 거부한 후 대종교를 불법단체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포교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1919년 무렵 신도수는 대략 30만명에 이르렀다고 하나,⁷⁵ 신도들은 대부분 국외인 간도 노령 등지에 분포되어 있었고, 국내에는 3만 여명에 불과했다.⁷⁶

4. 맺음말

이상에서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을 살펴보고, 이어서 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대종교계의 동향과 교세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이 글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3·1운동을 왜 종교계에서 주도했는지, 독립선언서에는 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대표만 서명했는지, 유교계의 참여가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왜 선교사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제 이하에서 위에서 논의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종교 차별통제정책이었다.
2. 1910년대 기독교계는 일제의 정책이 통감부시대 회유이용정책에서 억압통제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제약과 탄압을 받았으나, 전반적으로 내적 조직을 강화하였다.
3. 1910년대 불교계는 초기에는 원종과 임제종이 대립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공포와 압력으로 선교양종으로 통합되고, 30본산체제로 정비되어, 대체로 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였다.
4. 1910년대 유교계는 총독부의 강력한 회유 통제정책에 대체로 순응하였고, 불만을 품고 있던 유림 유생들도 소수의 회유 거부자, 순절자, 해외 망명자를 제외하고는 3·1운동 발발 이전까지는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더욱이 유교는 양반계층의 지식인이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 대중이 참여하기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⁷² 『대종교증광60년사』, 97쪽; 조선총독부경무국 도서과, 『天道敎概論』, 1930, 209쪽.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조사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들은 “또 데라우치(寺內)는 「단군교」의 급진당을 격파해 버렸다. 그 교도는 일본제국주의 산하(傘下)에서 발전하였지만, 그것은 일본헌병에 의하여 파괴되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⁷³ 박광수, 「홍암 나철의 대종교 증광과 종교사적 의의」, 『홍암 나철 대종사 순명 100주기 초모 학술회의 자료집』, 2016, 25-26쪽.; 그가 남긴 순명3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죄가 무겁고 덕이 없어서 능히 한배님의 큰 도를 빛내지 못하며 능히 한 거래의 망(網)에 뒹굴지 못하고 도리어 오늘의 업신여김을 받는지라. 이에 한 올의 목숨을 끊음은 대종교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2. 내가 대종교를 받든지 여덟 해에 빌고 원하는 대로 한열의 사랑과 도움을 여러번 입어서 장차 못 사람을 구원할 듯하더니 마침내 정성이 적어서 가혹하신 은혜를 만에 하나도 감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올의 목숨을 끊음은 한배감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3. 내가 이제 온 천하에 많은 동포가 가달길에서 괴로움에 떨어지는 이들의 죄를 대신 받을지라. 이에 한 올의 목숨을 끊음은 천하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대종교경전』)

⁷⁴ 『대종교증광60년사』, 82쪽.

⁷⁵ 박은식(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137쪽.

⁷⁶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會, 1922, 358-359쪽.

5. 1910년대 천도교는 종교단체로 공인받지 못하여 총독부의 극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100만 여명에 이르는 신도를 기반으로 대교구제를 구축하여 튼튼한 교단을 형성하였다.

6. 1910년대 대종교는 교단 체제 정비와 교리 정립에 힘을 기울였으나, 처음부터 항일독립운동 단체로 지목을 받아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여 국내 포교 자체가 어렵게 되자 제1세 교주 나철이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기까지 하였다. 1917년 제2세 교주 김교헌은 대종교총본사가 있던 만주 화룡현으로 이주하여 도사 교직을 수행하였다. 국내 신도는 3만여명에 불과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7(한일관계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2005.

강위조, 『일본 통치하 한국의 종교와 정치』, 대한기독교서회, 1977.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수요역사연구회 편,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 1910년대』, 신서원, 2002.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박은식(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천도교중앙총부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8.

김승태, 『식민권력과 종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제임스 헌틀리 그레이슨(강돈구 옮김), 『한국종교사』, 민족사, 1995.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유교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김정인, 「1910년대 『天道敎月報』를 통해서 본 민중의 삶」, 『한국문화』 30,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12.

서동일, 「1919년 파리장서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숙화, 「대종교 설립초기 일제의 탄압과 대응 양상」, 『선도문화』 18,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학연구원, 2015. 2.

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朝鮮印刷株式會社, 1921.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會, 1922.

姜渭祚, 『日本統治下 朝鮮の宗教と政治』, 聖文舍, 1976.

白大鎮, 「天道侍天 兩敎의 内部를 解剖하야 公評을 促함(三)」, 『半島時論』, 1918년 1월호.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에 대한 논찬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 글은 3·1운동에서 종교계가 주동 역할을 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밝히기 위해 무단통치하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을 규명하였다. 총독부의 종교정책에 대해서는 〈사찰령〉(1911), 〈경학원규정〉(1911), 〈포교규칙〉(1915), 〈경찰범처벌규칙〉(1912), 〈신사사원규칙〉(1915) 등과 같은 종교 관련 법령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검토한 반면, 종교계의 동향은 다섯 종교(기독교, 불교, 유교, 천도교, 대종교)의 주요 활동(사건)과 교세를 개관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결론으로 총독부의 종교정책을 국가신도(신사신도) > 공인종교(기독교, 불교, 교파신도) > 유사종교(천도교, 대종교)의 위계 구조로 특징짓고 이를 ‘종교차별 통제정책’이라고 명명한다.

발표자는 이 글이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데 그쳤다고 ‘고백’하면서 이 작업을 통해 “3·1운동을 왜 종교계에서 주도했는지, 독립선언서에는 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대표만 서명했는지, 유교계의 참여가 왜 늦어졌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왜 선교사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논평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이 이 글을 통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좀 더 친절한 답변을 본문이나 결론 부분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오른 몇 가지 의문 사항과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국헌법〉 28조의 의미

주지하다시피 〈제국헌법〉(1889) 28조는 “일본 臣民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황국신민의 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한에서 敎育의 자유를 지닌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이 조항은 일제의 종교정책의 법적 토대가 되는 규정이므로 〈포교규칙〉을 비롯한 종교 관련 법령들을 서술하기 전에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황국신민의 의무’라고 하는 제한 규정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국민(신민)에게 기본권의 하나로서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대한제국)의 상황

(불교승려의 도성출입 금지, 천주교 탄압, 동학 탄압)과는 매우 다른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특정 종교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처형)되기도 했지만 식민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해졌다. 요컨대 종교선택의 자유는 최소한 보장된 것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가 되는 ‘종교차별’에 의한 종교통제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거시적 맥락(‘종교자유’의 법적 보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국과 식민지 사이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일본에서의 종교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일본에서는 제정에 실패한 종교관련 법안을 식민지에서는 제정하여 더욱 가혹하게 적용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제정하려고 했던 종교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입법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초안의 내용 중 어떠한 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활용되었는지 소개할 필요가 있다.

3분법인가 4분법인가?

이 글은 무단통치하 종교정책의 구조를 국가신도(천황제 이데올로기)/종교(공인종교)/유사종교의 3분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신(superstition)’이라는 범주를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문에서 〈경찰범 처벌규칙〉과 관련하여 제시된 여러 사례들(“함부로 길흉화복을 말하고 또는 기도, 符呪 등을 하고 혹은 守札類를 수여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행위를 하는 자”, “병자에 대하여 禁厭, 기도, 부주 또는 정신료법 등을 실시하고 또는 神符, 神水 등을 주어 치료를 방해하는 자”)은 사실 메이지정부에 의해 ‘미신’으로 간주된 것들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타파(퇴치)의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민간신앙에 속하는 많은 것이 ‘미신’으로 간주되면서 유사종교(신(흥)종교)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층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미신과 유사종교를 범주적으로 구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차별의 구체적 현실은?

이 글은 총독부 종교정책의 핵심을 종교차별의 메커니즘에서 찾고 공인종교와 유사종교 사이의 차별을 특히 중시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차별이 행해진 것인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천도교(유사종교)가 기독교(공인종교)보다 불이익을 당한 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양자가 언론이나 출판, 교육 영역으로 진출과정에서 어떤 차별이 행해졌는가?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들과 비교할 때 천도교인은 사회생활에서 어떤 차별과 불이익을 당했는가?

불교와 사찰령

불교에 대한 종교통제는 〈사찰령〉(1911)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는데 대한제국 시대에 제정된 바 있는 〈사찰령〉(1902)과 비교하면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독부에 의한 사찰령 제정 당시 한국 불교계는 사찰령을 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지? 또 의병이나 폭력배들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사찰 소속으로 관리권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논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종교통계의 문제

이 글에서는 천도교의 신자수를 100만으로 제시하는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데 『朝鮮の類似宗教』(1935)에서는 20만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불교 신자 통계 60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만일 이 통계가 본말사에 등록된 신도수에 근거한 것이라면 기독교 및 천도교의 신자 통계와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나 천도교와 구별되는 불교의 종교 정체성 표현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f: 2015년 센서스 통계: 개신교 약 1천만, 불교 약 800만, 천도교 약 6만)

書

3·1만세운동과 천도교

1. 머리말
2. 민족자결주의의 파악과 독립선언운동의 결정
3. 민족대표의 선정과 독립선언식의 추진
4.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지방 3·1만세운동의 전개
5. 맺음말 : 민족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발표 _ 조규태 (한성대학교 교수)

논찬 _ 성주현 (청암대학교 교수)

3·1만세운동과 천도교

조규태

한성대학교 교수

1. 머리말

3·1만세운동은 거족적 민족운동이었다. 남녀노소와 계층과 계열을 불문하고, 우리 민족은 혼연일체로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조선시대 말과 대한제국기, 동학농민운동·의병운동·애국계몽운동 등이 계열별·세력별로 따로 전개되었던 데 반하여, 1919년의 3·1만세운동은 상이한 운동계열 출신 지도자의 합심협력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 신지식인뿐만 아니라 구지식인, 지배층뿐만 아니라 피지배층 등 전 계층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3·1만세운동의 착수와 전개에 있어서, 천도교·기독교·불교의 역할이 컸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민족대표의 구성, 독립선언서의 작성과 배포, 독립선언식의 개최, 3·1만세운동의 확산 등에 있어서, 천도교·기독교·불교는 지대한 역할을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천도교는 3·1만세운동의 준비와 전개와 확산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민족대표의 선정과 독립선언서의 제작, 거사자금의 제공, 독립선언식의 거행이 천도교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3·1만세운동의 지방 확산도 천도교의 지방 조직과 그 교인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천도교가 3·1만세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도교의 3·1만세운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의 축적이 있었다.¹ 지금까지의 연구로 천도교의 3·1만세운동에 대한

1 박賢緒, 「三·一運動과 天道敎系」,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東亞日報社, 1969). 李炫熙, 「三·一運動裁判記錄을 통해서 본 天道敎代表들의 態度分析」, 『韓國思想』 12호, 1974. 황선희, 「天道敎의 人乃天思想과 三·一運動研究」, 『한국사학논총』 하, 1992. 김소진, 「3·1독립선언서 33인에 대한 인적 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 1993. 고정휴, 「3·1운동과 천도교단의 임시정부 수립 구상」, 『한국사학보』 3·4, 고려사학회, 1998. 김정인, 「천도교의 3·1운동의 전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999. 이현희, 「3·1혁명, 그 진실을 밝힌다」(신인간사, 1999). 성주현,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수원문화사연구』 4, 2001. 이동근, 「수원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우정·장안면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7, 2003. 조규태, 「전남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동학연구』 17, 2004. 조규태, 「천도교와 3·1운동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 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조규태, 「만주지역 천도교세의 신장과 천도교인의 민족운동(1905~1922)」,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조규태, 「황해도 수안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숭실사학』 23, 2009. 이동초, 「천도교와 삼일운동」, 『천도교 민족운동의 새로운 이해』(모시는사람들, 2010). 성주현, 「전북지역 동학과 천도교의 민족운동」, 『역사와 교육』 19, 2014. 정을경, 「충남지역 천도교인의 3·1만세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9, 2006. 이 외에 학술논문은 아니지만 잡지에 소개된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박창건, 「3·1운동과 지방교구의 활동」, 『신인간』 458호,

대체적인 사실은 밝혀졌다. 즉, 천도교의 3·1운동 준비과정, 민족대표의 선정과 독립선언서의 제작, 독립선언식의 거행, 독립만세운동의 지방 확산, 독립 지도자의 민족적 사상, 지방의 독립만세운동 등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2년 뒤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란 점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3·1만세운동 시 천도교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천도교의 3·1만세운동에 있어서의 특징을 도출하고, 성격과 의의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3·1만세운동과 천도교」라는 제목 하에 주제별로 천도교가 행한 역할을 살펴면서 드러나는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민족자결주의의 인지와 독립만세운동의 결정’이란 소재 하에 천도교가 3·1만세운동을 착수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다음으로 ‘민족대표의 선정과 독립선언식의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천도교가 기독교 및 불교와 제휴하는 과정, 민족대표의 선정, 독립선언서의 제작, 독립선언 관련 문서의 작성, 독립선언식의 개최 등에서 행한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을 살펴보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천도교의 민족대표의 정치·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한다. 이어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지방 3·1만세운동의 전개’라는 제목 하에 독립선언서의 지방 배포 과정과 지방과 해외에서의 3·1만세운동 및 그 특징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는 천도교의 3·1만세운동에서 드러난 민족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소견을 피력해보려고 한다.

2. 민족자결주의의 파악과 독립선언운동의 결정

천도교와 그의 전신인 동학은 개벽사상(開闢思想)에 입각하여 이상적 신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변혁운동을 추진하였다. 1894년 동학은 평등하고 민중적이며 전통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자주적인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10년 뒤인 1904년, 손병희가 이끄는 동학교단은 돌연 노선을 변경하여 서구의 문명사회를 지향하며 갑진개화운동(1904)을 벌였다. 그리고 1905년 동학에서 천도교로 교명을 바꾼 후, 천도교는 서구의 사상과 가치가 반영된 근대적인 교회를 만들고, 이에 따라 교제를 변경하고, 신교리서를 간행·보급하고, 교인을 새롭게 교육시켜 근대적인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였다.² 그러면서 동학과 천도교는 일진회·대한협회 등의 정치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정치적·사회적 변혁을 모색하였다.³ 요컨대 사회변혁의 이념을 가진 천도교는 때로는 급진적·무력적·혁명적으로 때로는 점진적·문화적·개량적으로 그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1910년 경술국치 후 소위 무단통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천도교는 독립의 기회가 오기를 염원하며 민족운동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힘을 쏟았다. 주된 방법은 교육과 언론계몽활동이었다. 먼저 천도교는 1910년대 초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에 700여개의 교리강습소를 설립하여 젊은 교인들에게 진화론과 문명론에 근거한 서구의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을 가르치고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⁴ 다음으로 보성중학교

1988. 3. 조규태, 「만주에서의 천도교인의 3·1운동」, 『신인간』 583호, 1999. 3. 최홍규, 「경기지역과 천도교 3·1운동」, 『신인간』 584호, 1999. 4. 이정은, 「경상도지방 천도교인의 3·1운동」, 『신인간』 585호, 1999. 5. 김정인, 「전라도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신인간』 586호, 1999. 6. 표영삼, 「평안북도의 3·1운동」, 『신인간』 587호, 1999. 7. 조규태, 「평안남도의 3·1운동」, 『신인간』 588호, 1999. 8. 박지태, 「황해도의 3·1운동」, 『신인간』 589호, 1999. 9. 성주현, 「강원도지역 천도교의 3·1운동」, 『신인간』 590호, 1999. 10. 정혜경, 「충청도지역 천도교의 3·1운동」, 『신인간』 591호, 1999. 11. 김인덕, 「함경도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신인간』 592호, 1999. 12.

2 최기영,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20, 1994, 114-125쪽.

3 김정인, 「천도교의 3·1운동의 전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999, 106-108쪽.

4 조규태, 「천도교의 강연·강습활동과 학교교육운동」,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180-183쪽.

(보성고등보통학교), 동덕여학교 등의 중등교육기관을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⁵ 젊은 교인들에게 신지식을 보급하였다. 그리고 『천도교회월보』의 발간을 통해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신지식을 전파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천도교가 독립을 획득하기 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기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찾아왔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하여 파괴적·학살적인 기존의 문명(文明) 대신에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개조사상(改造思想)이 유행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8년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서류 중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였다.⁶ 이에 패전국 식민지의 독립문제가 대두되자, 천도교의 지도자들은 국제정세를 깊이 관찰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 문제에 고민하였다.⁷

천도교의 지도자 중, 민족의 독립 문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인물은 천도교 중앙총부의 도사 권동진(權東鎭)이었다. 권동진은 1918년 11월 『大阪毎日新聞』을 통하여 미국 윌슨 대통령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의제 14개조 중에서 민족자결의 조항을 보고 조선도 이 범주에 해당되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네덜란드·폴란드 등 13개국의 국민이 미국의 책임자인 윌슨이 제창한 자결문제로 연맹회의를 개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또 그는 이 결의문이 미국정부에 접수되어 상원 외교조사부에 입수되었다는 것을 일본의 신문에서 보았다. 이후 그는 조선의 민족자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⁸

이 무렵 도사인 화세창(吳世昌)도 일본 신문을 읽고 윌슨이 민족자결을 제창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민족자결의 원칙은 전란에 관계된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병합 또는 정복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민족자결에 따라 독립을 청원한다고 해도 조선이 독립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시세의 풍조를 생각할 때 조선만 가만히 있기보다 실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조선인도 민족자결의 의사가 있음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⁹

보성고등보통학교 교장인 최린(崔麟)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최린은 파리강화회의에서 세계평화를 제창함에 즈음하여 조선민족의 생존권을 확장하고, 일본정부에게 대조선정책을 반성하도록 하며 조선민중에 대한 열국의 동정을 일으키려고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도 민족자결 즉 조선독립을 기도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¹⁰

이처럼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립운동을 하려는 데 세 명의 의사가 일치되었으므로, 권동진이 1918년 12월 초 오세창과 최린을 만나 조선의 민족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하자 즉석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사람은 민간의 사정을 탐지해보기로 결정하였다.¹¹

그런데 독립운동 전개와 민간사정 조사의 문제는 단지 이 세 사람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을까? 사안의 중대함으로 미루어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다. 분명히 이 문제는 천도교의 교주인 손병희와 협의 하에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918년 12월 초순과 중순 민간의 사정을 알아본 권동진·오세창·최린은 여러 가지 풍문이 떠돌고 민

5 조규태, 「천도교의 강연·강습활동과 학교교육운동」,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190-191쪽.

6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의 대두」,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국학자료원, 2006), 35-36쪽.

7 이 장의 글은 조규태, 「천도교와 3·1운동 -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 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17-22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렇지만 권동진·오세창·최린의 3·1만세운동의 착수 배경을 보완하고, 3·1만세운동의 운동의 방향의 변화를 수정하였다.

8 「권동진선생 취조서」, 이병헌, 『삼일운동비사』(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187쪽.

9 「오세창선생 취조서」, 이병헌, 『삼일운동비사』(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514-515쪽.

10 「최린선생 취조서」, 이병헌, 『삼일운동비사』(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579쪽.

11 「권동진선생 취조서」, 이병헌, 『삼일운동비사』(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187쪽.

심이 동요함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12월 말 조선의 민족자결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일본 정부에 조선의 자치(自治), 즉 행정의 자율을 요청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919년 봄 도쿄로 사람을 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¹²

그런데 1919년 1월 초 노령과 상해 등 국외에 있는 한국인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자를 보내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미국의 대통령이 조선의 독립을 제창하고 있다는 소식이 권동진·오세창·최린에게 알려졌다. 권동진·오세창·최린은 국외의 동지와 동일 보조를 취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작정하고 동지를 모집하기로 결정하였다.¹³

1월 상순 권동진과 오세창과 최린은 동대문 밖 상춘원(常春園)으로 누차 손병희를 방문하여 국내의 여론과 재외동포의 동향을 보고하였다. 그 때 손병희는 “장차 우리 면전에 전개될 시국은 참으로 중대하다. 우리들이 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무위무능(無爲無能)하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이미 정한 바 있으니 제군은 심분 분발하여 대사를 그릇됨이 없이하라”고 하였다 한다. 권동진·오세창·최린이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해 손병희에게 건의하였고, 손병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¹⁴

이 무렵 천도교의 중앙총부는 지방 교구에 교령을 내려 1919년 1월 5일부터 49일간 특별기도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49일 기도회는 예년에 없던 특별한 행사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천도교 중앙총부가 1919년 1월 초 지방 교인들에게 49일 기도회를 개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의 교인들을 단속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1월 10일에서 20일 경 손병희는 대한제국의 원로인 박영효·윤치호(尹致昊)를 찾아 조선의 독립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는 박영효(朴永孝)를 방문하여 “한국의 독립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박영효·윤치호(尹致昊)·손병희의 명의로 된 청원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그는 박영효가 조선총독부가 허락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두 번, 세 번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박영효는 일본 정부에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박영효가 부정적 태도를 보인 때문인지, 손병희는 윤치호를 방문하지 않은 듯하다. 요컨대 1919년 1월 중순 손병희는 박영효 및 윤치호와 힘을 합하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다루는 국민대회의 개최를 조선총독부에 청원하려고 하였으나 두 사람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¹⁵

권동진과 오세창과 최린은 1919년 1월 20일 상춘원으로 손병희를 찾아가 민족자결에 의한 독립 문제를 건의하였다. 그러자 손병희는 일본의 조선 지배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동양평화의 조성에 조선의 독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더욱이 이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일본 정부에 권고하여 독립자결 운동을 했으면 어떠하겠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천도교는 1918년 12월 경 행정 자치를 얻기 위한 자치운동을 하려다가 1919년 1월 중순 일본 정부에 독립을 청원하는 방식의 운동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¹⁶

그런데 1919년 1월 26일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을 추진하던 송계백(宋繼白)이 국내에 들어와 정로식

12 「권동진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990, 41-42쪽. 「오세창신문조서」, 앞의 책, 58쪽. 권동진 신문조서에는 自決, 오세창 신문조서에는 自治로 나온다. 그런데 권동진의 신문조서에 1919년 1월 해외의 독립운동 상황을 보고 자결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전환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권동진의 自決이란 용어는 自治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조규태, 「천도교와 3·1운동 -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 독립만세운동의 특성 -」,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18쪽.

13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18쪽.

14 崔麟, 「自敘傳」, 如菴先生文集編纂委員會, 『如菴文集』 上, 1971년, 182쪽.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19쪽.

15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19쪽.

16 「권동진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41·42쪽 ; 「손병희신문조서」, 위의 책, 64쪽.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19쪽.

등을 만났다. 그는 정로식에게 일본 정부에 조선의 독립을 건의하고,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만세운동의 전개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¹⁷ 이 무렵인 1월 26일 경 최린은 현상윤·송진우와 함께 송계백을 만났다.¹⁸ 이 때 최린은 송계백으로부터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만세운동의 전개, 일본 정부에 대한 독립의 청원 등 일본에서 추진되던 2·8독립선언의 독립운동 방략을 청취하였음에 틀림없다.

1919년 1월 28일부터 수일 간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은 손병희의 집에서 만나 3·1만세운동의 구체적인 방략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배포함으로써 시위운동을 일으켜 조선의 독립 열망을 알리고, 일본 정부와 귀족원·중의원, 조선총독부, 파리강화회의의 열국 위원들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고,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청원서를 보내는 방식의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하였다.¹⁹

천도교의 손병희와 권동진·오세창·최린은 1919년 1월 하순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은 대중화 하여야 할 것’, ‘독립운동은 일원화 하여야 할 것’,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할 것’의 세 가지 원칙을 결정하였다.²⁰ 이러한 원칙을 정한 것은 민족자결주의라는 세계적 공론으로서 일어나는 이 운동이 당당한 독립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3. 민족대표의 선정과 독립선언식의 추진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만세운동, 건의서 및 청원서의 제출과 같은 3·1만세운동의 구체적인 방략이 결정된 후, 천도교는 여러 세력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1919년 1월 28일 손병희는 이 일의 추진을 일본 유학생인 최린에게 맡겼다.²¹

1919년 2월 초 최린은 자신의 집과 송진우의 집 등에서 중앙고등보통학교장 송진우(宋鎭禹), 같은 학교 교사 현상윤(玄相允), 역사연구자 최남선(崔南善)과 독립선언서 발표 시의 대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 때 이들은 천도교에서는 손병희, 구 시대의 인물로는 윤치호(尹致昊), 김윤식(金允植), 한규설(韓圭晳)을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였다.²²

1919년 2월 초, 최린은 송진우와 현상윤과 최남선과 협의하여 윤용구(尹用求), 김윤식(金允植), 한규설(韓圭晳)을 독립선언서의 대표로 내정하고, 이에 대한 교섭은 최남선이 김윤식과 윤용구를, 한규설이 최린을 맡기로 하였다.²³ 1919년 2월 초순 최린은 한규설을 방문하였으나 참여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 또 최남선도 김윤식과 윤용구에게 접촉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고, 송진우도 박영효를 방문하였으나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²⁴

17 『동아일보』 1920. 9.23, 3면 1단, 〈정로식〉,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 1977, 894쪽.

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 1977, 894쪽.

19 「고등법원 판결문(1920. 3.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16쪽 ; 「최린의 경성지방법원 제1회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990, 21쪽.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20쪽.

20 崔麟, 「自叙傳」, 如菴先生文集編纂委員會, 『如菴文集』 上, 1971년, 182-183쪽.

21 「최린선생 취조서」, 이병헌, 『삼일운동비사』(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580, 598쪽. 날자가 1월 27일과 28일로 상이하나, 1월 28일이 다수설이므로 28일로 판단함. 이 장의 글은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20-26쪽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그런데 천도교와 기독교의 제휴 과정과 관련된 서술은 판결문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하였다.

22 「최린선생 취조서」, 이병헌, 『삼일운동비사』(시사시보사출판국, 1959), 598쪽. 「최린의 경성지방법원 제2회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990, 133-134쪽. 최린이 송진우 등과 만난 시점은 기록에 따라 2월 초와 1월 말로 상이하다. 1월 28일 손병희의 집에서 구체적인 방략이 정해진 후 추진되었으므로 2월 초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최남선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658-659쪽. 「최린의 경성지방법원 제1회 신문조서」,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7쪽.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34쪽.

24 「최린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588쪽. 「경성지방법원의 제1회 최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35-137쪽.

윤치호·김윤식·한규설 등의 참여가 어려워지자, 최남선은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송진우도 이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현상윤은 침묵함으로써 소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최린은 기독교와의 제휴를 위해 최남선이 이승훈(李昇薰)에게 연락을 취해줄도록 부탁하였다. 그러자 최남선은 자신이 이승훈을 서울로 부르기로 약속하였다.²⁵

2월 7일 경 최린은 최남선과 현상윤을 통하여 수하동(水下洞) 정노식(鄭魯湜)의 집에 머무르던 김도태(金道泰)로 하여금 정주의 이승훈에게 연락하여 상경하게끔 하였다. 김도태는 그 다음날 아침 서울을 출발하여 9일 정주에 도착하였으나 오산학교 교사인 박현환(朴賢煥)을 만나 이승훈이 사경회로 선천(宣川)에 갔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김도태는 2월 10일 경 박현환을 선천에 보내 김용률(金龍律)의 집에 머무르던 이승훈에게 연락하였다. 박현환의 연락을 받은 이승훈은 2월 11일 경성에 올라왔다. 그러자 최린은 송진우로 하여금 이승훈을 만나 천도교와 기독교가 합동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문제를 전달하였다.²⁶

당일 경성을 출발하여 2월 12일 평안도 선천에 도착한 이승훈이 양전백·이명룡·유여대·김병조의 찬동을 얻고, 2월 14일 평양에서 길선주 신흥식 등의 동의를 얻은 후 2월 17일 귀경하였다. 그러자 최린은 2월 21일 최남선의 알선으로 이승훈과 만나 천도교와 기독교가 힘을 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때 이승훈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자 그는 제공을 약속하였다. 2월 22일 이승훈과 함태영이 자신의 방으로 오자, 최린은 이승훈에게 5,000원을 제공하였다.²⁷ 당시 최린은 기독교측이 주장하는 독립청원서의 제출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독립선언을 하지 않을 바에는 합동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²⁸

천도교의 입장을 들은 기독교의 이승훈과 함태영이 당일 함태영의 집에서 오기선·박희도·안세환과 협의하여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한 후 2월 24일 최린의 방을 찾았다. 그러자 최린은 천도교와 기독교가 힘을 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당일 독립선언서를 군중에 배부하여 경성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지방에 독립선언서를 지방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의와 기타 서류의 기초와 인쇄는 천도교, 독립선언서의 배부·분송은 천도교와 기독교, 일본 정부와 국회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천도교,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의 열국 대표에게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기독교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천도교와 기독교 각기 민족대표 십수명을 선정하여 연명하도록 하고, 참여를 요청하는 불교의 민족대표도 연명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²⁹

불교와의 합동은 1월 27·8일 경, 최린이 일본 유학 당시 알게 된 한용운을 방문하여 독립운동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추진되었다. 최린은 한용운과 협의하여 먼저 동지를 얻는데 힘을 쏟고, 신도가 많은 천도교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자고 합의하였다.³⁰ 이후 2월 20일 경 최린에게서 독립선언서의 발표, 독립청원서, 독립건의서의 송부 등에 의한 관한 자세한 계획을 듣고, 한용운이 가맹을 결정함으로써 불교의 동참이 이루어졌다.³¹

25 「최남선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659쪽. 「최린의 경성지방법원 제1회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34-135쪽. 이승훈에 연락을 취하도록 제안한 사람이 두 기록에 다르게 나온다. 최남선의 취조서에는 최린이 시켰다고 하고, 최린의 취조서에는 최남선이 제안하였다고 답하였다. 최린이 최남선보다 11살이 위이므로 최린이 주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972, 17-18쪽.

27 이 무렵 천도교는 성미금이 월 5,600원, 연 10만원에 달하였고, 특별 성미금도 7~8만원에 달하여 당시 현금을 13~14만원 갖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풍부하였다고 한다. 이동초, 「천도교의 3·1운동」, 『천도교 민족운동의 새로운 이해』(모시는사람들, 2010), 135쪽.

2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972, 18-19쪽.

2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972, 19쪽.

30 「한용운선생 신문조서」, 李炳憲, 『三一運動秘史』, 601-602쪽.

31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22쪽.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의 배분은 2월 20일 권동진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권동진·오세창·최린은 자신의 집에서 기독교 대표인 이승훈을 만나 민족대표의 구성을 천도교 15인, 기독교 15인, 불교 2인의 총 32인으로 나누기로 결정하였다.³²

천도교의 민족대표 선정은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의 협의 하에 권동진과 오세창이 주관하였다. 다만 권병덕만큼은 손병희가 2월 20일 송인동 천도교회에서 직접 권유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 외에 양한묵·나용환·나인협·임례환·홍병기·박준승·이종훈·이종일·홍기조·김완규는 권동진과 오세창이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응낙을 획득하였다. 이리하여, 3·1만세운동을 추진한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외에 권병덕·김완규·나용환·나인협·박준승·양한묵·이종일·임례환·홍기조·홍병기 등 15명의 민족대표가 선정되었다.³³

다음의 <표 1>을 통해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첫째 개화와 관료나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손병희를 만나거나 알게 된 후 동학·천도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권동진과 오세창은 1904년 일본 도쿄에서 손병희를 통해 입교하였고, 양한묵도 1902년 나라에서 손병희를 통해 입교하였다. 최린도 1904~06년 일본에서 손병희를 알게 된 후 귀국 후인 1910년 입교하였다. 이들은 손병희를 도와 갑진개화운동을 추진하였고, 천도교의 근대화운동을 이끌어간 인물들이었다. 둘째 1880~90년대에 동학에 입교하여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이종훈·홍병기·권병덕·박준승 같은 천도교의 장로가 있었다. 셋째 나용환·나인협·임례환·홍기조와 같은 평안도 출신의 도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평안도지방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손병희가 동학을 전파한 지역으로 천도교인의 수가 가장 많던 지역이었다.

〈표 1〉 천도교의 3·1운동 민족대표

이름	나이	출신지/주소	교회 지위	교회 내 경력	사회 경력
손병희	59	충북 청주 서울 가회동	3세 교주	1880 동학 입교 동학농민운동 주도 갑진개화운동 주도	1901~1906년 일본 망명
권동진	59	서울 정동 서울 돈의동	道師	1904년경 동경에서 입교 典制觀長 역임	1881년 육군 哨官 부임, 1895년 을미사변 후 일본 망명
오세창	56	서울 수표교 서울 돈의동		1904년 동경에서 입교	1894년 내무부 주사 1906년 중추원 부참의
최 린	42	함남 함흥 함남 함흥	보성고등 보통학교 교장	동경에서 손병희 만남 1910년 서울에서 입교	1904년 동경 府立中 특별과 입학 1909년 메이지대학 졸업
권병덕	52	충북 청주 서울 재동	道師	1884년 동학 입교 동학농민운동 참가	
김완규	43	서울 연지동	信徒	1910년대 초 동학 입교	한성부 주사
나용환	56	평남 중화 평남 중화	道師	1885년 동학 입교 갑진개화운동 주도	양반
나인협	48	평남 성천 평남 평양	道師	1894년 동학 입교 갑진개화운동 주도	

32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22~23쪽.

33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23쪽.

34 조규태, 「천도교와 3·1운동 -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23~25쪽.

이름	나이	출신지/주소	교회 지위	교회 내 경력	사회 경력
박준승	54	전북 임실 전북 임실	道師	1890년 동학 입교	
양한묵	58	전남 해남 서울 재동	道師	1902년 나라에서 입교 갑진개화운동 지도	1919년 3·1운동 직후 옥사
이종일	62	경기 포천 서울 경운동	天道敎月 報課 課長	1906년 천도교 입교	제국신문사 사장 보성사 사장, 양반
이종훈	65	경기 광주 서울 장동	長老	1881년 동학 입교 동학농민운동 참가 (손병희 휘하 활동) 갑진개화운동 주도	
임례환	55	평남 중화 평남 평양	道師	1899년 동학 입교 갑진개화운동 주도	
홍기조	55	평남 용강 서울 안국동	道師	1894년 동학 입교 갑진개화운동 주도	
홍병기	51	경기 여주 서울 소격동	長老	1892년 입교 동학농민운동 참가 (손병희 휘하)	

천도교에서는 독립선언서의 기초 및 인쇄, 그리고 건의서와 청원서의 작성에 대한 책임을 맡았는데 이 일은 최린이 주관하였다. 최린은 1919년 1월 말 명문장가인 최남선에게 부탁하여 독립선언서 및 건의서와 청원서의 기초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최린은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과 협의하여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정한 후 자주 최남선에게 이야기하여 독립선언서의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최남선은 2월 10일 경에 독립선언서와 미국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의 참석 열국 대표에게 보내는 건의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최린에게 가져왔다. 최린은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에게 보내어 검토하게 하고, 2월 중순 함태영(咸台永)에게 전달하여 기독교 측에서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 일본정부와 조선총독에게 보내는 청원서는 2월 20일 최남선이 최린에게 가져왔는데, 최린은 그것을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에게 보이고, 함태영에게 주어 기독교 측의 검토를 받게 하였다.³⁵

천도교와 기독교의 민족대표의 검토를 거친 독립선언서의 초안은 2월 26일 최린으로부터 최남선에게 건네졌다. 최남선은 신문관(新文館)에서 독립선언서를 밤새 조판하여 최린에게 보냈고, 이종일은 김홍규(金弘奎)에게 지시하여 이를 최린 방에서 가져오게 하여 인쇄하게 하였다. 그러자 김홍규는 다시 인쇄 직공 신영구(申永求) 인쇄를 명하여 신영구가 27일 밤 11시까지 독립선언서 2만 1천장을 인쇄하였다.³⁶

그런데 독립선언서의 인쇄는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고등계형사인 신승희가 보성사를 지나다가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눈치 채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이종일이 손병희에게 위급함을 고하였고, 손병희가 5,000원이라는 거금을 신승희에게 주어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한다.³⁷

인쇄한 독립선언서 21,000여장은 이병헌(李炳憲)·신숙(申肅)·인종익(印鍾益)으로 하여금 안국동 네거리 옆의 오지영이 거주하던 고춧가루 집에 옮기려 하였으나 이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운동의 이종일 집으로 옮겼다.³⁸ 그리고 이종일은 28일 아침 사람을 보내어 독립선언서 3장을 오세창에게 건네

35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23쪽. 「경성지방법원의 최린신문조서(제1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21-22쪽.

3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21쪽.

37 이동초, 『천도교의 3·1운동』, 『천도교 민족운동의 새로운 이해』(모시는사람들, 2010), 138쪽.

38 『獨立宣言 半世紀의 回顧』, 『新人間』 262호, 1969. 3, 50쪽.

주고, 인쇄완료를 통지하였다.³⁹

한편 천도교의 민족대표 중 최린·오세창·임예환·권병덕·나인협·홍기조·김완규·나용환·홍병기·박준승·양한묵 11명은 2월 27일 재동 김상규(金相奎)의 집에 모여 독립선언서 및 건의서와 청원서의 초안을 보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연명자의 성명을 열기한 지면에 날인하였다. 그리고 손병희는 하인으로 하여금 자기 도장을 가져다 각 문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그리고 2월 28일 천도교의 나인협, 홍기조, 양한묵을 제외한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최린, 권병덕, 김완규, 나용환, 박준승, 이종일, 이종환, 임예환, 홍병기 등의 민족대표 12명은 재동 손병희의 방에 모여 기독교 및 불교의 민족대표와 함께 협의하여 거사 장소를 탑골 공원에서 인사동의 명월관 지점이 태화관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개최된 독립선언식에 천도교의 민족대표 15인은 모두 참석하였다. 이들은 길선주·유여대·김병조·정춘수를 제외한 기독교의 민족대표 11인, 불교의 민족대표 2인과 독립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 때 이종일은 인쇄된 독립선언서 약 100매를 책상 위에 올려놓아 보게 하였다. 선언서의 낭독은 생략하고, 한용운의 인사말로 독립선언식을 끝낸 가운데 일등은 만세삼창을 하였다. 그리고 이 직후에 천도교의 민족대표는 경찰에 체포되었다.⁴⁰

4.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지방 3·1만세운동의 전개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이종일은 쪽지를 갖고 가는 사람에게 분배하라는 오세창의 지시를 받아 각 교단의 책임자에게 독립선언서를 배분하였다. 이종일은 2월 28일 기독교의 함태영에게 독립선언서 약 1,200~1,300매, 김창준에게 300여매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이종일은 같은 날 한용운에게 3,000장을 주어 불교계에 배포하게 하였다.⁴¹

한편 이종일은 2월 28일 천도교인 인종익(印宗益)에게 2,000장을 주어 1,500매는 전라북도 전주군 천도교구실에, 나머지는 충주에 지참하여 밤중에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 명령을 받은 인종익은 2월 28일 전주군 천도교구실에 가서 1,700매를 동 교구실 금융원 김진옥(金振玉)에게 전달하고 전주 교구관할 각 교구에 분송, 대중에게 배포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김진옥은 그 중 200매를 임실군 천도교구실에 지참하여 동 교구장 한영태(韓永泰)에게 교부하고 동소에서 3월 2일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의뢰하고, 나머지는 민영진 외 수명으로 하여금 동일 밤 전주 읍내의 도로에서 배부하게 하였다. 또 인종익은 나머지 300매를 가지고 청주에 가서 다음날 3월 1일 배부하려다가 체포되었다.⁴²

이종일은 2월 28일 경성 팔판동에서 천도교인 안상덕에게 독립선언서 2,000매를 교부하여 강원도·함경도로 가서 도회지에서 대중에게 배포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안상덕은 동일 강원도 평강군에 이르러 평강군 천도교구장 이태운 방에서 동인에게 700매를 주어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300매는 다음날 3월 1일 함경도 영흥군 천도교구실에 지참하여 교구실을 지키던 김모에게 주고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의뢰하였다.⁴³

그리고 이종일은 2월 28일 독립선언서 1,000매를 이경섭에게 교부하여 황해도 서흥군 천도교구실에

39 「이종일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396쪽.

4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21쪽. 이 장은 조규태, 「천도교와 3·1운동 - 천도교의 역할과 지방 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29-44쪽 및 「만주지역 천도교인의 독립만세운동과 무장투쟁」,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61-65쪽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4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972, 23쪽.

4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972, 22-23쪽.

4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972, 22-23쪽.

가서 교인 박동주에게 750매를 교부, 해주·사리원에 배포하고, 나머지는 수안에 교부하고, 아울러 서울의 독립만세시위를 본받아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이 명령을 받은 이정섭은 3월 1일 서흥군에 이르러 박동주의 방에 가서 이종일의 말을 전하고 독립선언서 750매를 주어 해주·사리원의 대중에게 배포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리고 3월 1일 수안군 수안면 석교리의 천도교구장 안봉하, 동 교도 김영만·한청일·홍석정에게 이종일의 말을 전하고 독립선언서 250매를 교부하고, 그 받은 수안에 배포하고 그 받은 곡산에 배포하도록 홍석정에게 의뢰하였다.⁴⁴

이어 이종일은 3,000매를 김상설(김홍열)에게 교부하여 평안도에 지참하여 각 곳에 배포시켰다. 그리고 3월 1일 독립선언서 50매를 가회동 이관(李攽)에게 주어 경성 시내에 배포할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자 이관은 수일 동안 국장을 보러 서울에 온 지인 10명에게 각 1매씩을 배포하였다.⁴⁵

이 외에 천도교에서는 3·1만세운동의 확산을 위해 『조선독립신문』을 발간·배포하였다. 『천도교회월보』 편집위원인 이종린(李鍾麟)은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종로경찰서에 구인되었고, 독립운동을 힘차게 계속하라”는 등의 기사를 담은 『조선독립신문』 1호 원고를 이종일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이종일은 3월 1일 보성사에서 『조선독립신문』 1호 약 5,000매를 인쇄하여 이종린에게 주었다. 이종린은 이것을 임준식(林準植) 등에게 주어 동일 파고다 공원에서 군중에게 배포케 하였다.

『조선독립신문』 1호의 발간 직후 이종일 등 보성사의 직원이 체포되자, 이종린은 3월 1일 관훈동(寬勳洞) 서적조합 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하던 천도교인 장종건(張宗健)을 만나 『조선독립신문』의 인쇄를 부탁하였다. 이후 이종린은 3월 2일부터 동월 7일까지 임시정부의 설치와 임시대통령의 선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선독립신문』 2호, 조선 13도 대표 선정과 조선독립대회 개최 등의 기사를 담은 3호, 4호의 원고를 작성하여 장종건에게 제공하였다. 장종건은 서적조합 사무실에서 임승옥(林承玉)·김영작(金榮昨) 등과 매번 약 『조선독립신문』 2~4호를 매번 600매씩 프린트본으로 제작하여 이종린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종린마저 임준식으로 하여금 『조선독립신문』을 배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3·1만세운동을 확산시키려다 체포되고 말았다.

이후에는 장종건이 『조선독립신문』을 속간하였다. 그는 3월 15일 경 광화문통 유병륜(劉秉倫)의 집에서 『조선독립신문』 5호 약 700매, 15~16일 6호 약 900매와 7호 수백매를 인쇄하였다. 이후 장종건은 장소를 옮겨 3월 22일 고양군 용강면 예덕리 남정훈(南政勳)의 집 『조선독립신문』 제8호 약 600매를 인쇄하였다. 그리고 동월 24일 동소에서 『조선독립신문』 9호와 그 부록 약 2,000매를 인쇄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신문을 서울 등지에 배포함으로써 3·1만세운동을 확산하려 하였다.⁴⁶

한편 천도교인들은 서울에 왔다가 지방에 돌아가 3·1만세운동의 소식을 알리기도 하였다. 한 예로 천도교에서는 ‘49일 기도회’가 끝나는 1919년 2월 25일 경 평안도와 황해도의 교구장 14명 등을 서울에 올라오도록 한 바 있었는데, 이들이 귀향하여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을 알리고 3·1만세운동의 전개에 기여하였다고 한다.⁴⁷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시위에 대한 지령, 교구 임원들의 3·1만세운동 소식 전파와 시위에 대한 지시, 『조선독립신문』과 소문을 통한 3·1만세운동의 소식 전파, 그리고 천도교인들의 강렬한 민족의식 등에

4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972, 22~23쪽.

4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972, 22~23쪽.

4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권, 96, 97, 99~104, 167, 168, 188~191쪽. 이런 천도교의 『조선독립신문』 발간 활동은 다른 각계의 인물들의 독립신문 발간에 기여하였다.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28~30쪽.

47 「영변천도교구장 언동에 관한 일」,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210쪽.

기인하여 천도교인의 3·1만세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지방에서의 천도교의 3·1만세운동은 대체로 3월 1일부터 4월 10일 경까지 강하게 일어났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⁴⁸

| <표 2> 천도교의 지방에서의 3·1만세운동 |

① <3월 1~10일>

도 일	1	2	3	4	5	6	7	8	9	10
경 기										
충 남			대전			부여임천				
충 북									상원	
강 원										철원
경 남										
경 북										
전 남										
전 북										
평 남	평양	평양 은산 1천 강서 3백 용강 진남포100 중화상원	평양 상원 안주 5천 중화 강동 진남포	평양 성천 4천 양덕 *천 자산 1천 진남포	평양 덕천 숙천 순천 중화 300 진남포	맹산 60 덕천 300 평양 진남포	영원 35 평양 맹산 50 덕천 600 진남포	평양 양덕100	영원150 맹산100 평양 숙천0백	맹산100 안주 중화
평 북	의주 선천	의주	의주 선천 강계0백	용천 신의주	운산 삭주 초산 강계 영변1백	용천	철산 영변		영변150	철산 벽동 위원 초산 후창 태천 *백
황 해		웅진	수안	곡산	웅진읍내	웅진읍내	석달 40 마산 30	웅진읍내		해주390 웅진
함 남	원산		함흥		영흥		정평*천	북청		함흥 영흥 북청 이원 단천300
함 북										
중 국										

② <3월 11~20일>

도 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경 기					가평 북1천	수원		강화2만		
충 남		공주 대전 논산	공주	아산 공주신상		서산				
충 북	충주				진천 괴산		제천	음성		음성
강 원					춘천			철원 평강		
경 남	진주		창녕영산						함안	군북
경 북	안동		경주							

48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31-37쪽.

도 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전 남					장흥 완도					장흥
전 북	임실 익산	임실	전주		임실					순창
평 남	평원 삼등	강동	평원100							
평 북	구성				자성 *천 영변 4백		의주			창성 벽동
황 해										
함 남	북청 1천 단천 이원	북청	북청	갑산 1천 북청 이원 풍산 1천	삼수 북청	홍원 700 삼수 북청	홍원 1천 북청	이원		이원 *천
함 북	성진	길주 1천	길주		경성수성3백 길주	무산				
중 국			화룡 청산리			장백 30				

③ 〈3월 21~31일〉

도 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경 기	진위 오산			양평1천	오산	화성송산 광주중대		광주 경안	오산	용인수지 인천 양평용문	용인외사 오산 수원의왕
충 남	서산 태안									예산	
충 북		청주							횡성	청주	
강 원			화천100				횡성	춘천	횡성		
경 남								창원고현			
경 북											김천
전 남		전주			진도						
전 북			임실둔남								
평 남		평양								강동400	강동400
평 북	창성								의주	구성	정주 태천25백 벽동
황 해											
함 남											
함 북											
중 국				집안 치화보 60				훈춘 수신사			집안 대양차 200

③ 〈4월 1~10일〉

도 일	1	2	3	4	5	6	7	8	9	10
경 기	인천 월미도 화성발안	화성발안	우정장안 양평갈산	시흥군자	화성발안					진위서탄
충 남	서산운산						청양			

도	일	1	2	3	4	5	6	7	8	9	10
충 북	영동 청주 3백									상원	
강 원	홍천 횡성13백	홍천	양구 홍천	이천 회양	평강 이천 회양	이천	정선 평강 이천 양양현북	철원 이천 4백			철원
경 남	합천 고성 0천	언양 함양 0천	합천 부산 창원삼진								
경 북											
전 남	완도										
전 북				남원 *백 함열							
평 남	성천400		상원			맹산	영원 35			영원150	
평 북	의주7천 태천 구성 벽동1천 초산	창성 태천	의주	태천	운산 창성 의주수구	창성		강계			자성장토
황 해			수안	곡산			석달 40 마산 30				
함 남											
함 북	부령										
중 국								장백 집안통구 200			장백

* 4월 14일 경기 진위 40명

위의 <표 2>에 따르면 천도교의 지방에서의 3·1만세운동은 다음의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3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평남, 평북, 황해, 함남 지역에 시위가 집중되었다. 그리고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고르게 일어났다. 이는 평안도와 황해도와 함경도의 독립선언서 전달 책임자인 김상열, 이경섭, 안상덕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 데 반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저러한 사고로 독립선언서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은 때문이었다.

둘째, 전체적으로 시위와 그 참여자는 평남, 평북, 함남의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황해도에서도 상당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천도교세가 강한 때문이었다. 이 지역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후 손병희의 포교로 교세가 급격히 신장된 곳으로, 천도교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다.

평남의 평양에서는 평양교구장 김수옥(金洙玉)의 주도로 3월 1일부터 4일까지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수옥은 김상열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와 별도로 우기주가 등사판으로 찍은 7,500장의 독립선언서를 관하 각 교구와 전교실에 배포하고 독립만세운동의 계획을 교인들에게 전하였다. 이후 평양의 천도교인들은 3월 1일 오후 감리교인과 함께 남산현의 감리교회, 설암리 천도교구, 평양경찰서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중화군의 상원 신읍에서는 3월 2일과 3일 읍내의 경찰관주재소 등지에서, 중화읍에서는 3월 3일 천도교구에서, 중화읍 간동장리에서는 3월 5일 각기 기독교인과 수백명의 군중을 이루어 연합시위를 전개하였다. 강동군의 읍내에서는 3월 30일과 31일 천도교인 400여명이 면사무소와 헌병대 등지에서, 삼등면에서는 4월 1일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성천군에서는 3월 4일 정오 무렵부터 교구와 읍내 헌병대 앞 등지에서 4,000여명의 군중을 이루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위에서

천도교인들은 다수가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평남 서부의 순천군 은산에서는 3월 2일, 자산에서는 3월 4일, 읍내에서는 3월 5일 기독교인 등과 함께 2,000여명의 군중을 이루어 시위를 전개하였다. 용강군에서는 3월 2일·3일·6일에 읍내와 진지동 등지에서, 강서군에서는 3월 3일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평원군에서는 3월 6일 순안, 7일 영유읍, 9일 숙천, 11일 공평면 퇴남리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천도교인 200여명은 11일 공평면 퇴남리의 시위를 주도하였다. 평남 동부의 안주에서는 교구장 김안실(金安實) 등의 주도로 3월 3일 기독교인과 함께 5,000여명의 군중을 형성하여 울산공원 등지에서, 3월 10일에는 안주교구와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천군에서는 4월 21일 갈마재로부터 읍내에 이르는 길에서 천도교인 70명이 덕천군에서는 3월 5~7일 읍내 등지에서, 맹산군에서는 3월 6일 읍내에서 기독교인 및 주민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였다. 양덕군에서는 교구장 이영화(李永華)의 주도로 3월 4일 상석리 천도교구로부터 하석리까지 가두시위를 전개하였고, 영원군에서는 3월 7일과 9일, 200여명의 천도교인들이 읍내로 진출하면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⁴⁹

평북 서부의 신의주에서는 3월 4일 천도교인이 600여명의 군중과 부내(府內)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신의주 동남 32km 떨어진 소곶관(所串館)에서는 3월 5일, 용천군에서는 양시(楊市)·남시·용암포 등지에서 3월 4일부터 5월말까지, 철산군에서는 3월 7일·10일과 4월 7일에 읍내 등지에서 기독교인 등과 시위를 전개하였다. 선천군에서는 3월 1일·3일·4일에 기독교인들이 주도한 시위에 참여하였다. 정주에서는 3월 5일과 31일 교구장 김진팔(金鎭八)의 주도로 읍내에서 장날에 모인 군중과 시위를 벌였다.⁵⁰ 관산에서는 관산교구장 김정함(金庚咸) 주도로 3월 3일, 태천군에서는 3월 31일 기독교인과 수천명을 이루어, 영변군에서는 3월 9일 수백명을 이루어, 구성군에서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남시와 읍내 등지에서 300명을 이루어 시위를 벌였다. 평북 북부의 의주에서는 교구장 최석연(崔碩連)과 최동오(崔東昨)와 최안국(崔安國) 등이 3월 2일 남대문 밖에서, 3월 3일·27일과 4월 1일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또 의주군 주재면에서는 3월 28일, 수진면에서는 4월 2일 시위를 전개하였다. 삭주에서는 3월 5일 읍내에서 기독교인과 3,000여명의 군중을 이루어 시위를 전개하였다. 창성군 동창면 대유동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천도교인 수십명이, 지경에서는 4월 4일 천도교인들 중심으로, 청산면 학송리에서는 4월 5일 천도교인들이 기독교인과 함께 약 300명의 군중을 이루어, 청산면 청룡리에서는 천도교인 약 70명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벽동에서는 3월 10일·31일과 4월 1일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초산군에서는 3월 5일과 31일, 위원군에서는 3월 10일 각기 천도교인 수백명이 읍내와 교구실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평북의 동북의 강계군에서는 3월 3일 입관면에서 천도교인 수백명이, 4월 8일 읍내에서 기독교인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였다. 자성군에서는 3월 15일 오전 천도교인 수백명이 시위를 전개하였다.⁵¹

함남의 남부지방인 원산에서는 천도교인들이 3월 1일 읍내에서 기독교인과 연합하여 700~800명의 군중을 이루어 시위를 전개하였다. 고원군에서는 3월 5일 고원교구장 조동원(趙東源) 등의 주도로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영흥군에서는 교구장(敎區長) 김용환(金龍煥)이 2월 28일 안상덕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각지에 배포하고 3월 5일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함남 북부의 홍원에서는 강인택(姜仁澤)이 안상덕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등사판으로 2,000매를 제작하여 각지에 배포한 후 3월 16일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북청군에서는 3월 8일 읍내에서, 3월 10일 상거서면, 3월 10일과 11일 노덕

49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2, 1971, 364-371, 383-421, 423-436쪽.

5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2, 1971, 437-442쪽.

5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2, 1971, 437-494쪽.

면, 13일 신창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원군에서는 3월 10일 읍내에서 이도재(李道在)·김병준(金秉濬) 등 천도교인 700여명이 시위를 전개하였고, 3월 20일에도 천도교인 1,000여명이 읍내의 교구당 등지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단천군에서는 염원형(廉元亨)·설운룡(薛雲龍) 등 300여명이 3월 10일 읍내의 교구당, 삼수군에서는 3월 15일 저녁 읍내의 중평장, 갑산군에서는 3월 15일 장평면 서부리의 갑산교구당 등지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풍산군에서는 3월 14일 교구장 주병남과 박인진·주의락 등이 읍내의 교구당 등지에서 1,000여명의 군중을 이루어 시위를 전개하였다. 함북 남부의 청진에서는 3월 10일 읍내에서, 경성군 수성에서는 3월 15일 교구장 김동학 등의 주도로, 길주에서는 3월 12일 읍내에서, 성진에서는 3월 10일 읍내에서 기독교인 강학린(姜鶴麟) 등이 주도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3월 11일 학동면의 방동에서 김학천의 주도로 시위를 전개하였다.⁵²

황해도 동부지방에서는 수안에서의 시위가 대표적이다. 곡산군 거주자 이경섭(李景燮)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은 수안교구장 안봉하는 나찬홍·한청일 등으로 하여금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게 하고, 3월 2일 천도교 지도자와 협의하여 3월 3일 수안읍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월 2일 저녁 무렵 수안교구장 안봉하와 김영만·최용식 등 11명이 수안현병분대에 연행되었다. 다행스럽게 일경의 체포를 면한 한청일·홍석정·이영철 등이 3월 3일 오전 수안읍내 현병분대 앞 등지에서 시위를 전개하다 현병의 발포로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였다. 그리고 오후 1시경 한청일·홍석정 등이 150~160명의 교인들을 이끌고 현병분대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현병의 발포로 홍석정·한청일·오관옥 등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였다. 황주군에서는 장날인 3월 2일 황기탁(黃己拆), 최석길(崔錫吉), 김광섭(金光燮) 등 200여명의 천도교인이 황주교구와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고, 겸이포에서는 3월 3일, 서흥에서는 3월 10일 천도교인들이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황해 남부 웅진군에서는 3월 10일 천도교인 안경구(安敬九)·이면식(李冕植) 등이 시위를 주도하였다. 평산군에서는 3월 7일 이동락(李東洛)·강창선(姜昌善) 등이 읍내와 문무면 문구리 등지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금천군에서는 3월 7일 토산 지역 등지에서 천도교인들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황해 중부 봉산군에서는 3월 3일 읍내에서, 신천군에서는 3월 11일 문화읍에서 각기 기독교인과 연합하여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안악군에서는 4월 2일 현행묵(玄行默) 등이 안악 읍내에서, 송화군에서는 3월 12일 읍내에서, 장연군에서는 3월 11일 읍내에서, 웅진군에서는 3월 8일 교구장 정한영 등의 주도로 읍내에서 시위가 있었다. 황해 서부 은율군에서는 4월 5일 홍순의(洪淳義) 등이 읍내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다.⁵³

셋째, 강원도지역 천도교의 3·1만세운동이 3월 중순 이후 전개되었던 것은 독립선언서의 전달 사실 및 배포 계획이 노출되어 중요 지도자들이 검거된 때문이었다.⁵⁴ 즉, 평강교구장 이태운은 2월 28일 안상덕으로부터 독립선언서 700매를 수령한 후 철원군에 170매, 화천군에 60매, 통천군에 120매, 이천군에 15매, 춘천군에 150매, 평강군에 분배하였으나, 거사를 일으키기 전에 전부 체포되고 말았던 것이다.⁵⁵

넷째, 전라도와 경기도에서는 3월 10일 이후 시위가 벌어졌다. 독립선언서는 전달되어 배포되었으나 일제 측의 감시와 저지로 두드러진 시위가 벌어지지 못하였다.⁵⁶ 전남 장흥에서는 3월 15일 장흥교구장 김재계, 황생주, 황업주, 김재반 등의 주도로 읍내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대덕면에서는 3월 20일 수백명의 군중들이 시위를 벌였으며, 용산, 안양, 장동(長東), 유치(有治), 부산(夫山), 관

⁵²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1971, 669-770쪽.

⁵³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권, 1971, 213-347쪽.

⁵⁴ 성주현, 「강원도지역 천도교의 3·1운동」, 『신인간』 590호, 1999년, 10월, 77쪽.

⁵⁵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권, 1971, 521-522쪽.

⁵⁶ 조규태, 「전남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동학연구』 17, 2004, 236쪽.

산, 장평(長平) 등지에서는 4월 초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고흥군에서는 송연섭(宋年燮)을 중심으로 4월 14일 기독교인과 함께 연합시위를 벌였다. 완도에서는 3월 15일, 진도군의 읍내에서는 3월 25일, 진도군 임회면에서는 4월 15일 시위를 전개하였다. 전남지역 천도교 3·1운동의 주도인물들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남원에서 기포한 유태홍의 연비였다.⁵⁷

전북 중부인 전주에서는 김진옥, 배상근 등이 교구실의 등사판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 수천장을 제작하여 각지에 배포한 후 3월 13일기독교인 등과 읍내에서의 시위를 벌였다. 임실군에서는 3월 12일과 23일 읍내, 정읍군에서는 3월 23일 읍내에서 기독교인 등과 연합시위를 전개하였다. 순창군에서는 3월 20일 밤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 200여명이 순창읍 뒷산에 모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전북 서부 익산군에서는 3월 10일 밤 산상에서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전북 동부 남원에서는 교구장 유태홍이 3월 2일 독립선언서를 받고 읍내, 운봉면, 동면 등지에 배포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일제 관헌의 단속으로 거교적인 시위를 벌이지 못하였고, 4월 3일 덕과면과 4월 4일 남원읍내의 시위에 개별적으로 참여하였다.⁵⁸

경기도에서는 천도교인들이 대거 참여한 시위는 3월 중순 이후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양평군에서는 천도교인들이 3월 24일 양평군 갈산면 양근리에서 1,000명을 이끌고 연합시위를, 3월 30일 용문면 광탄리에서 2,000명을 이끌고 연합시위를, 4월 3일 갈산면에서 4,000명을 이끌고 연합시위를 주도하였다. 용인군에서는 3월 30일 수지면에서 1,500명을 이끌고 연합시위를, 31일 외사면에서 3,000명을 이끌고 연합시위를 주도하였다. 수원군에서는 4월 3일 우정면·장안면에서 3,000명을 이끌고 연합시위를, 시흥군에서는 4월 4일 1,500명을 이끌고 연합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강화도 부내면에서는 3월 18일 기독교 주도한 20,000명의 연합시위에 참여하였다.⁵⁹

다섯째, 충청도와 경상도지역에서는 천도교인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 충남 동부의 대전에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유성면에서, 논산군에서는 3월 10일 강경읍에서, 3월 14일 신상면(현 유구면) 유구시장에서 천도교인이 기독교인 등과 연합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충남 서부의 부여에서는 3월 6일 임천읍 구교리에서, 청양군 사양면에서는 4월 7일 밤 교구장 한도수(韓道洙) 등이 산에 횃불을 올리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산군 온양면에서는 3월 14일, 서산읍에서는 3월 16일 도교인의 시위가 있었다. 충북의 북부지방인 음성군에서는 양준성(梁俊成), 김용진(金龍鎭) 등이 3월 18일 음성읍내에서 수천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를 전개하였다. 충주군에서는 3월 11일 충주면의 달천리에서 홍종호(洪鍾浩), 김흥배(金興培) 등 천도교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충남 남부의 청주의 청주면에서는 3월 22일, 괴산군 미원면에서는 4월 1일, 괴산군 북일면에서는 3월 21일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경남 동부의 울산군 언양면에서는 4월 2일 천도교인 이규인(李圭寅) 등이 1,000여명의 군중과 시위를 전개하였다. 창녕군 영산읍에서는 구중회, 장진수, 김추은 등이 3월 13일 영산 앞 남산봉에 올라 ‘결사단원맹서서(決死團員盟誓書)’에 서명날인하고 600~700명의 군중과 영산읍내로 시위행진을 벌였다. 경남 남부지방인 고성읍의 삼산면에서는 4월 1일 천도교인이 시위를 촉발하였고, 경북 북부지방인 안동에서는 송기식(宋基植)·송홍식(宋弘植) 등이 기독교측과 연계하여 3월 18일 안동읍의 장날에 150명 가량의 군중을 이루어 시위를 전개하였다.⁶⁰

57 조규태, 「전남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동학연구』 17, 2004, 237-239쪽.

5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495, 496, 502-505, 511, 513, 518, 537-542쪽.

59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삼일운동편 1, 361-375쪽.

6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권, 1971, 127, 129, 143, 149, 153, 203, 204, 228-230, 262, 398쪽.

여섯째, 천도교인들은 국내에서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서간도와 북간도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서간도의 집안현, 장백현, 북간도의 화룡현, 훈춘현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집안현에서는 3월 25일 약 60명이 집안현 유수임자가(榆樹林子街) 북단과 동지역 보갑국(堡甲局) 안 광장에서 태극기와 궁을기(弓乙旗)를 흔들면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3월 31일 오전 11시경에는 小陽岔의 천도교 교구장 김여식(金呂植)과 봉훈(奉訓) 김병칠(金秉七) 등 교도 200여명이 大陽岔 보갑국 부근에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또한 이들은 外岔市街에 들어가 오후 2시경 각자 태극기와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기재된 깃발을 흔들면서 가두행진을 하였다.⁶¹ 관전현에서는 4월 3일, 4일 河漏河 草荒溝에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인 200명이 기독교회 앞에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연설을 행하였다.⁶² 3월 28일에는 柳河縣 三源浦, 通化縣 哈泥河, 興京縣 旺清門 지방의 천도교인이 興京縣 旺清門의 기독교회에 모여 500명의 군중으로 시위를 벌였다.⁶³ 장백현에서는 3월 16일과 4월 10일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북간도의 연길현에서는 용정교구와 국자가교구의 천도교인들이 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 ‘3·13시위’에 참여하였다.⁶⁴

이처럼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3·1만세운동이 전개된 것은 교구와 연원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이 전파된 때문이었다. 교구에서 전교실로 전해졌으며, 교구장으로 부터 전교사에게, 교회 책임자로부터 일반교인에게, 전교자로부터 피전교자에게 독립선언서와 소식이 전해지고 알려졌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손병희와 교구장의 명령을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에 참여하곤 하였다.⁶⁵

그리고 전국의 대교구에 인쇄기가 보급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천도교총부는 이미 3·1운동 이전에 30여개소의 대교구에 등사기 한 대씩을 비치하고 이사원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봉황각에서 특별 연성을 시킨 바 있었다.⁶⁶ 그런데 이는 지방 곳곳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전주 대교구에서는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아 비치된 인쇄기로 인쇄한 후 2일과 3일에 인근 지역에 배포하였다.⁶⁷

5. 맺음말: 민족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는 평등한 이상사회를 이루려는 사회변혁 사상과 아울러 ‘보국안민’으로 대표되는 민족적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국권 피탈 후 일제가 정치적 억압과 민족적 차별을 가하는 국면을,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등 천도교의 고위 지도자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은 일본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그런 상황을 개벽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즈음하여 일손이 민족자결을 주창하고, 파리강화회의에서 패전국의 식민지가 민족자결의 원칙하에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자, 이들은 우리 민족의 자결권을 획득해야 하겠다고 걱정하였다.

그런데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등이 처음 가진 생각은 무력으로 일본과 싸워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에게 요청하여 조선의 자율적 행정권을 얻으려는 것

61 위의 책, pp.813-814. 강덕상 편, 『조선』 2, p.116.

62 姜德相, 『朝鮮』 三·一運動篇 2, 130쪽.

63 姜德相, 『朝鮮』 三·一運動篇 2, 126쪽.

64 「만주지역 천도교세의 신장과 천도교인의 민족운동」(1905~1922),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선인, 2006), 61-64쪽.

65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 43쪽.

66 「獨立宣言 半世紀의 回顧」, 『신인간』 262호, 1969년. 3월. 48쪽.

67 김정인, 「전라도지역 천도교인의 3·1운동」, 『신인간』 586호, 1999년. 6월. 77쪽.

이었다.

이들이 조선의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 하에 보잘 것 없는 무기를 갖고 일본군과 싸웠다가 수 만명이 희생된 동학의 적자(嫡子)인 천도교의 최고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대의 혹자는 이들을 대의를 저버린 사람으로 폄하하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이 그렇게 비난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독립을 희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추진하고, 1905년 동학을 근대적인 종교로 바꾼 주역인 이들은 전통적 사상과 가치를 고수하려는 근본주의자나 원리주의자가 아닌 현실론자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국내외 다수의 민족지도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얻으려는 독립운동을 추진하자 자신들의 처음 생각을 바꾸어 독립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생각을 바꾸었던 것이다. 이 이후 그들은 큰 희생을 치를 것을 각오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해나갔던 것이다.

일반 천도교인들의 독립에 대한 민족의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황해도 수안과 경기도 제암리 등 수많은 천도교인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던 것이다. 3·1운동 당시 기소자 19,525명 중에서 천도교인이 2,283명으로 장로교의 2,486명 다음으로 많다는 것⁶⁸도 천도교의 민족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거증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천도교에서 3·1운동을 추진한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이들 전폭적으로 지지한 서북지역의 천도교인들은 동학의 항일정신과 전통적 가치를 고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서구화를 추진한 문명개화론자였다. 경술국치 후 의병투쟁을 지속하거나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의 울타리 하에서 교회와 교육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려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천도교에 있어 3·1만세운동은 천도교의 민족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거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3·1운동을 통해 천도교인들은 민족운동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 조선시대 향리의 서출에 불과하여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손병희는 박영효·김윤식·윤치호와 같은 조선시대의 양반 고위층을 몰아내고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차별받고 소외되어 왔던 서북 출신의 인물들이 민족운동의 지배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 출신의 천도교인들은 교회 내에서는 막강한 교인수를 바탕으로 중앙총부의 요직을 차지함으로써 교권을 장악하였다. 동학시대에 입교하여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였던 천도교의 원로들을 밀어내고 동학농민운동 후 입교하여 신앙의 역사가 일천한 평안도 등 서북지역 출신의 교인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대두하였던 것이다.

교외적으로, 서북지역의 교인들은 3·1운동을 기점으로 부르주아민족주의운동을 주도하는 신흥부르주아지로 대두하였다. 요컨대 이들은 1920년대 기독교인·동아일보계의 지식인과 함께 부르주아민족주의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세력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6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1971, 890쪽.

3·1만세운동과 천도교에 대한 논찬

성주현

청암대학교 교수

3·1운동 백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주요한 것이 학술발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백주년이 되는 2년 동안 많은 학술대회가 개최되리라고 본다. 오늘 학술대회도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다. 그리고 3·1운동은 알려진 바와 같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민족운동으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3·1운동에서 종교의 그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이를 통해 100년 전에 이루었던 민족통합을 다시 한 번 재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천도교와 관련하여 발표한 조규태 선생은 오래전부터 천도교를 주제로 많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연구자이다. 때문에 오늘 발표한 내용은 3·1운동 과정에서 천도교의 역할과 위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발표자의 논지에 동의는 하지만 논평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3·1운동의 준비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천도교의 3·1운동의 준비를 단순히 권동진이 1918년 11월 『대판매일신문』의 보도된 미국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의 조항’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천도교에서는 일제강점 이후 이종일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던 민족문화수호운동, 천도구국단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3·1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종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구 관료와 종교계를 포함한 민족통합의 민중시위 계획은 3·1운동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3·1운동의 준비는 근인과 원인이 있다고 본다.

둘째, 천도교 민족대표의 특성을 발표자는 근대화운동을 이끌어 갔던 인물,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인물, 평안도 출신 인물로 살펴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천도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민족대표 15인을 선정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천도교는 3·1운동 이전에 지방의 주요 지도자들을 서울 봉황각으로 불러 일곱 차례 49일기도를 통해 483명을 참가시킨 바 있다. 이들이 3·1운동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발표자 역시 영변교구장을 통해 이러한 점을 밝히고 있는데, 49일기도와 참여자의 활동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넷째, 발표자는 “천도교에서 3·1운동을 추진한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서북지역의 천도교인들은 동학의 항일정신과 전통적 가치를 고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 서구화를 추진한 문명개화론자였다. 경술국치 후 의병투쟁을 지속하거나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의 울타리 하에서 교화와 교육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려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민족대표 중에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거나 서북지역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든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바 있는 박준승, 권병덕, 이종훈, 홍병기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한 문명개화론자는 동학의 항일정신과 전통적 가치를 고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동학의 항일정신과 3·1운동이 별개의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3·1운동 당시 천도교의 교세는 서북지역도 막강하였지만 관북지역의 교세도 사실 서북지역보다 컸다고 판단된다. 3·1운동에서도 관북지역 천도교인들이 더 격렬하게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서북지역을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다.

여섯째, 많은 연구자들이 일제강점기 천도교 민족운동을 ‘부르주아민족운동’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가 한다. 발표자도 결론의 끝부분에서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천도교의 기본층은 대부분이 농민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농민운동을 전개하였고, 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조선노동사를 설립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초반 신간회가 해소된 후 사회주의(공산주의) 측과 조선 사회운동의 영도권을 놓고 심하게 논쟁을 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도 천도교를 ‘부르주아’로 평가하지 않았다. 천도교의 민족운동이 부르주아민족운동이었는지는 좀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일곱째, 최근 한국사 강좌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설민석’이 한 인터넷 강의 ‘3·1운동 이야기’에서 3·1운동은 일본 유학생 2·8독립선언을 주도한 학생이 귀국하여 소식을 전하자 손병희가 질책과 권유로 갑자기 시작되었다고 한 바 있으며, 3·1운동 당일 “파고다 공원에 예상외로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자 민족대표들은 겁이 나서 당시 최고 술집인 태화관(마담인 주옥경씨가 손병희와 사겼기에 그리로 갔다)에서 낮 술 먹고 취해 손병희가 종로서에 전화해서 “나야 병희야, 나 지금 취했거든 나 와서 데려가”라고 하였으며, 이때 파고다 공원에선 한 학생이 만세를 불러 겨우 시작되었다. 3·1운동은 없을 뻔 했다.”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3·1운동의 전국 파급도 학생들이 지방에 내려가면서 확대되었다’(천도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발표한 내용과 많이 배치되는데, 3·1운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인지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용어나 표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천도교는 일진회·대한협회 등의 정치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정치적·사회적 변혁을 모색하였다.”, “1910년대 초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에 700여개의 교리강습소를 설립”, “『천도교회월보』의 발간을 통해 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신지식을 전파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10년에 천도교에 입교한 최린이 1904년에 전개한 갑진개화운동에 참여한 것과 같은 기술(권동진과 오세창은 1904년 일본 도쿄에서 손병희를 통해 입교하였고, 양한묵도 1902년 나라에서 손병희를 통해 입교하였다. 최린도 1904~06년 일본에서 손병희를 알게 된 후 귀국 후인 1910년 입교하였다. 이들은 손병희를 도와 갑진개화운동을 추진하였고) 등이 있다. 이는 진보회, 평안도를 기점으로, 한자뿐만 아니라 ‘한글판’ 지면도 별도로 배려하였으며, 그리고 최린은 갑진개화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한다.

書

3·1만세운동과 불교

1. 서언
2. 3·1운동의 전개
 - 1) 참가 배경
 - 2) 중앙 차원의 참가
 - 3) 지방 차원의 참가
 - 4) 민족대표의 옥중 투쟁과 지성
3. 3·1운동 이후의 동향
 - 1) 임시정부와 항일불교
 - 2) 만주 독립군의 참여
 - 3) 불교 자주화
4. 결어

발표 _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논찬 _ 한상길 (동국대 연구교수)

3·1만세운동과 불교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1. 서언

1919년 3월, 거족적인 3·1운동에 불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불교계가 이와 같이 3·1운동에 참여한 것은 우연적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는 1600년의 한국불교사에서 전개된 호국불교의 전통이 구현된 것이다. 한국불교는 전래 초기부터 대승불교를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중생 구제, 공동체의 수호 등에 적극 나섰거니와 그는 몽고 침략, 임진왜란 등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일어난 3·1운동에 주도적으로 불교가 참여한 역사 및 이념에 대해서는 그간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성찰적으로 보건대 부분성, 편향성, 우호성 등에 치우쳤다. 이에 필자는 3·1운동과 불교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의 문제의식이 보다 심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첫째는 관련 자료집의 부재이다. 역사적인 이해, 해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헌, 보도기사, 판결문, 증언 및 회고 등 다양한 자료에 의거하여 서술해야 한다. 그런데 3·1운동이 발발한지 어언 100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명성에 걸맞는 자료집이 부재하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미시적인 개별적인 연구가 부진하였다는 것이다. 중앙 차원에서 연구,¹ 민

1 3·1운동과 불교에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문헌,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김법린, 「3·1운동과 불교」, 『신천지』 1-2, 서울신문사, 1946.

이종욱, 「三一運動의 回顧」, 『동아일보』 1958.3.1.

김상호,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 『대한불교』 1964.8.23.

김한기, 「범어사 사건」, 『신동아』 3월호, 1965.

백성욱, 「3·1운동과 중앙학림」, 『동대신문』 1966.6.20.

안계현, 「3·1운동과 불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총』, 동아일보사, 1969.

조은택, 「3·1운동과 불교인의 활약상」, 『법시』 18호, 1969.

김창수, 「일제하 불교의 항일운동」, 『한국불교문화사상사』 하권, 지관스님화합논총간행위원회, 1992.

정광호, 「일본 침략시기 불교계의 민족의식」, 『윤병석 화갑기념 논총』, 1990.

김순석, 「3·1운동기 불교계의 동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_____, 「한국 근대 불교계의 민족의식」,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재발견』, 경인문화사, 2014.

김광식, 「불교계의 광복운동」, 『불교저널』 창간호, 1999.

_____, 「일제하 불교계 독립운동의 전개와 성격」, 『새불교운동의 전개』, 도피안사, 2002.

_____, 「불교의 민족운동」, 『종교계의 민족운동』, 독립기념관, 2008.

_____,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 연구」,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족대표 및 참가 승려 등에 대한 인물 연구,² 3·1운동 이후의 동향³ 등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가 나왔지만 3·1운동 당시의 불교계의 활동의 세부 내용, 특히 지방에서의 개별 사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⁴ 세 번째는 불교가 참여한 이념을 지금껏 막연하게 호국불교, 대승불교 등으로 불려왔지만 더욱 더 진일보한 구체성이 있는 개념까지는 합의되지는 못하였다. 일부 학자에 의해서 민족불교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지만⁵ 아직 보편화되지는 못하였다고 이해된다.

이런 전제에서 필자는 본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유의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3·1운동 당시 불교가 전개한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겠다. 둘째는 3·1운동 직후의 동향을 당시 역사적 맥락에 유의하여 살피고자 한다. 셋째는 3·1운동이 근대 불교에 끼친 영향을 살펴 보겠다. 특히 이 측면은 필자가 3·1운동에 참여한 불교의 이념적인 측면과 연결하여 근대불교의 정체성을 기늩하는 하나의 잣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필자의 이상과 같은 전제와 배경에서 서술한 이 글이 3·1운동과 불교, 근대불교, 식민지하의 불교의 정체성 대한 연구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 3·1운동의 전개

1) 참가 배경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경영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말살하려고 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일제는 한국인의 역사, 문화의 중심이었던 불교가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나서지 못하게 행정적으로 통제, 관리하였다.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사찰령 체제이었다. 1911년에 제정된 사찰령과 사법은 한국의 불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권 등의 일체를 조선총독부가 장악하는 것이었다.

- _____. 『한용운의 항일투쟁과 서대문형무소』,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박결순, 「3·1독립선언서 공약삼장 기초자에 대한 재론」, 『한국 근현대사연구』 46, 2008.
 한동민,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권, 2016.
- 2 김상현, 「3·1운동에서의 한용운의 역할」, 『이기영박사 고회기념 논총』, 1991.
 _____, 「한용운과 공약삼장」, 『동국사학』 19·20, 1986.
 _____, 「효당 최범술(1904~1979)의 독립운동」, 『동국사학』 40, 2005.
 김광식, 「백용성의 독립운동」, 『대각사상』 창간호, 1999.
 _____, 「백용성의 사상과 민족운동 방략」,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_____, 「오성월의 삶에 투영된 선과 민족의식」,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_____, 「박영희의 독립운동과 민족불교」, 『대각사상』 25, 2016.
 한동민, 「일제 강점기 신상완의 독립운동」, 『대각사상』 13, 2010.
 _____, 「일제 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2011.
 양경직, 「백성욱의 독립운동 사료」, 『경기향토사학』 18, 2013.
- 3 조영암, 「스님들의 항일운동」, 『불교사상』 15, 1985.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39, 2002.
 _____,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_____,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일심교」, 『불교와 국가』, 국학자료원, 2013.
 _____,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교의 민족운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2.
 박희승, 「일제 강점기 상해 임시정부와 이종욱의 항일운동 연구」, 『대각사상』 5, 2002.
 김순석,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의 재검토」, 『불교학보』 66, 2013.
- 4 김동윤, 「일제하 불교계의 구국운동 - 3·1운동의 지방 확산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 1983.
 강대민, 「범어사 3·1운동의 재조명」, 『대각사상』 14, 2010.
 조선주차헌병대 사령부가 작성한 「3·1운동 피검자 조사표」에는 승려 120명, 목사 54명, 천도교 교구장 26명으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온 승려 120명에 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1운동사(하)』, p.889.
- 5 김광식,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와 민족불교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그러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제 초기의 주지층을 비롯한 한국불교계는 그 실상과 본질을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 이해는 진화론적인 현실인식과 일제가 불교를 진흥시키고 있다는 막연한 우호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불교는 조선중기 이래 정치적, 사회적인 압박을 당하였던 정황, 산중불교에 매몰된 사회의식의 나약 등으로 인하여 일제에 대한 투철한 대결의식이 미약하였다. 또한 승려 도성출입 금지의 해제를 주도한 일본불교 유입, 침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국 승려들은 일본어 수학, 일본불교와의 결연 자청, 일본으로 유학 등을 통해 우호성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때문에 국권강탈 초기의 불교는 일제, 일본불교에 대한 대결의식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찰령 체제의 모순 및 문제점이 점차 노정되면서 일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조되어 갔다. 특히 사찰령 체제는 자주적인 종단 설립 자체를 허가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지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다. 즉 사찰령 체제는 친일적인 주지층을 지원, 육성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친일적인 주지들은 일제 및 식민지 불교 체제를 인정하고, 그에 안주하였다. 사찰령 체제가 5~6년이 지나면서 주지층의 전횡, 재임하려는 주지층의 타락, 비판적인 청년승려들의 배척 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의 몰락과 구성원 간의 갈등 구조였는데, 이는 은연중 일제의 사찰령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연결되었다.

사찰령의 구도가 고착화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모순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노정되었다. 즉 자주적인 불교의 지향 흐름이 바로 그것이었다. 한용운에 의해 주도된 그 흐름은 전국적으로 파급되었다. 특히 그를 촉발시킨 움직임은 임제종운동(臨濟宗運動)이었다. 임제종운동은 종단의 설립을 위해 일본불교의 도움을 받으려는 일단의 움직임으로 해인사 이회광에 의해 추진된 1910년 10월의 조동종맹약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구한국 시절, 공권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원종(圓宗)은 일본의 조동종의 지원을 받아 일제 당국에 승인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팽개친 비굴한 조약이라는 한국불교 내부의 비판이 전라도 지역 불교계로부터 거세게 일어났다. 1911년 1월, 송광사에서는 그 반대를 위한 대회가 열려, 그 대응적인 조직체인 임제종을 출범시켰다. 한용운, 박한영, 진진웅 등이 주도한 그 운동은 범어사, 해인사가 참여하면서 일시적으로 범어사로 그 본부를 이전하였다. 그후, 1912년 5월에는 서울 인사동에 임제종포교당을 창건하면서 중앙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그렇지만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었을 그 당시 각지의 불교청년들은 한국불교의 보종, 정채성 수호 등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바로 민족불교의 지향이었다. 이 운동에서 고양된 민족의식이 3·1운동의 참여로 이어졌던 것이다.

임제종운동이 좌절된 후, 중앙의 불교계 학교(고등강숙, 중앙학림)에서 수학을 하였던 청년승려들은 대승불교, 호국불교의 전통을 자각하면서 급변하는 사회, 정치에 대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한용운이 거처로 머물던 포교당(임제종, 조선선종, 범어사)에 왕래하였고, 한용운이 추진한 조선불교회와 불교동맹회 등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 포교당에는 민족대표로 활동한 백용성도 머물면서 포교활동에 종사하였다. 백용성은 1915년부터는 별도의 포교당(선종 임제파 강구소)을 설립하여, 독자노선을 가고 있었다.

한편 한용운은 일제의 사찰정책과 대응적인 노선이 일제의 탄압을 받자, 정신적인 자각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통해 청년승려들의 의식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는 『조선불교유신론』(1913), 『불교대전』(1914), 『정선강의 채근담』(1917)을 펴냈을 뿐만 아니라 1918년에는 계몽지 『유심』을 발간하였다.

이와 같은 3·1운동 이전의 불교계는 사찰령 체제 모순의 인식, 자주적인 불교 지향의 모색, 청년승려층 중심의 민족의식 고양 등이 어우러져 있었다. 특히 1918년 10월, 제주도 중문에서 승려, 불교신자, 농민 등 700여명이 연합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 법정사 항쟁은 3·1운동 당시 불교의 민족의식을 예비적

으로 가늠할 수 있는 사례이다.⁶ 요컨대 3·1운동 이전의 불교계 구성원들은 기회만 오면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나설 정신적 자산이 충분하였다.

2) 중앙 차원의 참가

3·1운동의 중앙에서의 불교 참여는 한용운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한용운은 3·1운동 이전 10년간 불교의 민족의식 고양을 선도하였으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활동하였다. 때문에 3·1운동기 불교의 중앙에서의 활동은 한용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다.

한용운은 일본 문명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국망 이전인 1908년 6개월간 일본유학을 거쳤다. 그의 일본행은 일본불교, 근대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켰다. 한용운의 일본행은 3·1운동의 참가에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다. 즉 천도교 대표로 활동한 최린을 일본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1918년 후반, 한용운은 『유심』지를 발간하면서 세계정세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래서 그는 1차대전의 종결, 파리강화회의 개최, 민족자결주의 등장 등 국제사회가 요동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기회에 한국의 독립을 모색하였다. 이에 한용운은 일본에서 만나, 귀국후에도 알고 지내던 최린을 1919년 1월 경에 찾아가서, 이 기회를 독립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천도교는 자체적으로 민족자결주의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독립운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일 유학생을 통한 국내 학생층과의 연계, 상해지역 망명 독립운동가 및 국내 개신교와 연계 등을 시도 하던 중이었다. 이럴 즈음에 불교를 대표하는 한용운이 공동으로 독립운동에 나서자는 제안을 받았음은 천재일우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즉 종교 연합의 형태로 3·1운동이 조직화되었다. 요컨대 한용운은 최린을 통하여 3·1운동의 지도부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시절 중앙학림(中央學林)에 다녔는데 三·一운동이 일어나기 얼마전 만해(萬海)선생이 비밀리에 나를 인사동 포교당으로 밤에 불러 3·1운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울 지역에 연락책을 맡아 달라는 지령(指令)을 받고, 최린, 백용성, 이승훈씨 등에게 수차에 걸쳐 기밀문서(機密文書)를 가지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때 보니 만해(萬海)선생과 최린(崔麟)선생 두분이 완전히 영도(領導)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⁷

한편 3·1운동의 지도부에 있었던 한용운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려를 추가로 교섭하여 민족대표 진영에 포함시키려고 의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선 그와 함께 임제종포교당에서 활동한 백용성을 민족대표에 포함시켰다. 그 당시 백용성은 서울 종로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교섭하여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한용운은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지방 사찰에 머물던 송만공, 백초월, 오성월, 진진응, 도진호 등은 교통 및 오지의 사찰에 거주하였던 문제로 인하여 추가로 포함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한용운은 유교 대표를 민족대표 진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한국의 이념을 몇 백년간 대변한 유교를 누락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보고 유림의 거목인 곽종석을 만나기 위해 거창까지 내려 갔다. 그러나 운동의 긴박성으로 인하여 곽종석의 민족대표 가담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6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한금순,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형사 사건부' 분석」, 『대각사상』 12, 2009.

7 『법륜』 174호(1973.8), pp.21~22, 「특별기획, 대담 광복절에 생각한다」.

또한 한용운이 수행한 것은 독립선언서의 공약삼장의 추가이다. 문장력이 있었던 한용운은 최린에게 선언서는 자신이 짓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린이 육당 최남선에게 선언서 작성을 의뢰한 상태이었다. 그러자 한용운은 자신은 선언서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전하는 문헌 기록과 증언을 종합하여 볼 경우, 한용운은 공약삼장을 추서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⁸ 만해가 추서한 공약삼장은 3·1 독립정신의 핵심이고, 한용운 독립사상을 대변해주는 것이다.⁹

이와 같은 활동을 하였던 한용운은 3월 1일 전날 밤, 그를 따르던 중앙학림(동국대 전신)의 청년 승려들을 그의 거처인 유심사(종로, 계동)로 불렀다. 그의 집에 모인 10여명에게 한용운은 그간 비밀리에 추진한 3·1운동의 준비 소식을 전하고, 민족적 거사에 쾌히 참가하여 서산대사, 사명대사 법손임을 기억하고 호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러 달을 두고 궁금히 여기던 제군들에게 꽤 소식을 전하겠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중외에 선언함은 당연한 일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결연히 나선 우리는 아무 장애도 없고 포외(怖畏)도 없다. 군 등은 우리 뜻을 동포 제위에게 널리 알려 독립 완성에 매진하라. 특히 군 등은 서산, 사명의 법손임을 굳게 기억하여 불교청년의 역량을 잘 발휘하라.¹⁰

위와 같이 발언하면서 자신이 천도교측으로부터 가져온 선언서 3천매를 학생들에게 주면서, 각처로 배포하도록 하였다.

한용운으로부터 3월 1일의 만세운동에 적극 동참하라는 당부를 받은 중앙학인의 청년승려들은 유심사를 나와 인근의 범어사 포교당에서 후속의 일을 모의하였다. 그들은 탑골공원에서의 시위 참가, 선언서의 배포, 시위 후에는 연고 사찰로 내려가서 지방 사찰의 만세시위 등을 강구하였다.

드디어 3·1운동의 그날이 왔다. 한용운과 백용성은 민족대표가 정한 종로의 태화관으로 가서 독립선언식에 참석하였다. 민족대표들은 선언서를 간단히 읽었으며, 한용운은 개식사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신명을 바쳐 한국이 자주 독립국이 되도록 모인 것이니 정당당하게 최후의 1인까지 독립쟁취를 위해 분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짝막한 기념사를 한 한용운은 민족대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의 축배를 제의하고, 만세 삼창을 선도하였다. 이 때 한용운은 선언 후 일제에 피체되면 지켜야 할 옥중 투쟁 3대원칙(변호사를 대지 말것, 사식을 취하지 말 것,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한용운의 당부를 받았던 중앙학림의 승려들은 오전에는 서울 시내에 선언서를 배포하고, 오후에는 탑골공원의 선언식에 참가하고, 곧 이어 전개된 서울 시내의 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

3) 지방 차원의 참가

지방에서의 불교의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전개는 사찰을 거점으로, 그 추진은 청년승려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 운동의 계기는 한용운에게 운동의 적극 당부를 받은 중앙학림 승려들이 연고 사찰에 내려와서 행한 참여의 촉구와 지방 사찰에서 수학한 학인 승려들의 자생적인 판단의 결합이었다. 양 측면이 긴밀하게, 신뢰성으로 연결되고, 영향을 주었다.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지방 사찰과 연결된 만

8 이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논란이 많다. 필자는 한용운의 추가설을 지지한다.

9 박노자, 「기미독립선언서 '공약삼장' 집필자에 관한 고찰」, 『불교평론』 8, 2001.

10 김법린, 「3·1운동과 불교」, 『신생』 창간호(1946.3), p.16.

세운동을 개조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범어사 ; 중앙학림의 김법린 · 김상현 등이 내려와 지방학림 · 명정학교 학생들과 결사대를
조직하여 동래읍 장날에 만세운동의 거행, 헌병 출동으로 34명의 학인 체포,
31명 징역형¹¹

해인사 ; 김봉신 등이 파견, 지방학림 승려 23명이 합작 시위 준비, 선언서 수천매 인쇄,
시위대를 사전 조직하여 다수 지역 시위 전개, 해인사에서 선언식 거행

- 강재호, 기상섭 ; 경주, 양산, 부산, 김해
- 송복만, 최범술 ; 합천, 초계, 의령, 진주, 사천, 곤양, 하동
- 박달준, 김초운 ; 거창, 함양, 안의, 산청, 남원
- 우경조 ; 공주, 마곡사 등
- 박윤성 ; 선산, 상주
- 김도운 ; 김천, 상주
- 신철휴 ; 고령, 영천
- 권청학 ; 달성, 영천
- 박근섭 ; 쌍계사, 화엄사, 선암사
- 홍태현 ; 해주, 황주, 사리원
- 김대용 ; 동화사, 대구
- 정병현, 오택언 ; 호남, 양산
- 박창두 ; 석왕사

봉선사 ; 김성숙, 이순재(지월), 현일성, 강완수, 김석로, 김석호 등이 시위 주도
주민 600명 참가, 조선독립임시 사무소 명의로 전단 배포

신륵사 ; 영봉, 권중만, 조근수 등 만세 시위 주도¹²
주민 200여명 참가

표충사 ; 이장옥, 구연운, 오웅석 등이 30여명이 주도, 격문 등사
단장 장터에서 선언서 살포하고 시위 전개, 1500여명 주민 참가¹³
통도사 승려도 동참, 364명 검거되고 71명 검찰 송치

통도사 ; 오택언, 김상문 등 80여명의 학인과 중견 승려가 신평 장터 시위 주도
학인 50여명 참가

동화사 ; 김대용, 윤학조, 김문옥, 이용석 등의 9명 동화사 학인 주도로
대구 남문시장 시위 주도, 주민 3,000여명 참가¹⁴
탑골공원 시위 참가한 중앙학림 학인 윤학조의 영향

청암사 ; 김도운, 이봉정, 남성엽

도리사 ; 김정환

¹¹ 김한기, 「범어사 사건」, 『신동아』 1965년 3월호.
김법린,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 ; 동래읍 己未萬歲 事件」 『대한불교』 1964.9.6.

¹² 『불교신문』 1995.2.28, 「3·1절 특집 ; 신륵사 독립운동의 주역 영봉스님」.

¹³ 『독립신문』 82호(1920.6.5), 「丹陽 동 단양면 표충사」.

¹⁴ 『해동불보』 1992.8.24, 「불교계 3·1항일 독립투쟁 구체적 자료 발굴」.

김룡사 ; 지방학림(경흥학림) 승려 30명이 시위 기획, 일제에 구속,

주민들의 시위는 전개

중앙학림 학승 전장현이 선언서 전달¹⁵ 주도 승려 3인은 기소(1년 집행유예)

대흥사 ; 불교전문강원 학인 승려 30명 주도,

박영희(중앙학림) 만세운동 추동, 해남 장날에 거사케 권유

화엄사 ; 중앙학림 재학인 정병현 만세운동 권유, 구례 장날

박영희(중앙학림) 만세운동 추동

법주사 ; 박윤성

석왕사 ; 인근 부락민과 공동 시위 및 추도회 기획, 일제 억압으로 좌절

이상과 같은 지방 사찰, 학인 승려가 주도한 개요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앙학림 승려들의 영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학림 승려들의 자생적인 결단이 작용하였다. 셋째, 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시위를 전개하였다. 넷째, 중견승려, 학림의 교사도 동참하였다. 다섯째, 주지층의 참가는 미약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 사찰에서의 만세 시위는 불교의 만세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만세운동으로 파급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민족대표의 옥중 투쟁과 지성

불교계 민족대표인 한용운과 백용성은 3·1운동으로 인해 3년, 2년간 수감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구속된 것 이상의 민족적 행보를 옥중에서 전개하였다. 때문에 그 행보 자체를 민족운동, 독립투쟁으로 볼 수 있다.

한용운은 선언식 당일, 민족대표들에게 옥중투쟁 3대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자신부터 지키면서, 좌절하는 민족대표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선도하였다. 일제의 위협에 겁을 먹은 지도자들에게 인분을 퍼부었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그는 일제가 주관하는 재판정에서 의연하게,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민족의식은 그가 옥중에서 남긴 수편의 옥중 한시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용운의 옥중투쟁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일제의 판사에게 1919년 7월 10일에 제출한 「조선독립의 서」에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그는 한국이 독립이 되어야 하는 이유, 자신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당위성, 일제 침략 및 통치의 부당성을 논설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한용운의 독립선언문이라 하겠다. 그는 이 문건을 일본인 판사에 제출하고, 또 한 부를 비밀리에 작성하여 그의 상좌인 춘성에게 유출시켰다. 이 선언서는 범어사 불교청년으로 항일운동에 투신한 김상호를 통하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 선언서의 전문이 『독립신문』 25호(1919. 11.4)에 「조선독립 감상의 대요」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개론

2. 조선 독립선언의 동기

(1) 조선민족의 실력

(2) 세계대세의 변천

¹⁵ 최병식, 「김룡사 지방학림의 만세 사건」, 『문경문화』 13, 1991.

- (3) 민족자결 조건
- 3.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
 - (1) 민족 자존성
 - (2) 조국사상
 - (3) 자유주의
- 4. 대 세계의 의무
- 5. 조선독립의 자신

이러한 그의 선언서는 그 당시『독립신문』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면서 게재되었다.

此書는 옥중에 계신 我 대표자가 日人 검사총장의 요구에 응하여 저술한 者 中의 一인데
비밀리에 屋外로 송출한 斷片을 集合한 者라.

이 선언서는 만해의 독립사상을 간명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불교의 독립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니. 고(故)로 자유가 무(無)한 인(人)은 사해(死骸)와 같고 평화가 무(無)한 자(者)는 최고통(最苦痛)의 자(者)라. 압박을 피(被)하는 자의 주위의 공기는 분묘(墳墓)로 화(化)하고 쟁탈을 사(事)하는 자의 경애(境涯)는 지옥이 되나니, 우주 만유(萬有)의 이상적인 최(最) 행복의 실재는 곧 자유와 평화라. (중략)
고로 위압적 평화는 굴욕이 될뿐이니 진(眞)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보(保)하고, 진(眞)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반(伴)할지라 자유여 평화여 전인류의 요구(要求)일지로다.

한용운은 위와 같은 그 서문에서 자유가 인간과 만물의 생명임을 갈파하고, 자유가 유지되는 것이 평화임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독립사상의 명분을 구축하였다. 자유,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과 희생을 버리면서까지 싸우는 것이 인간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갈파하였다. 여기에서 독립의 필연성이 저절로 뚜렷해진다. 한용운은 그 글의 취지,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국가의 흥망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나라든지 제가 스스로 망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수백년 동안 부패한 정치와 조선 민중이 현대 문명에 뒤떨어진 것이 합하여 망국의 원인이 된 것이요. 원래 이 세상의 개인과 국가를 막론하고 개인은 개인의 자존심이 있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자존심이 있나니 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남의 나라의 간섭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오, 금번의 독립운동이 총독정치의 압박으로 생긴 것인줄 알지 말라.

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남의 압박만 받지 아니 하고자 할뿐 아니라 행복의 증진도 받지 않고자 하신니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라. 4천년이나 장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언제까지든지 남의 노예가 될 것은 아니라. 그 말을 다하자면 심히 장황하므로 이 곳에서 다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을 자세히 알려면 내가 지방법원 검사장의 부탁으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글을 감옥에서 지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갖다가 보면 다 알 듯 하오.¹⁶

이렇게 한용운은 민족의 자존심 차원에서 한국의 독립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도 한국의 독립은 증명되고도 남는다는 확신에 찬 소신을 거침없이 재판정에서 개진하였다. 그의 발언은 한국 민족의 의지에 의해서 독립이 되는 것이지, 일제의 탄압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용운의 3·1운동은 확고한 민족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확신하였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용운의 민족사상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무한한 신뢰, 자신, 애정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한용운은 옥중에서 재판정에서의 소신 발언, 「조선독립의 서」 집필을 통하여 독립운동 및 불교 독립사상의 논리와 당위성을 웅변적으로 피력하였다.

한편 불교 민족대표로 수감된 백용성도 옥중에서 뜻 깊은 고뇌, 결심을 하였다. 백용성은 그 당시에 깨달음을 거친 큰스님이었다. 그는 한용운의 민족대표 동참에 즉각적인 찬성 의사를 피력하였다.

먼저 말한 것과 같이 한용운 제의에 찬성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때든지 통지만 하면 어느 곳으로 가기로 약정하고 한용운은 돌아갔다.¹⁷

백용성의 위의 발언에서 민족과 독립선언에 대한 의식이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저없이 찬성하고,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는 발언에서 그의 민족의식을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그의 의식은 1919년 8월 27일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판사가 독립선언을 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 나온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독립은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또 불교사상으로 보더라도 조선의 독립은 마땅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 하여튼 조선의 독립은 용이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는 터이다.

여기에서 그의 독립의식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가 불교사상의 입장에서 독립은 마땅하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그의 민족의식이 불교 사상의 논리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처럼 백용성의 3·1운동 참여가 그의 민족의식과 불교사상이라는 정신적인 기반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그의 옥중 수감생활이 이후 그의 불교(佛敎)의 혁신(革新)과 대중화 추구의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이다. 즉 그는 옥중생활을 고통으로 인식치 않고 자기 지성의 영양분으로 활용했다.

대각응세 이천구백삼십육년 삼월일일에 독립선언서 발표의 대표 일인으로 경성 서대문 감옥에서 삼년간 철창생활의 신산한 맛을 테함하게 되었다. 각 종교 신자으로써 동일한 국사범으로 들어온 자의 수효는 물을만치 많았다. 각각 자기들의 신앙하는 종교서적을 청구하여 공부하며 기도하더라. 그 때에 내가 열람하야 보니 모다 조선글로 번역된 것이요 한문으로 그저 있는 서적은 별로 없더라.

16 「동아일보」 1920.9.25, 「공소 공판기」.

17 「3·1운동비사」 pp.141~144, 「백용성 취조서」.

라. 그것을 보고 즉시 통탄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이러케 크고 큰 원력을 세운 것이다. (중략)
 “이에 내가 만일 출옥하면 즉시 동지를 모아서 경 번역하는 사업에 전력하여 이것으로 진리 연구의 한 나침반을 지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세월을 지내다가 신유년 삼월에 출옥하여 모모인과 협의 하였으나 한사람도 찬동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비방하는 자가 많았다.¹⁸

즉 백용성은 수감생활에서 타종교의 서적이 모두 한글로 번역된 것에 큰 충격을 받고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당시 그는 한문에 대한 소용, 민중들의 한문에 대한 이해도, 시대 사조 등을 따져본 후 역경에 나설 결심을 하였다. 그는 1921년 3월 경, 출옥 후 역경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단체를 결성하였거니와 이것이 곧 삼장역회(三藏譯會)였다.¹⁹ 그후 백용성은 10종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하고, 다수의 불교사상서를 집필하였는데 민중에 다가가려는 이런 그의 고뇌, 행보가 3·1정신이었다. 지성적, 사상적인 3·1정신의 구현이었다.

3. 3·1운동 이후의 동향

1) 임시정부와 항일불교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던 때, 중국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에 청년학생들은 상해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불교계의 임시정부에서의 활동,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은 이원적인 채널에 의해서 실천되었다. 그는 3·1운동 당시 한용운의²⁰ 영향을 받아 활동한 중앙학림 계열과 이종욱(월정사)에²¹ 의한 그것이었다.

우선 전자의 내용을 정리하면²² 1919년 3월 1일, 전날인 2월 28일 한용운의 집인 유심사에서 만세운동의 동참을 당부받은 중앙학림의 학인승려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한용운으로부터 3·1운동의 적극 참가를 지시받은 중앙학림 학인들은 범어사포교당에서 자신들이 수행할 일을 협의하였다. 여기에서 불교계 중앙본부(전국불교도 독립운동 본부)의 설정(총참모 신상완, 참모는 백성욱과 박민오), 선언서 배포, 시위운동 준비, 지방 파견원 결정, 정보수집과 연락 계획, 동지규합, 운동자금 모집, 해외대표 파견, 지방운동 기획 등을 상의하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해외대표 파견이었다. 즉 3·1운동 직전에 이미 해외의 독립운동에 참가하도록 대표를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를 거치고, 중앙 및 전국적인 연고지에서 만세운동을 마친 학인들은 3월 중순 경 중앙으로 상경하여 모임을 가졌다.

3월 중순경 지방에 파견되었던 동지들은 혹은 검거되고 혹은 상경(上京)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파견된 새 동지들도 서울로 운집되었었다. 신상완(申尙琬)씨 자택을 본부로 삼고 동지의 집합은 빈번하였다. 일방으로 지방운동의 정보를 종합하여 연락 지도하는 동시에 다소의 자금도 준비되었음으로 해외와의 연락을 신상완, 백성욱 양씨가 중심이 되어 획책하였다. 4월 하순에 이르자 상해(上

18 『백용성대종사 총서』 권6, 『저술과 번역에 대한 연가』, 대각회, 2016, pp.449~450.

19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5, 2002.

_____, 『일제시대 삼장역회의 성립과 역할』, 『전자불전』 4, 2000.

20 김광식, 『전인적인 독립운동가, 한용운』, 독립기념관, 2015.

21 박희승, 『지암 이종욱』, 조계종출판사, 2011.

22 김법린, 『3·1운동과 불교』, 『신생』 창간호, 1946, pp.15~20.

海)에 우리 임시정부(臨時政府)가 성립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신상완, 백성옥, 김대용, 김법린 4인이 안동현의 이룡양행의 알선으로 상해로 밀행하였다.

불교계(佛敎界) 하비로에 있던 임시정부를 배방(拜訪)하고 제 요인(要人)을 배알(拜謁)하고 마침 안도산(安島山)선생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왔음으로 그 열렬한 애국 강연을 배청(拜聽)하였다. 북만(北滿)으로부터 오신 이동휘(李東輝)선생도 배알하여 많은 격려를 받았다.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에서 발간하던 독립신문(獨立新聞)도 애독하였다. 신백(申白) 양씨(兩氏)의 영도하에 정부의 국내파 견원(國內派遣員)으로 불교계의 운동을 지도하기로 결정하고 5월 중순 경 귀국하였다.²³

그 결과, 학인들은 신상완의 자택에서 신상완, 백성옥을 중심으로 해외 운동의 동참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4월 하순,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상완, 백성옥, 김대용, 김법린 4인이 상해로 밀행하였다. 상해에 도착한 그들은 임시정부를 찾아가 여러 독립지사를 만나고 안창호, 이동휘에게 감명을 받았다. 학인들은 임정의 국내파견원으로 귀국하여 불교계 독립운동을 선도하기로 결정하고 5월 중순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그들은 그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임정과 연결되고, 임정에 재차 들어가면서 독립운동의 일선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학인들의 이와 같은 임정과 연계 활동은 3·1운동 직후부터 중앙 불교계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백초월을²⁴ 정점으로 추진되었다. 아래의 기록에서 그를 알 수 있다.

백초월(白初月)은 승려로 있는 몸인데 불구하고, 항상 불온사상을 품고 국권회복을 몽상하여 은근히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금년 봄 소요(騷擾) 발발한 이래 해외동포는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혹은 러시아, 또는 중국 영토에서 독립군을 일으키고, 또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등 오직 독립운동에 활약하고 있으며, 선내(鮮內)에 있어서도 예수교 및 천도교들은 매우 이에 원조를 하고 있으나, 다만 불교도(佛敎徒)만은 이에 무관심하고 있음을 크게 유감지사로 생각하여, 금년 4월 경 성에 들어와 시내 각처에 잠재하면서 우선 불온문서를 간행하여 인심을 교란시킬 계획으로 한국민단본부(韓國民團本部)라는 단체를 경성 중앙학림(中央學林) 내에 설치하여 스스로 민단부장(民團部長)이 되어 자금과 부원 모집에 분주하였으며²⁵

즉 백초월은 1919년 4월부터 불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로 잠입하였다. 그는 서울에 한국민단본부(韓國民團本部)라는 단체를 중앙학림 내에 설치하고, 책임자가 되어서 그 자금과 부원들을 모집하는데 분주하였다. 더욱이 백초월은 상해 임정에도 6명의 부원을 보냈다고 전하는데, 이런 정황은 중앙학림 학인들의 움직임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 민단본부는 3·1운동 직후에 중앙학림의 학인들이 조직하였다는 전국불교도(全國佛敎徒) 독립운동(獨立運動) 본부(本部)와 같은 단체이다.²⁶ 즉 백초월과 중앙학림의 학인들이 결합되어 전국 불교계를 통할하면서 불교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조직체였다. 이처럼 3·1운동 직후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중앙학림 계통의 학인들은 상해 임시정부에 연결되어 독립운동을

23 위의 자료, p.18.

24 백초월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고가 참고된다.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39집, 2003.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집, 2010.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일심교」 『정토학연구』 16집, 2011.

25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제1권 분책, pp.219~220, 1919년 12월 5일자 「독립운동 자금 모집자 검거의 건」 참조.

26 김상호, 「3·1운동에서 8.15광복까지 숨어 있던 이야기 ;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 《대한불교》 1964. 8.23.

추진하였다. 그 국내 조직체는 불교 독립운동본부가 표방한 민단본부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백초월과 신상완이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계통 이외에도 임정과 연결되었던 대상이 있었다. 그는 월정사 출신 항일 승려인 이종욱이었다.²⁷ 이종욱은 중앙학림의 전신인 명진학교를 1906년에 입학한 중견승려이었다. 월정사 강원의 강사를 하던 그는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²⁸ 그는 3·1운동 직후에는 매국 오적을 처단하는 27절사대에 참여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한성 임시정부에 불교계 대표로 참가하였다.²⁹ 그는 구암사 출신의 강백인 박한영과 한성 임시정부에 참여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자 1919년 4월, 상해로 망명하였다. 이종욱은 그를 따르던 항일 승려인 용창은(월정사), 정남용(건봉사), 송세호(도리사) 등을 상해 임정으로 연결시켰다. 요컨대 이종욱은 앞서 살핀 중앙학림 계통과는 별개로 임정에 연결되었다. 이와 같이 이원적 구성으로 움직였던 승려들의 임시정부를 배경, 연결되어 수행한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정요인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특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종욱과 송세호는 내무부·재무부 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각 처의 특파원으로 국내에 파견되었다. 신상완도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다. 항일 승려들이 특파원, 임정요인으로 활동하였음은 불교가 독립운동의 최일선에서 활약하였음을 말해준다. 특파원은 특수정보원으로서 국내와의 연결고리이다. 이들에게는 항일성, 독립운동의 치열성, 임정의 신임 등이 있었다. 이런 특파원에 승려들이 활동하였음에서 항일불교의 선명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상해 임정과 연결된 독립운동 단체인 대동단, 청년외교단 등에서 활동한 승려(정남용, 송세호 등)도³⁰ 있었다.

둘째, 독립사료를 제공하였다. 임정에서는 독립운동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료집을 발간하였다. 사료집을 펴내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절대로 요청되었다. 1919년 6월 경, 국내에 있었던 승려들에게 자료를 수집하여 임정으로 보내라는 지령이 내려졌다. 이런 소식을 접한 김법린은 국내로 잠입하여 갑신정변 이후부터 1910년 국망까지의 기간에서 사료를 수집하였다. 이때 해인사의 승려 임환경을 비롯한 7~8명의 승려도 작업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 기사와 여타 기록을 초록하였다. 학승들은 노동자로 위장하여 임정의 비밀루트를 통해 자료를 전달하였다.

셋째, 항일 신문인 『혁신공보』를 발행하였다. 임정을 배경으로 불교가 수행한 활동 중에서 특기할 것은 『혁신공보』라는 비밀신문을 제작, 배포한 것이다.³¹ 임정을 다녀온 직후, 학인승려들은 해외 독립운동의 소식을 국내에 신속히 전하는 비밀신문을 제작,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팀을 조직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이를 수행하였다. 서울에서 간행, 만주 안동현에 주재하면서 정보와 자료를 국내에 전달하는 역할, 지방 배포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상해 임정에 있었던 신상완, 백성욱은 신문 및 정보를 안동현에 있는 동지에게 제공하였다. 이렇게 상해 임정 - 만주 안동현 - 서울(제작) - 지방 배포이라는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여 간행하였다. 『革新公報』는 국내 독립운동계에 환희와 격려를 주었다.

넷째, 독립자금 지원과 불교계 대표 파견이다. 불교계가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독립자금(군자금) 지원이다. 학인 승려들은 임시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군자금(軍資金) 모금운동(募

27 박희승, 「일제강점기 상해임시정부와 이종욱의 항일운동 연구」 『대각사상』 5집, 2002.

이현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종욱」 『대각사상』 10집, 2007.

박희승, 『조계종의 산파, 지암 이종욱』 조계종출판사, 2011.

28 이종욱, 「삼일운동의 회고」 『동아일보』 1958.3.1.

29 고정효, 「세칭 한성정부의 조직주체와 선포경위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97, 1997, p.179.

30 장석흥, 「대한민국청년외교단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1988.

_____, 「대동단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31 그런데 『혁신공보』의 성격, 발간 주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金運動)으로 불렸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독립운동 차원에서의 운동이었음을 뜻한다. 이런 인식 하에 불교계에서는 그를 적극 추진하였다. 자금 지원에 나선 범어사, 통도사, 화엄사 등의 수 많은 사찰의 승려가 있었다. 또한 불교 대표의 파견도 독립운동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그는 아래 기록이 참고된다.

신상완씨의 지령(指令)에 의하여 교계(敎界)의 기덕(耆德)중 대표자를 상해 임정에 파견키로 되어 김상현, 김상호 양 동지(同志)가 동서로 분주한 결과 8월 중순인가 김포광(金包光) 강백(講伯)을 밀파(密派)하였다. 대원(隨員)으로 김상현씨가 동행하였는가 한다. 제산(諸山)의 기덕점위(耆德僉位)는 이 대표 파견과 운동 자금의 조달에 가륙한 숨은 정성을 다하였다.³²

여러 사찰의 승려들이 수 많은 자금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고, 김포광(金包光)·강백이 불교 대표로 상해 임정에 파견되었음도 알 수 있다. 신상완의 연락을 받은 한국민단 본부에서는 논의를 거쳐 김포광을 선정했다.

이러는 한편으로 상해 임시정부(臨時政府)에 불교대표(佛敎代表)의 파견이 요청되었다. 동 본부(本部)에서는 신상완, 김봉신, 김상현, 필자 등이 모여 파견할 대표 김포광(金包光) 강백(講伯)을 선발하여 8월 초순 특파(特派)하였다.³³

이렇듯이 불교대표로 김포광이 파견되었음은 불교 독립운동의 위상이 간단치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범어사 중건인 이담해, 오성월, 김경산을 임정 고문으로 위촉하였다.³⁴

다섯째, 승려 독립선언서 발표 및 의용승군제 추진이다.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그 연계를 갖고 추진한 불교 독립운동의 핵심은 승려독립선언서 발표 및 의용승군제 추진이다. 1919년 11월 15일,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大韓僧侶聯合會宣言書)’가 발표되었다. 선언서는 임정으로 망명하여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을 지속하려는 불교계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선언서는 한글(국한문), 한문, 영문의 3개 언어로 기술되었고 활판 인쇄로 작성되었다.³⁵ 여기에서는 한글(국한문)로 된 선언서 전문을 제시한다.

선언서(宣言書)

한토(韓土)의 수천 승려(數千僧侶)는 이천만(二千萬) 동포(同胞) 급(及) 세계(世界)에 대(對)하여 절대(絶對)로 한토(韓土)에 재(在)한 일본(日本)의 통치(統治)를 배척(排斥)하고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독립(獨立)을 주장(主張)함을 자(玆)에 선언(宣言)하노라.

평등(平等)과 자비(慈悲)는 불법(不法)의 종지(宗旨)니 무릇 차(此)에 위반(違反)하는 자(者)는 불법(佛法)의 적(敵)이라. 그러하거늘 일본(日本)은 표면(表面) 불법(佛法)을 숭(崇)한다 칭(稱)하면서 전세기(前世紀)의 유물(遺物)인 침략주의(侵略主義) 군국주의(軍國主義)에 탐닉(耽溺)하여 자조 무명(無名)의 사(師)를 기(起)하여 인류(人類)의 평화(平和)를 소란(騷亂)하며 한갓 그 강폭(强暴)함만 시(恃)하고 교화(敎化)의 은(恩)을 수(受)한 린국(隣國)을 침(侵)하여 그 국(國)을 멸(滅)하며 그 자유

³² 위의 김법린 회고 글.

³³ 위의 김상호 회고.

³⁴ 김상호가 임명장을 갖고 귀국하였다.

³⁵ 한문은 ‘선언서(宣言書)’로 영문은 ‘The Manifesto of the Korean Buddhist’로 되어 있다. 영문에는 대표자 범명도 영어로 기재되어 있다.

(自由)를 탈(奪)하며 그 민(民)을 학(虐)해야 이천만(二千萬) 생명(生靈)의 원성(冤聲)이 오오(嗷嗷)하며 특(特)히 금년(今年) 삼월 일일(三月 一日) 이래(以來)로 대한민족(大韓民族)은 극(極)히 평화(平和)로운 수단(手段)으로 극(極)히 정당(正當)한 요구(要求)를 구호(叫號)할새 일본(日本)은 도저히 더욱 폭학(暴虐)을 사행(肆行)하야수만(數萬)의 무고(無辜)한남녀(男女)를 학살(虐殺)하니 일본(日本)의 죄악(罪惡)이 사(斯)에 극(極)한지라 아등(我等)은 이미 더 침묵(沈默)하고 더 방관(傍觀)할 수 업도다.

일즉 전민족(全民族) 대표(代表) 삼십삼인(三十三人)이 불교선언(獨立宣言)을 발표(發表)할새 아 불도(我 佛徒) 중(中)에서도 한용운(韓龍雲) 백용성(白龍城) 양(兩) 승려(僧侶) - 차(此)에 참가(參加)하였고 그 후(後)에도 아(我) 불도(佛徒) 중(中)에서 신(身)과 재(財)를 헌(獻)하야 독립운동(獨立運動)에 분주(奔走)한 자(者) - 다(多)하거니와 일본(日本)은 일향(一向) 전과(前過)를 참회(懺悔)하는 양(樣)이 무(無)할 뿐더러 혹(或)은 경관(警官)을 증가(增加)하고 군대(軍隊)를 증파(增派)하야 더욱 억압정책(抑壓政策)을 취(取)하고 일변(一邊) 부정(不正)한 수단(手段)으로 적자배(賊子輩)를 구사(驅使)하야 일일(一日)이라도 그 악(惡)과 이천만(二千萬) 생명(生靈)의 고뇌(苦惱)를 더 깊게 하려 하니 이제 아등(我等)은 더 인견(忍見)할 수 업도다. 불의(不義)가 의(義)를 염(厭)하고 청생(蒼生)이 도탄(塗炭)에 고(苦)할 때에 검(劍)을 장(仗)하고 기(起)함은 아(我) 역대(歷代) 고조(古祖) 제덕(諸德)의 유풍(遺風)이라. 하물며 신(身)이 대한(大韓)의 국민(國民)으로 생(生)한 아등(我等)이리오. 원(願)컨대 불법(佛法)이 한토(韓土)에 입(入)한지 우금(于今) 이천년(二千年)에 이조(李朝)에 지(至)하여 다소(多少)의 압박(壓迫)을 수(受)함이 유(有)하였다 하더라도 기타(其他)의 역대(歷代) 국가(國家)는 모다 차(此)를 후호(擁護)하야 그 발달(發達)의 융성(隆盛)함이 세계불교사상(世界佛教史上)에 관절(冠絕)하였나니 피(彼) 일본인(日本人)을 불타(佛陀)의 자비(慈悲) 중(中)에 인도(引導)한 자(者)도 실(實)로 아(我) 대한불교(大韓佛教)라. 임진왜란(壬辰倭亂) 기타(其他) 위급(危急)의 시(時)에 여러 조사(祖師)와 불도(佛徒)가 신(身)을 희생(犧牲)하야 국가(國家)를 옹호(擁護)함은 역사(歷史)에 소상(昭詳)한 바이어니와 이는 다만 국민(國民)으로 국가(國家)에 대(對)한 의무(義務)를 진(盡)할 뿐이라. 국가(國家)와 불교(佛教)의 깊고 오랜 인연(因緣)을 인(因)함이니라. 일본(日本)이 강포(強暴)하고 그 궤환(詭譎)한 수단(手段)으로써 한국(韓國)을 합병(合併)한 이래(以來)로 한국(韓國)의 역사(歷史)와 민족적(民族的) 전통(傳統) 급(及) 문화(文化)를 전혀 무시(無視)하고 각(各)방면(方面)에 대(對)하야 일본화(日本化) 정책(政策) 급(及) 압박정책(壓迫政策)으로써 한족(韓族)을 전멸(全滅)하려할새 아(我) 불도(佛徒)도 그 독수(毒手)의 희생(犧牲)이 되여 강제(強制)의 일본화(日本化)와 가혹(苛酷)한 법령(法令)의 속박(束縛) 하(下)에 이천년래(二千年來) 한토(韓土)의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로 누리던 자유(自由)를 실(失)하고 미기(未幾)에 특유(特有)한 아(我) 역대(歷代) 조사(祖師)의 유풍(遺風)이 인멸(湮滅)하야 영광(榮光)잇던 대한불교(大韓佛教)는 멸절(滅絕)의 참경(慘境)에 함(陷)하려 하도다.

이에 아등(我等)은 기(起)하였노라. 대한(大韓)의 국민(國民)으로서 대한국가(大韓國家)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완성(完成)하기 위(爲)하야 이천년래(二千年來) 영광(榮光)스러운 역사(歷史)를 가진 대한불교(大韓佛教)를 일본화(日本化)와 멸절(滅絕)에 구(救)하기 위(爲)하야 아(我) 칠천(七千)의 대한승니(大韓 僧尼)는 결속(結束)하고 기(起)하였노니 시사보국(矢死報國)의 이 발원(發願)과 중의경생(重義輕生)의 이 의기(意氣)를 뉘 막으며 무엇이 막으리오. 한번 결속(結束)하고 분기(奮起)한 아등(我等)은 대원(大願)을 성취(成就)하기까지 오직 전진(前進)하고 혈전(血戰)할뿐인더.

대한민국(大韓民國) 원년(元年) 십일월(十一月) 십오일(十五日)
 대한승려연합회(大韓僧侶聯合會)
 대표자(代表者) 오만광(吳卍光) 이법인(李法印) 김축산(金鷲山)
 강풍담(姜楓潭) 최경파(崔鯨波) 박법림(朴法林)
 안호산(安湖山) 오동일(吳東一) 지경산(池擎山)
 정운봉(鄭雲峯) 배상우(裨相祐) 김동호(金東昊)

위의 승려선언서는 불교 독립운동사, 임정을 배경으로 한 불교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었다. 선언서의 집필자는 백초월, 신상완, 이종욱 등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다.³⁶ 상해를 왕래하던 일단의 승려들은 선언서를 제작 배포하면서 동시에 의용승군제를 추진하였다. 즉 항일 승려들은 승려의 단결, 불교의 독립운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선언서 및 임시의용승군제를 작성하였는데 임시정부(안창호)의 동의가 있었다. 요컨대 대한승려연합회의 선언서는 1919년 10~11월 경 임정에 망명한 항일승려들의 협의, 주도에 의해서 작성되었는데, 3·1운동에 참여한 불교의 사상을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상이다.³⁷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임시정부와 연결, 배경으로 하였던 불교의 독립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런 활동은 불교의 3·1운동사, 민족운동사에서 특기할 내용이었다.

2) 만주 독립군의 참여

불교계의 임정과 관련 활동은 만주지역 독립군의 연계에도 나타났다. 3·1운동 직후, 3·1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은 만주지역 독립군에도 참가하였다.

또 조국광복을 위한 무력을 기르는 동포들이 설립한 만주의 군관학교에는 박달준, 강재호, 박영희, 김봉을을 파견하여 임전의 실력을 기르도록 하였다.³⁸

그런데 만주 독립군에 파견된 학생들은 국내 불교독립운동의 책임자인 백초월과 연결되었다. 백초월의 행적을 전하는 일제측 기록에 “조선인 청년에게 여비를 급여하여 11명을 길림성 독립군에게, 6명을 상해 가정부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주소 성명은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³⁹ 것이 그를 예증한다.⁴⁰

만주 독립군 부대에서 활약한 승려들이 있었음은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한 박달준의 자필 이력서와 박영희의 자서전에도 나온다. 박달준은 3·1운동 당시 해인사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신흥무관학교에 참가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³⁶ 백초월 설은 김광식, 김순석이 주장하였고 신상완 설은 한동민이다. 박희승은 이종욱을 중심으로 한 상해지역 불교인들의 공동 저작으로 보고 있다.

³⁷ 한동민은 의용승군제는 신상완의 주도했다고 본다. 위의 한동민 「일제강점기 신상완의 독립운동」 논고, p.170.

³⁸ 위의 김상호, 「한국불교 항일투쟁 회고록」.

³⁹ 위의 일제 비밀 첩보문 「독립운동 자금 모집자 검거의 건」, 『조선독립운동』 제1권 분책.

⁴⁰ 백초월은 주석 사찰인 진관사에서 수계법회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상해 및 만주로 가는 학생들에게 군자금으로 제공하였다. 줄고,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p.59.

서울 연락이 유(有)하여 박달준(朴達俊) 김봉율(金奉律) 이창욱(李昶旭) 이덕진(李德珍) 김성수(金成秀)(청산리전 전사) 이종인(李宗仁) 손덕병(孫德炳) 김양오(金陽午) 등은 상경(上京)하여 임정부(臨政府)의 지시로 청년들은 앞으로 군사훈련을 필수(必受)토록 되어 만주(滿洲) 유하현 삼원보 소재 임정(臨政) 제일군정서(第一軍政署)에 도착 동지(同地)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에 입학(入學)하다. 1920년 3월 1일까지 고등 군사교육(高等 軍事教育)을 수(受)하고⁴¹

박영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달준이 회고한 것과 거의 흡사하다.

나는 3·1독립운동 이후 지도부의 지시로 여러 명의 청년(대부분 학생들이었다)들과 출국대열에 합류하였다. 나는 신흥 무관학교로 출발하기 전 3일간 훈련을 받았다. 당시훈련의 내용은 線, 즉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연락처 및 암호, 중국의 풍습을 연습하고 암기하는 정도를 교육받았다. 1919년 4월 초 어느날 오전 10시 경에 경성 역(지금의 서울역)에서 신의주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요컨대 임시정부의 지시로 학생들이 만주지역 독립군부대인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였다는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훈련을 받고 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청산리전투에 참여하였다. 3·1운동 후, 만주의 군정부는 서로군정서로 변경되고, 상해 임정 산하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바로 이 무렵에 신흥무관학교는 기존의 합니하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삼원포, 고산자 부근으로 이전하였다. 그 때 신흥무관학교의 분교에서는 3개월 간의 속성 군사훈련을 시키는 교육과정을 두었다.

항일 승려들이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한 시점은 1919년 4~5월 경이었다. 1년과정의 군사과를 수료한 항일 승려들은 교관으로 활동하면서,⁴² 청산리전투에도 참가하였다. 일부의 항일 승려들은 국내로 잠입하여 군자금 모금, 선전활동에 나섰다. 그들 중 일부는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런 구도에서 국내로 나온 항일 승려인 박달준, 김장윤, 김봉율, 신상완 등의 활동은 『동아일보』, 『독립신문』에⁴³ 보도되었다.

3) 불교 자주화

3·1운동 이후 불교계의 민족의식은 고양되고, 널리 파급되었다. 이는 3·1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자긍심과 사회 전반에 퍼진 민족의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1운동 직후 불교계에서는 불교 내적인 문제에 자각을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불교운동을 추동해 갔다. 그 운동은 대략 두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불교의 문제점, 모순을 개선할 조직체를 우선 조직하였다. 둘째는 새롭게 출범한 단체를 중심으로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나온 것이 사찰령 철폐운동, 종단건설 운동, 전통불교의 수호 등이었다.

불교의 문제를 개혁하려는 의도에서 등장한 단체는 1920년 6월, 각황사에서 출범한 조선불교청년회였

41 「박달준이력서」;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1-001553- 000).

42 서종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0, pp.202~ 203.

43 「독립신문」1920.6.10, 「독립자금을 모집하던 김대흥 외 사씨(四氏)」.

「동아일보」1921.3.4, 「사찰로 다니며 군자청구」.

「동아일보」1927.10.15, 「종로서에 검거 승려군자원」.

「법보신문」1996.8.21, 「독립유공자 봉를스님 생애 재조명」.

다. 전국적인 조직망(지회)을 갖고 등장한 조선불교청년회는 토론회, 강연회, 순회 강연회, 운동 경기 등을 통해 자체 내의 조직을 강화하면서, 불교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활동에 나섰다. 특히 그 당시 불교의 문제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별동대인 조선불교유신회도 만들었다. 2천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었던 불교유신회는 기존 종단에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런 활동은 당시 불교계의 방향, 노선을 추동하는 강력한 단체로 등장케 하였다.

불교청년들이 추구한 첫 번째 활동은 사찰령 철폐운동이었다. 조선불교청년회는 2284명이 연서한 건백서에 사찰령이 불교의 모순임을 전제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령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건백서를 1922년 4월, 일제 당국에 제출하였다. 사찰령에서 규정한 본말사 제도, 주지층의 권한 강화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 건백서를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건백서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통일기관의 건설이었다. 일제는 사찰령 체제에서 한국불교의 자주적인 종단의 설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불교를 전국의 30본산으로 나누어 놓고, 그를 각 도지사 와 총독부가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두었던 것이다. 불교계에 연락사무소, 연합기관이 있었지만 이는 총독부와 본사를 연결하고, 식민지 불교정책을 위한 지시와 통제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즉 자주적인 운영이 부재하였다. 자생적, 자주적인 종단 운영 자체가 불허되었다. 그래서 불교청년들은 30본산, 불교 전체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에 두자고 하였다. 이는 자주적인 종단건설 운동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불교계 내부에서는 통일기관 설립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갈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청년들은 통일기관을 지향하는 기관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총무원(總務院)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친일적인 주지층을 추동하여 일제를 인정하면서 불교사업을 추진하는 재단법인체인 교무원(敎務院)을 출범시켰다. 이로써 총무원과 교무원은 대립되었다. 그러나 1924년 경에는 총무원이 교무원에 합류됨으로써 종단 건설운동은 후퇴하고 말았다.

3·1운동의영향이라는 자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은 전통불교 수호의 행보이었다. 일본불교가 침투한 10년간 일본불교의 신행, 관행이 널리 퍼져 나갔다. 그 구도에서 일본불교의 상징인 대처식육(帶妻食肉)이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이는 전통불교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부의 수좌, 율사, 포교사 등 불교의 천양의식이 투철한 승려들은 전통불교를 수호하면서 불교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는 행보를 갔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송만공, 김석두, 백용성, 오성월, 백학명 등 80여명이었는데 이들은 1921년 12월, 서울 안국동에 선학원(禪學院)을 창건하였다. 이어서 수좌들은 선학원에 본부를 두면서 자주, 자조의 수행을 기치를 내걸은 모임인,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를 1922년 3월에출범시켰다. 이 단체는 중앙에 서무부, 수도부, 재정부를 두고 전국의 선원을 지회로 두었는데, 3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외면으로는 전통불교 수호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처식육을 반대하면서 철저한 수행을 하고, 중생교화 및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행보를 갔다. 그러나 1925년 경에 이르러 본부를 직지시로 이전시키고, 재정적인 난관을 이기지 못하고 퇴진의 길로 갔다. 1931년에 재기하여 선의 대중화를 표방하면서 한국불교의 수행 풍토 진작, 계율 수호 등에 나섰다.

한편 백용성은 1925년에 만일참선결사회(萬日參禪結社會)를 망월사에 두어 선율겸행(禪律兼行)을 강조하고, 1926년에 대처식육(帶妻食肉)의 반대 건백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도 선학원 노선과 유사한 행보이었다. 백용성은 옥중에서 결심한 대중을 위한 역경 작업을 무소의 뿔처럼 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3·1운동 직후 불교계는 불교의 자주화, 전통불교의 수호, 수행풍토의 진작 및 개신의 길을 걸어 갔다. 이런 행보는 3·1운동이라는 민족의식의 거대한 조류에 참여한 산물이었다.

4. 결어

지금까지 3·1운동과 불교라는 주제에 맞추어 역사적 맥락에 유의하여 당시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제 맺는말은 전술한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역사적 의의를 간략히 피력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3·1운동의 발발 초기, 중앙 차원에서 불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용운을 채널로 하여 천도교가 추진하였던 운동의 중심부에 당당히 들어 갔던 것이다. 그래서 2명의 민족대표, 공약삼장 추서, 중앙학림 승려들의 가담 등을 이끌어 냈다. 이 같은 적극적 행보는 1910년대 불교계 청년들의 민족의식 성장, 종단의식의 자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둘째, 전국 각 사찰에서는 3·1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3·1운동의 전국화, 보편화의 구도에 발맞추어서 각 사찰의 학인 승려, 청년승려들은 중앙에서의 연락, 전달, 권유를 받았지만 자생적으로 만세운동을 만들었다. 사찰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인근 주민들과 결합하여 만세운동을 추동하였다. 특히 해인사 사례에서 나타나듯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려는 의식, 행보가 투철하였다. 이런 행보에서 유의할 것은 사찰, 승려, 지역 주민들이 결코 유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지금 불교계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셋째, 한용운과 백용성이 보여준 옥중투쟁, 지성은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행보이었다. 한용운은 재판정, 옥중에서 철저한 항일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런 산물로 기념비적인 「조선독립의 서」라는 논설을 짓고, 그를 유출시켜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에 수록케 하였다. 이는 역사적 쾌거라 하겠다. 백용성도 옥중에서 대중을 위한 역경을 발원하였다. 이 자각도 불교대중화를 위한 지성이었다.

넷째,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한 불교의 독립운동은 다양하고, 철저하였다. 불교인들은 군자금 제공, 독립사료 제공, 항일신문 제작, 불교대표의 임정에 파견, 특파원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불교 독립운동본부의 운용, 승려독립선언서의 배포, 의용승군제의 추진 등은 민족불교의 이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었다.

다섯째, 만주 독립군에 참여한 청년승려들이 있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서산대사, 사명당이 보여주었던 실천적 행보를 계승한 것이었다. 자발적으로 독립군에 가담하고, 독립군의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 사찰을 순행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다.

여섯째, 3·1운동 직후 불교계에서는 3·1정신을 계승, 실천하려는 행보를 다양하게 걸어 갔다. 조선 불교청년회가 추진한 사찰령 철폐운동, 통일기관 설립 노력, 수좌들이 선학원의 창건을 통한 전통 선 수호의 행보, 백용성이 추진한 만일 참선결사회와 역경 그리고 대처식육 반대 건백서도 3·1정신의 실천이라는 구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즉 민족운동의 구도에 포함되었다.

지금껏 3·1운동에 불교가 관련, 참여하였던 제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 같은 정리를 통하여 필자는 그 운동, 행보에 담겨 있는 이념은 민족불교였음을 거듭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3·1만세운동과 불교에 대한 논찬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이 글을 통해 불교계의 3·1운동과 민족불교의 다양한 면모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불교사의 전개에서 근현대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이 분야 연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공헌 덕분에 이 시기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김광식교수님은 20여 권의 저서를 펴내는 등 한국 근현대불교 연구의 권위자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큰 공로를 세웠다. 특히 근현대불교의 고승 탐구에 관해서는 단연 독보적인 역량으로 역사 속에 묻혀 있던 수많은 고승대덕을 발굴, 현창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3·1운동과 불교를 논구한 이 글에서도 한용운, 백용성, 백초월, 김법린, 이종욱 등 고승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고승 탐구의 확대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논평자는 이 분야에 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다. 다만 십여 년 전부터 교수님의 뒷굽치를 바라보며 따라다니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따라서 논평자의 자격이 아니라, 논문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고 불교계의 독립운동과 정신이 올바르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족을 덧붙일 뿐이다.

1. 불교계의 국채보상운동

불교계의 항일운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¹ 항일운동의 범주에 불교계의 국채보상운동을 포함시켰다. 즉 1907년 불교연구회에서 국채보상을 결의하였고, 이때부터 1908년까지 건봉사, 유점사, 용주사, 해인사, 표충사 등에서 모금활동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국채보상운동도 마땅히 항일운동에 포함시켜야 할듯한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2. 왜색불교의 청산

발표자는 3·1운동의 영향으로 전통불교 수호 활동이 전개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왜색불교의 상징

¹ 한동민, 「3·1운동과 불교계의 항일운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5』,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6.

인 ‘대처식육’에 대한 반대가 포함되었고, 그 사례로 선학원과 선우공제회의 출범, 그리고 대처식육에 반대하는 백용성의 건백서 제출 등을 들었다. 즉 대처식육으로 대표되는 일본불교로부터 벗어나 전통불교를 수호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한용운은 승려의 결혼을 주장하였다. 3·1운동의 핵심인물인 한용운이 3·1운동 정신의 계승이라 할 수 있는 대처식육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적극 주장하였다. 단순하고 억지스럽게 말하면, 한용운은 ‘反독립운동적 행위’를 한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많은 독립운동가들

이 글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들이 제외된 듯하다. 예를 들면 봉선사 출신의 운암 김성숙(1898~1969)이다. 운암은 2008년 4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고, 최근에는 그에 관한 연구성과가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불교계의 독립운동사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4. 그 밖에

- 한용운의 「조선독립의 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 정확한 명칭.
-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 본문에는 전 민족대표 33인이라 하였는데, 말미의 명단은 12인만 명기되어 있다. 나머지 21인은 익명인지.

書

3·1만세운동과 기독교

1. 머리글
2. 3·1운동의 역사·신학적 배경
 - 1)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 2) 국내외 기독교 조직과 연絡망
3. 3·1운동 준비단계에서 기독교 역할
 - 1) 민족대표 구성과 역할
 - 2) 교파와 종파를 초월한 연대운동
 - (1) 민족대표 구성과정
 - (2) 운동방법론: 선언이나? 청원이나?
 - (3) 운동 경비 지원과 거사일 결정
4. 맺음글

발표 _ 이덕주 (감신대 교수)

논찬 _ 장규식 (중앙대 교수)

3·1만세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종교연대를 중심으로

이덕주

감신대 교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1. 머리글

3·1운동은 일본의 한국 침략과 지배에 대한 한민족의 저항운동이자 자주권 확보를 위한 민족적 항일 투쟁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3·1운동의 정치적, 사회적 대중 저항운동의 성격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의 종교적 성격과 의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이 운동의 이념적 근거와 운동조직 형성, 운동의 전개와 확산 과정에서 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 3·1운동 준비(모의) 과정에서 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2) 3·1운동의 핵심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이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3) 독립선언 이후 서울과 지방에서 전개된 대중 투쟁 단계에서 종교인과 종교 조직이 운동의 전개와 확산과정에서 촉매와 연락망이 되었고, 4) 그 결과 만세시위에 참여한 종교인과 종교 조직이 일본 경찰 및 사법 당국의 집중적인 견제와 탄압을 받음으로 종교 박해의 양상을 띠었다는 점 등에서 3·1운동을 ‘종교저항운동’ 내지 ‘종교적 민족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글은 ‘3·1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물을 바탕으로¹ 기독교인들

¹ 지금까지 ‘기독교와 3·1운동’이란 주제로 발표된 학술 논문이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기념하여 동아일보사에서 편찬한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東亞日報社, 1969)에 실린 김양선(金良善)의 “三一運動과 基督教界”란 논문을 들 수 있는데 김양선은 이 논문을 통해 기독교계가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기독교계 민족대표 16인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3·1독립선언 준비과정, 그리고 3월 1일 거행된 독립선언식과 그 이후 진행된 지방의 만세시위와 교회의 수난, 선교사들의 협조와 임시정부 수립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역할 등 ‘기독교와 3·1운동’이란 주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었다. 비록 3·1운동 관련 당사자들의 재판기록과 증언 등 1차 사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김양선이 10대 소년(12세)의 나이로 의주에서 직접 3·1운동을 목격했던 ‘경험 세대’로서 3·1운동과 관련한 기독교계의 역할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었다. 이후 1986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가 펴낸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종로서적, 1986)에 실린 김형석의 “한국 기독교와 3·1운동”이 발표되었다. 김형석은 이 논문에서 3·1운동의 배경으로 서북 기독교계의 민족운동을 언급한 후 3·1운동의 발발과 전개, 선교사들의 역할,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와 만주 안동현지역 독립운동 등을 정리하였는데 앞선 김양선의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재판기록과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를 반영하여 3·1운동을 전후한 기독교계와 민족독립운동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이 논문의 부제처럼 “서북지방의 기독교 민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담고 있다. 그리고 3·1운동 70주년을 맞아 1989년 2월 한국기독교사연구회가 “3·1운동과 기독교”란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던바 여기서 이만열의 “3·1운동에 대한 기독교사적 이해”와 윤경로의 “3·1운동 참가계층의 기독교적 맥락과 운동양태”, 김승태의 “종교인의 3·1운동 참여와 기독교의 역할”, 이덕주의 “3·1운동 이념과 기독교 신앙문제” 등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3·1운동과 기독교’란 주제와 관련된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졌다(『韓國基督教史研究』 제25호,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4). 이 시기 윤경로는 “기독교가 3·1운동에 미친 영향과 그의 재조명-3·1운동에서의 기독교

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3·1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종교간 연대’(Interreligious solidarity) 과정을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3·1운동의 준비(모의) 단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역할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기독교인들의 역사의식과 민족주의 신앙관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미 한말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적 성격과 기능이 3·1운동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제의 식민통치 상황에서 종교가 민족운동의 구심점으로서 민족국가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종교 민족주의’(religious nationalism) 기능을 발휘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² 그리하여 3·1운동을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 그 종교사회적(religious-social) 기능을 발휘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1운동 모의단계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사이의 연대를 살펴봄으로 교파간, 종교간 갈등과 분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오늘의 시대상황에서 교회 일치 및 종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3·1운동의 역사·신학적 배경

1)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1880-90년대 한국에서 기독교(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때 우리 민족은 근대화와 자주독립이라는 두 가지 정치·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전자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봉건적 사회체제와 질서가 붕괴되고 이를 대체할 근대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이었고 후자는 한반도 지배를 노리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가 확인되던 시점에 해외에서 인쇄된 한글성경과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전파된 기독교는 ‘자유와 해방과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원리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유와 평등’ 관점에서 봉건적 신분철폐와 남녀평등을 실천하였고 ‘자유와 해방’ 관점에서 외세, 특히 일제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종교·사회적 변화를 희구하는 한국인들이 기독교 복음과 함께 선교사들을 통해 유입된 서구 문화와 문명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현상이 되었고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한 근대적 시민사회운동을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

의 역할”(『3·1운동과 한국교회의 역사참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89)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계속해서 한국기독교사연구회의 후신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3·1운동 80주년을 2년 앞둔 1997년 3월, 3·1운동과 관련하여 기독교회가 당한 대표적인 수난 현장인 수원 제암리교회에서 ‘3·1운동과 제암리사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던바 여기서 이만열은 “3·1운동과 기독교”란 제목의 기조 강연을 통해 1) 3·1운동의 역사적 의미, 2) 3·1운동 참여에 대한 기독교 시각, 3) 3·1운동(준비단계와 전국화 단계)에서 기독교의 역할, 3) 기독교가 3·1운동에 참여한 원인 등을 언급하며 ‘3·1운동과 기독교’ 관련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한국기독교와 역사』 제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8). 그리고 주제 논문으로 윤경로의 “제암리교회 사건의 역사적 배경”, 이덕주의 “3·1운동과 제암리사건”, 서정민의 “제암리교회 사건에 대한 일본측 반응”, 김승태의 “제암리교회 사건과 서구인들의 반응” 등을 발표하여 제암리교회 사건을 중심으로 ‘3·1운동과 기독교’ 관련 연구의 심층적 지평을 넓혔다(이 논문들은 1년 후 일본 고베의 청년학생센터에서 『三・一獨立運動と堤岩里教會事件』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계속해서 필자는 3·1운동과 관련하여 후속 연구로 “3·1운동의 이념과 운동노선에 관한 연구-33종의 독립선언서를 중심으로-”(『기독교사상』, 1988.3),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기독교사상』, 1990.3), “기독교와 민족운동-3·1운동 대중투쟁단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세계의 신학』 제47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6), “익산 3·1만세운동과 기독교”(2002.4), “공주지방 3·1운동과 기독교”(2015.3), “강경지방 3·1운동과 기독교”(2016.3)등을 발표했다.

² ‘종교민족주의’란 개념은 20세기 후반 미국 종교사회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개념인데 식민지 같은 억압 상황에서 민족주의 이념 확산 및 민족 국가 형성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종교사회학자들은 식민통치 상황에서 피압박 민족의 종교민족주의 형성 기반으로 1) 민족운동 조직의 공백(organizational vacuum), 2) 식민 상황에서 종교의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 확보, 3) 종교와 민족운동의 동일성(identification of religion with the national community) 형성, 4) 종교의 민족국가 형성(nation-building of religion) 등 4단계 과정을 제시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식민지 상황에서 종교는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기능(민족주의 확산과 민족 국가 형성)을 수행하게 된다. Ki-Young Shin, *Christianity and Nation-Building in Korea, 1885-1945*, Dissert. of Ph.D., Arizona State University, 1993, p. 6-9; 신기영,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 도서출판 동행, 1995, pp. 23-27.

면서 동시에 민족주의 의식을 지닌 기독교 지도자들이 포진한 교회와 기독교계통 학교는 한반도 지배를 노골화하며 침략하는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새로운 거점이 되었다. 이처럼 선교초기 기독교 복음 수용과 함께 근대화와 민족운동을 경험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형성, 심화된 것은 당연하였다.

한말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형성된 시점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내한으로 선교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189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 즉 1894-95년의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 뒤이은 갑오 개화와 을미사변, 그리고 1896년 시작된 독립협회 운동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표명되기 시작했다.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관여하는 교회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으려는 '민중계층'의 입교가 급증하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봉건적 사회체제와 질서에 부정적이거나 저항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 민중계층의 입교로 한국교회 교세가 급증하였음은 물론 기독교의 사회 변혁적 성격도 강화되었다.³ 그리고 진보적 개화와 정치인들이 주도했던 갑신정변(1884년) 실패 후 해외 망명을 떠났다가 기독교인이 되어 10년 만에 귀국한 서재필과 윤치호가 '만민평등'과 '충군애국', '민족자강' 등을 표방하며 1896년 시작한 독립협회도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표명과 참여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그리고 1899-1903년 독립협회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감옥에 투옥되었던 이승만과 이상재, 유성준, 이원궁, 홍재기, 김정식, 김린, 신흥우 등 개화와 정치인들이 '옥중 개종'을 하였고 이들의 개종에 영향을 받아 남궁억과 박승봉, 민준호, 김창제, 함태영, 정교, 이준, 이회영, 이시영, 양기탁, 이동녕 등 양반·관료 출신 지식인들이 개종하여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와 상동교회 엠평청년회(상동청년회)와 청년학원, 연동교회 국민교육회 등을 거점으로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⁴ 이런 과정을 거쳐 한말의 기독교회는 한국사회에서 민족운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인식되었다.

한말에 형성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구체적으로 항일 민족저항운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직후였다. 청일전쟁에 이어 1904년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은 영일동맹과 가쓰라·태프트밀약을 통해 서구 열강(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양해 받은 다음 을사늑약을 체결, 국권의 상징인 외교권을 빼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후 한국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항일 민족의식 표출과 구국운동이 전개되었다. 우선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을 전후하여 상동교회와 연동교회의 청년회원, 이화학당 학생들은 구국기도회를 열고 조약 체결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상동교회 엠평청년회원들은 '도끼 상소운동' 형태로 을사조약 무효상소운동을 벌인 후 '을사5적 척결'을 모의,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이승만과 이필주, 정순만, 박용만, 노병선, 이동휘, 이동녕, 이시영, 이회영, 안태국, 양기탁, 이상설, 이준, 최재학, 김구, 주시경, 김진호 등 소위 '상동파'로 호칭되는 기독교 민족운동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⁵ 1907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가 이상설과 이준, 이위종을 밀사로 파견할 때도 전덕기와 이동녕, 이회영 등 '상동파'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H.B. Hulbert)도 이 운동을 적극 도왔다. 그러나 헤이그밀사 파견은 대한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와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3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의 민족교회적 성격",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p. 124-136.

4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평민사, 1980, pp. 61-132;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動態化 과정", 『한국 기독교와 민족의식』, 지식산업사, 1991, pp. 272-283; 민경배, "한국 기독교와 그 민족교회의 성립", 『교회와 민족』,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pp. 9-18;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나라와 교회를 빛낸 이들』,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88;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2009.

5 홍이섭, "民族運動史上에 나타난 新敎", 『기독교사상』 1965.4, P. 103;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 상동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79; 전택부, "상동파-그 역사와 독립꾼들", 『토박이 신앙산책 2』,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윤춘병, 『전덕기 목사와 민족운동』, 한국감리교사학회, 1990;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역사학보』 126집, 1990; 이덕주, 『상동청년 전덕기』, 공옥출판사, 2017.

‘정미7조약’을 체결한 후 내정권까지 몰수하고 국권의 또 다른 상징인 구한국 부대를 해산시켰다. 이에 저항하는 항일 민족운동으로 순국자결과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정동교회 교인 정재홍과 양주 교인 홍태순의 순국자결이 있었고 지방에서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던 강화읍교회 김동수 권사와 김영구, 김남수 3형제, 이천지방 전도사 구연영과 구정서 부자(父子)가 의병운동을 진압하러 출동한 일본군 수비대에 체포되어 재판도 받지 않고 공개 처형당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기독교인의 무장투쟁도 한층 강화되어 1908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독교인 장인환과 전명운이 ‘친일파’ 미국인 외교관 스티븐스를 저격하였고 1909년 10월, 북만주 하얼빈에서 천주교인 안중근과 개신교인 우덕순이 ‘조선침략 1등 공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으며 그 해 12월에는 국내 서울에서 기독교인 이재명이 ‘친일파 매국노’의 상징인 이완용을 저격하였다.⁶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 표현 및 민족운동 참여로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성격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한말에 형성된 기독교계 민족운동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나타난 것이 1907년 봄에 결성된 신민회(新民會)이다. 신민회는 독립협회 출신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5년 만에 1902년 2월 귀국한 안창호가 두 달 동안 서울과 서북지역을 순회하며 양기탁과 이갑, 유동열, 이동휘, 이동녕, 전덕기, 이승훈, 양전백 등 기독교 민족운동가들과 함께 접촉하여 조직한 ‘항일 비밀결사’이다. 신민회는 겉으로 ‘무실역행’(務實力行)과 ‘문명유신’(文明維新) 등 민족 계몽운동을 표방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족교육과 민족경제 육성을 포함하여 무관학교 설립을 통한 항일 무장투쟁까지 염두에 두었던 강력한 항일 민족운동단체였다.⁷ 신민회 조직에는 서울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동파’ 민족운동 세력과 이상재와 윤치호를 중심으로 한 황성기독교청년회 운동세력, 그리고 평양의 숭실중학교와 태극서관, 개성의 한영서원, 평북의 선천 신성중학교와 정주 오산학교, 의주 양실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민족운동 세력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신민회 조직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의주에 이르는 경기 북부와 황해도, 평안도 지역의 교회와 기독교계통 학교, 기독교 기관(서점과 청년회)을 연결하는 민족운동 연락망이 구축되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그 조직과 활동이 일반에 알려지지 않다가 강제합병 1년 후인 1911년 11월, 소위 ‘105인사건’으로 불리기도 하는 ‘데라우치총독모살미수사건’으로 그 조직의 전모가 드러났는데 1912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5인 중 89%(93명)가 기독교 신자로 밝혀져 기독교 민족운동 세력이 집중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105인사건’을 ‘한국교회의 핍박’으로도 표현하기도 하였다.⁸

‘105인사건’으로 신민회를 비롯한 국내 민족운동 조직은 와해되었고 항일 민족운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8년 동안 국내 민족운동은 ‘빙하기’에 해당하는 침묵을 강요당하였다. 그렇다고 상동파와 황성기독교청년회, 신민회와 ‘105인사건’을 통해 드러난 기독교계 민족저항운동의 맥이 완전 끊어진 것은 아니다. ‘105인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던 이승훈과 양전백, 이명룡, 안세환, 변린서, 강규찬, 이덕환, 서기풍, 안경록, 임치정 등은 석방 후 교회와 기독교 기관을 배경으로 목회와 사회활동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 때 다시 전면에 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105인사건’으로 2년 옥고를 치르고 나온 선우혁은 1916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가 1918년 11월 여운형, 장덕수, 서병호 등과 함께 신한청년당을 조직한 후 김규식을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고향 선천을 방문해서 ‘105인사건 동지’ 이승훈과 이명룡, 강규찬, 이덕환 등에게 해외 민족운동 소식을 전함으

6 이덕주, “초기 한국교회의 민족교회적 성격”, pp. 148-157; 윤경로, “1900년대 한국교회의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pp. 38-47.

7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 출판부, 1992, pp. 183-215.

8 이승만, 『한국교회의 핍박』, 新韓國報社, 1913, pp. 58-59; 윤경로, “105인사건과 기독교 수난”,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 pp. 285-334.

로 3·1운동 민족대표 규합의 단초를 제공하였다.⁹ 또한 ‘105인사건’은 한국교회 여성 지도자들로 하여금 항일 민족운동 단체를 조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즉 ‘105인사건’으로 많은 남성 지도자들이 투옥되어 고문을 받으며 옥고를 치르는 현실을 목격한 평양의 기독교계 송의여학교 교사 황애덕과 이효덕, 그리고 송의여학교 출신으로 송현여학교 교사였던 김경희 등이 1913년 ‘송죽회’(松竹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투옥중인 독립운동가 가족 구호와 민족의식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송죽회는 처음에 교사와 재학생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으로 흩어진 졸업생까지 참여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이 되었다. 이 조직이 3·1운동 때 여성 독립운동의 지방 연락망이 되었고 3·1운동 직후 조직된 또 다른 항일 여성 비밀결사 대한애국부인회(평양)와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서울)의 조직 기반이 되었다.¹⁰ 이로써 1890년대 후반부터 형성되어 표출되기 시작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은 독립협회→상동파·황성기독교청년회→신민회→105인사건→신한청년당·송죽회로 이어지는 항일 민족운동의 흐름을 거쳐 3·1운동에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국내외 기독교 조직과 연락망

이렇게 한말부터 형성된 기독교계 민족운동 흐름을 바탕으로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들이 3·1운동 때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에’ 독립만세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 이전에 서울과 지방을 이어주는 전국적인 연락·조직망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8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독교(개신교)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한 서구의 ‘교파형’(denominational) 교회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 중에도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도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는데 장로교는 미국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 그리고 감리교는 미국 북감리회(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선교활동을 펼쳤다. 이들 6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는 서울과 지방도시 거점에 ‘선교부’(mission station)를 설치하고 복음전도와 교육, 의료 활동을 펼치던 중 ‘선교 중첩’과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1890년대 후반부터 ‘선교지역 분할 협정’을 맺었다. 6개 선교회는 선교지 분할협정을 맺으면서 인구 5만 이상의 서울과 평양, 원산에서는 2개 이상 선교회에서 공동으로 선교활동을 펼치되 그 외의 지역은 1개 선교회가 배타적인 선교구역으로 정하였다. 그 결과 지방에서는 교파교회의 독점적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1909년 완성된 6개 선교회의 선교지역 분할 협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¹¹

선교회	선교부	선교 관할지역
미국 북장로회	서울	서울 고양 파주 교하 양근 광주 과천 용인 양지 진위 양성 안성 시흥 김포 죽산 통진 지평 양주
	청주	청주 연풍 문의 영동 회인 청산 보은 청안 옥천 황간 괴산
	대구	대구 영천 경주 경산 청도 달성 고령 성주 김천 포항
	안동	안동 의성 영덕 울릉 영주 예천 상주 문경 영양
	평양	평양 안주 숙천 영유 순안 강동 자산 삼등 중화 상원 영원 덕천 개천 순천 은산 맹산 성천 강서 용강 증산
	재령	재령 봉산 수안 곡산 황주 은율 문화 장연 신천 송화 풍천 안악 평산 서흥

9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개정증보판), pp. 362-364.

10 홍우준 편, 『평창의 별 리효덕 전도사』, 한국기독교문화원, 1980, pp. 38-43;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상권, 탐구당, 1973, pp. 125-126; 이덕주, 『한국 감리교회 여성교회의 역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전국연합회, 1991, pp. 218-248.

11 “Agreement on Division of Territory”, *Annual Meeting of the General Council of the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 1909, pp. 32-34.

선교회	선교부	선교 관할지역
미국 북장로회	선 천	선천 정주 박천 의주 용천 철산 객산 가산 삭주 박천 구성
	강 계	강계 창성 초산 위원 자성 후창
남장로회	군 산	군산 대전 부여 목천 서천 보령
	전 주	전주 익산 김제 남원 임실 무주 금산
	목 포	목포 나주 해남 신안 영암 강진 제주
	광 주	광주 광산 장성 곡성 화순
	순 천	순천 여수 고흥 광양 구례
호주 장로회	부 산	부산 양산 동래 밀양 김해
	마 산	마산 창원 창녕 함안 통영
	진 주	진주 사천 고성 남해
	거 창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캐나다 장로회	원 산	원산 문천 덕원 안변 고원 영흥
	함 흥	함흥 정평 함주 이원 갑산 삼수
	성 진	성진 길주 명천 경성 청진 무산
	회 령	회령 경흥 나진 종성 경성 온성 웅기
미감리회	서 울	서울 고양 양천
	인 천	인천 교동 강화 부평 옹진
	수 원	수원 안산 남양 여주 이천 광주 음죽 양근
	천 안	천안 아산 연기 음성
	공 주	공주 논산 강경 예산 서산 당진 홍성 진천
	원 주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충주 제천 청풍 영춘 단양 괴산
	강 릉	강릉 삼척 속초 울진 평해
	영 변	영변 희천 태천 북진 개천 양덕 신창
미국 남감리회	서 울	서울 양주
	개 성	개성 개풍
	춘 천	춘천 가평 양구 인제
	철 원	철원 김화 평강
	원 산	원산 회양 안변 용동 고성 통천

이로써 한국교회 목회자와 전도자들은 선교회 및 선교부 단위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지원과 보호를 받으며 전도와 목회, 교육과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선교초기 내한한 선교사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취하면서도 일제 통감부 및 총독부 관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사가 교인들로 하여금 정치 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터이니 정치권에서도 교회에 간섭치 말라.”는 식으로 상호 ‘불가침’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관리, 지도하는 교회나 기독교계 학교는 통감부나 총독부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적’ 영역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강제합병 이후 국내의 민족주의 정치와 사회, 교육기관이나 단체들이 총독부 정책에 의해 해체되거나 감시를 당할 때 선교사를 배경으로 한 교회는 ‘상대적 자율성’(relative autonomy)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배경으로 교회나 기독교 학교 안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주의 토론이나 민족운동 논의가 가능하였다. 한국인들의 민족운동 참여를 경계했던 선교사들의 ‘정교분리’ 원칙이 역설적으로 한국교회의 민족운동 논의와 참여를 가능하게 만든 종교·사회적 배경이 되었다.¹²

이렇듯 선교 초기 선교사들의 관리와 지도를 받던 한국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적으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우선 장로교의 4개 선교회 소속 교회들은 1907년 ‘대한예수

12 신기영, 『한국 기독교의 민족주의 1885-1945』, pp. 33-34.

교장로회 독로회'라는 단일 정치조직을 결성하였으며 1912년에는 '총회'를 조직하면서 전국 지방별로 노회를 조직하였다. 그 결과 한국 장로교회는 서로 다른 선교회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단일 조직(총회)' 하에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만 감리교회는 남북으로 나뉘어 들어온 선교회 조직을 바탕으로 별도 교회 조직을 만들었다. 즉 미감리회는 1908년에, 남감리회는 1918년에 각각 '연회'를 조직한 후 연회 산하에 지방 교회들을 관리하는 지방회를 조직하여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장로교는 총회→노회→시찰회→당회, 감리교는 연회→지방회→구역회로 연결되는 조직 체계를 구성하였다. 다음은 3·1운동 1년 전(1918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회 조직과 교세 통계이다.¹³

총회 및 연회	노회 및 지방회	교회(기도처 포함)	한국 목회자(전도사 포함)	교인총수	헌금총액(원)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함 북	212	8	7,124	14,406.64
	함 남	198	16	6,570	14,038.84
	산 서	272	19	9,228	11,553.35
	평 북	444	41	34,218	67,562.31
	평 남	580	78	32,751	66,602.57
	황 해	387	55	19,306	46,283.17
	경기총청	205	14	8,257	13,735.80
	경 북	363	30	15,331	21,030.13
	경 남	332	10	10,173	12,205.84
	전 북	237	13	7,691	5,843.85
	전 남	255	15	10,260	9,386.20
	합 계	3,431	294	160,919	287,904.21
미감리회	경 성	33	35	4,586	3,173.00
	인 천	75	47	6,025	1,674.00
	수 원	117	47	5,610	1,080.00
	공 주	84	31	3,918	989.00
	천 안	26	12	1,186	158.00
	평 양	108	35	11,117	5,545.00
	해 주	83	26	3,997	2,217.00
	영 변	70	18	2,701	1,177.00
	원 주	33	7	967	228.00
	강 릉	33	4	937	146.00
	합 계	655	263	41,044	16,387.00
남감리회	춘 천	40	7	1,504	2,388.32
	철 원	30	1	802	1,221.71
	서 울	22	24	1,841	2,554.97
	개 성	56	9	2,985	4,865.66
	개성동	41	7	1,592	163.27
	원산동	26	5	1,221	2,300.44
	원산서	23	10	795	731.70
	합 계	238	45	10,740	15,995.54

13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총계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7회 회록〉 1918, pp. 101-108; “금년 통계표”, 〈미감리회 조선연회 제11회 회록〉 1918, p. 53; “Statistics”, *Minutes of the Korea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18.

장로교와 감리교를 합하면 전국 4,324개 교회에 한국인 목회자 602명이 교인 212,703명을 지도하고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장로교와 감리교 이외의 개신교인(성공회와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 형제회, 조합교회 등)을 포함해도 기독교인 총수는 25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이는 당시 한국 인구(1천 6백만)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비록 큰 수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 4천여 개 교회에 출석하는 20여 만 명의 기독교인들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가 가능했다. 전국을 그물망처럼 연결하던 장로교의 11개 노회와 미감리회의 10개 지방회, 남감리회의 7개 지방회는 서울과 지방을 잇는 연락망이 되었고 서울과 원산, 평양 등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선교하는 도시에서는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이 가능하였다.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으로 운영되던 서울의 세브란스의학교와 연희전문학교, 협성학교(영신학교), 피어선기념성경학원, 기독교청년회와 조선예수교서회, 성서공회, 그리고 평양의 승의여학교와 기흥병원, 원산의 구세병원 등 초교파 연합기구와 단체들이 초교파 연합 민족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여기에 해외의 한인교회와 기독교 단체들도 국내의 민족운동 세력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에 중요한 매체로 작용하였다. 이미 1890년대 후반부터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 만주지역에 이주한 한인 교포들을 중심으로 한인교회들이 설립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도 한인 이주와 한인교회 설립이 이루어졌다. 강제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중국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 이주하는 교민과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 미주지역 이민도 교회 설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즉 1902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노동이민단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하와이 현지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하와이 이민의 연장으로 미국 본토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로스앤젤리스, 뉴욕 등지로 확장된 미주지역 교민들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미주지역에 설립된 한인교회들은 친목회와 신민회, 공제회, 공립협회, 대동보국회, 공제회, 국민회, 동지회, 합성회, 흥사단 등 민족주의 교민단체 조직의 기반이 되었다.¹⁴

일본 도쿄에서도 한국인 기독교 단체와 교회가 설립되었다. 즉 1906년 황성기독교청년회의 파송을 받은 김정식은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재일한국기독교청년회를 조직하고 초대 총무로 취임한 후 창설 초기부터 성경공부반을 지도했는데 그것이 발전하여 1909년 도쿄한인연합교회가 되었다. 김정식 후임으로 1916년부터 재일한국기독교청년회 총무가 된 백남훈은 청년회 공간을 비기독교 청년 유학생들에게도 적극 공개하였고 그런 배경에서 청년회에 출입하던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재일본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고 그것이 국내 3·1운동의 한 기폭제가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⁵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 조계지’였던 중국 상하이에도 강제합병 이후 한국인 망명객과 유학생들이 몰려 들었는데 ‘상동파’에 속했던 최재학을 비롯하여 임학준, 이기룡, 홍순겸, 이흥석 등 30여 명이 1914년 11월부터 영조계에 있던 미 해군 기독교청년회관을 빌려 집회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엔 황성기독교청년회 간사 출신인 김종상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1916년 이후 선우혁과 여운형 등이 집회를 인도하였다.¹⁶ 바로 이 상하이 한인교회에 출석하던 청년회원들이 조직한 신한청년당 대표로 선발된 선우혁이 1919년 2월 귀국하여 ‘105인사건 동지’인 선천의 이승훈과 양전백, 평양의 길선주와 강규찬, 이덕환 등을 만난 것이 국내 3·1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14 김원용, 『재미 한인 오십년사』, 1959, pp. 83-178.

15 유동식, 『在日本韓國基督教青年會史 1906-1990』, 재일한국기독교청년회, 1990, 149-163.

16 “上海鮮人教會史”, <기독신보> 1922.6.28-7.5.

3.3·1운동 준비단계에서 기독교 역할

1) 민족대표 구성과 역할

잘 알려진 대로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과 함께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4개조 ‘민족자결 원칙’(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소식을 접한 해외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 논의로 시작되었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 다른 서구 연합국보다 늦게(1917년 4월) 참전한 미국은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난 후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승전 연합국의 평화 강화회의를 앞두고 과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패전국의 식민지 처리 방향에 대하여 “피지배 민족(식민지나 점령지역)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고 동등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自決權)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다분히 독일 식민지가 많았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제안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5대 승전 연합국’ 범주에 포함되었던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던 한국은 처음부터 평화회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약소민족 국가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런 파리 강화회의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소식은 1918년 11월부터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물론이고 일본에서 발행되던 〈大阪毎日新聞〉, 〈The Japan Advertiser〉, 그리고 서울에서 발행되던 〈每日申報〉와 〈京城日報〉, 인천에서 발행되던 〈朝鮮新報〉 등을 통해 국내외 민족주의진영에 알려졌다. 이에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송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국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한편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담은 독립선언서 발표와 일본 정부에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미국 교민들은 이승만과 정한경을, 러시아 교민들은 이동휘를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고 중국 상하이에서도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칭따오에 머물러 있던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송하기 위한 경비 모금을 위해 선우혁을 국내에 파송하였다. 비록 실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들 미국과 러시아 교민들이 파리에 파견할 특사로 선발된 인물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도 2월 8일 ‘독립청년단’ 명의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 직전 선언서 인쇄용 활자를 구하러 1월 28일 경 송계백을 서울에 파송하여 정노식과 최남선 등 국내 민족운동 세력과 접촉하도록 하였다.¹⁷

이처럼 국내외 민족운동 진영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파리 평화회의는 1919년 1월 12일 영국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4대 강국’이 참여한 예비회담을 거쳐 1월 18일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위 4대 강국과 일본을 포함한 45개국 대표들이 참여한 본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의장석에 앉아 평화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렇게 파리 평화회의 본회담이 시작된 직후, 1월 22일 새벽에 고종황제가 향년 68세로 덕수궁에서 승하하였다.¹⁸ 총독부가 주관한 장례식 절차에 따라 고종황제의 인산일(因山日)이 1919년 3월 3일(월요일)로 정해졌다. 40일간의 ‘국장’(國葬) 기간이 시작되었고 덕수궁 대한문 앞은 서울과 지방에서 올라온 문상객들로 붐볐다. 고종황제의 죽음을 두고 세간에 “간세배에게 독살 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본에 대한 민족적 저항감도 고조되었다.¹⁹ 그렇게 해서 파리 평화회의에 한민족 대표를 파송하는 동시에 고종황제 국장을 전후로 한 시기에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군중시위를 전개하는 방

17 “이승훈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 秘史』(李炳憲 編), 시사시보사 편집국, 1959, pp. 357-358; “정노식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 秘史』, pp. 708-709; “송계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 秘史』, pp. 710-712.

18 “李太王 殿下 昇遐”, 〈기독신보〉 1919.1.29.

19 “이갑성 선생 취조서”, 『三一運動 秘史』, p. 295; 최린, “자서전(약력)”, 〈한국사상〉 4호, 일신사, 1962.8, p. 173.

향으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파리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송하는 일은 이미 상하이 신한청년당에서 추진하고 있었기에 그 쪽에 맡기기로 하고 국내 민족운동 진영은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담은 선언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파리에 파견될 특사에게 전달하고 특사 파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 배경에서 국내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독립의지를 담은 선언서 및 탄원서에 서명할 민족대표를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기독교계 민족대표 선정 및 협의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거나 고종황제의 승하소식 및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추진한 2·8 독립선언에 관한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품고 동지를 규합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장로교회와 미감리회, 남감리회 지도자들이 연대하여 초교파 기독교 연합세력을 구축하는 단계이며, 마지막 3단계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천도교 및 불교 대표자들과 연대하여 종파를 초월하여 독립선언 운동을 전개하는 단계이다. 재판과정에서 진술된 민족대표들의 신문조서 및 취조서를 바탕으로 기독교계 민족대표 구성 및 협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⁰

단 계	진행사항
1단계	1918년 11-12월 이승훈, <매일신보>에 실린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관한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 구상
	1919년 1월 10일경 박동완과 박희도, <大阪毎日新聞>에 실린 월슨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관한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 구상
	1월 20일경 박희도와 동석기, 이천지방 사경회에서 만나 월슨 민족자결주의 원칙과 독립운동 필요성에 대해 논의
	1월 22일 고종황제 승하
	1월 28일 이승훈과 양전백, 선천 남교회에서 개최된 평북노회 사경회에 참석 중 <毎日申報>에 실린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관련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 논의
	1월 28일경 박희도, 일본에서 귀국한 여자 유학생 송복순을 통해 도쿄 유학생 독립선언 운동 준비소식을 접함
	2월 4-5일경 이명룡과 이승훈, 선천 남교회에서 개최된 평북노회 사경회에 참석 중 민족 자결주의 원칙과 독립운동에 관해 논의
	2월 6일 이승훈과 양전백과 이명룡, 상하이 신한청년당에서 파견된 선우혁을 통해 파리 평화회의 대표자(김규식) 파견운동 소식을 청취
	2월 6일 박희도, 저녁 서울 관수동 중국인 식당 대관원(大觀園)에서 모인 서울시내 전문학교 중학교 대표자 모임에 박희도 참석,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도쿄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독립운동에 관하여 논의. 이후 박희도는 연희전문학교 김원벽과 경성의학전문학교 한위건 등과 연락을 취하며 독립운동 논의
	2월 8일 일본 도쿄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식 거행
2단계	2월 9일 선우혁,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와 강규찬 목사, 이덕환 장로, 윤원삼 장로 등을 만나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자 파견운동 소식을 전하며 자금 지원을 요청
	2월 10일 박희도, 김원벽을 만나 도쿄 유학생 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서울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토론 2월 10일 이승훈, 선천 백시찬 장로 집에서 평양을 다녀온 선우혁을 만나 자금 모음이 여의치 않다는 소식을 들음

²⁰ 사건 일지는 검찰 심문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것인데 피의자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몇 월 몇 일 경”이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내용을 진술할 때도 경찰 및 검찰 심문과 재판정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추정치를 산정해서 정리하였다. 『三一運動 秘史』, pp. 45-755; “손병희 외 47인 예비 중결서”, 『독립운동사 자료집: 삼일운동 재판기록』, 고려서림, 1973, pp. 11-54;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11권(삼일운동 I), 국사편찬위원회, 1990;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 12권(삼일운동 II), 국사편찬위원회 1990; 김양선, “三一運動과 基督教界”, pp. 240-261.

단 계	진행사항
1단계	2월 11일 서울에서 천도교측 대표로 활동하고 있던 최남선이 기독교측과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김도태(오산학교 졸업생)를 정주로 보내 이승훈에게 “오산학교 일로 의논할 일이 있으니 상경하여 송진우를 만나라.”는 전갈을 보냈는데, 김도태가 정주로 가던 중 오산학교 교사 박현환으로부터 이승훈이 선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박현환에게 최남선의 서한을 이승훈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 박현환이 선천으로 가서 최남선의 서신을 이승훈에게 전달하였고 이승훈은 그날 저녁 기차로 상경
	2월 12일(수) 아침 이승훈, 서울에 도착하여 송진우를 만나 그동안의 천도교측 독립운동 준비사항을 듣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작하여 운동을 전개하자.”며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평안도 지역 대표를 모집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이승훈은 그날 저녁 선천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전 세브란스병원의 이갑성을 만나 천도교측과 협의한 사실을 전달
2단계	2월 13일(목) 이승훈, 선천에 도착하여 양전백 집에서 양전백과 이명룡, 유여대, 김병조 등을 만나 천도교측과 협의의 내용을 전달, 김병조와 유여대는 이명룡에게 도장을 맡김
	2월 14일(금) 저녁 이승훈, 저녁 기차로 평양으로 출발
	2월 15일(토) 아침 이승훈, 평양에 도착하여 기흥병원에 입원, 병원 전도사 서기풍을 통해 손정도 목사를 만나 민족대표로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손정도는 “다른 일로 중국에 갈 계획이라.”며 남산현교회 신홍식 목사를 소개
	2월 15일 박희도,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강기덕을 만나 천도교측 독립운동 소식을 들음
	2월 15일 정춘수, 원산으로부터 상경하여 남대문 신한여관에 유숙하며 피어선성경학원에서 개최된 감리교 선교백주년 기념식에 참석, 박희도를 만나 독립운동에 논의(미감리회와 남감리회 연합)
	2월 15일 저녁 이명룡 상경
	2월 15일에서 20일 사이 박희도, 기독교신보사 박동완을 만나 민족자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참가하겠다는 의사 표명
	2월 16일(일) 이승훈, 평양 기흥병원에서 신홍식과 길선주를 만나 독립운동 소개하고 동참을 권유, 승낙을 얻은 후 밤기차로 상경
	2월 16일 저녁 정춘수, 종교교회 오화영 목사의 초청을 받아 주일저녁예배 설교를 한 후 독립운동 논의
	2월 17일(월) 이승훈, 서울에 도착하여 소격동 김승희 집에 유숙, 송진우를 만나 한규설과 윤용구, 김윤식 등 원로대신들을 포섭하려던 일이 실패한 것과 천도교측 운동 소식을 듣고 천도교측과 기독교측 연합 운동방침을 재확인
	2월 17일 신홍식, 상경하여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으로 박희도를 방문, 이승훈과 이명룡 상경 소식을 전달
	2월 17일 이명룡, 소격동에서 이승훈을 만나 독립운동 진행사항을 청취
	2월 17일 이명룡, 협성학교로 박희도를 방문하여 이승훈의 소격동 숙소를 알려줌, 이승훈 숙소에서 박희도와 정춘수, 오화영을 만나 독립운동 논의
	2월 17일 저녁 수창동 박희도 협성학교 사무실에서 박희도 정춘수 오화영 이승훈 신홍식 회합, 독립운동방법론과 천도교와의 합작 문제 토론
	2월 17일 길선주 장연교회 사경회 집회 인도하러 떠나면서 도장을 안세환에게 맡김
	2월 17일 안세환, 저녁 기차로 상경
	2월 18일(화) 정춘수, 개성으로 출발
	2월 18일 오후 천도교측 송진우, 이승훈을 찾아와 곧 최남선을 만날 것이라 기별
	2월 18일 오후 남대문 함태영 집에서 이갑성 안세환 현순 오상근 함태영 등 회합, 주변이 조용하지 못해 이갑성 집으로 옮겨 논의, 이갑성은 학생운동 동향을 말하고 안세환은 “평양의 길선주, 선천의 양전백도 찬성하고 있다.”고 전함. “선언이나, 청원이나”를 놓고 논의하다가 청원론으로 의견을 모음
	2월 19일(수) 저녁 남대문 이갑성 집에서 이승훈 함태영 안세환 이갑성 현순 오화영 신홍식 박희도 회합, 1) 기독교측 운동방법론으로 청원론을 택하기로 하고 2) 천도교측과의 교섭을 이승훈과 함태영에게 맡기고 3) 청원서에 서명할 대표자를 포섭하기 위해 이갑성을 경상남북도, 신홍식은 평안남도, 이승훈은 평안북도, 오화영은 개성, 박희도는 원산으로 가서 정춘수에게 의뢰하기로 결정
	2월 19일 저녁 박희도, 이갑성 집 회합이 끝난 후 근처에서 김원벽을 만나 기독교측 대표자들의 논의 결과를 알려 줌
	2월 19일 이승훈, 소격동 숙소로 찾아온 천도교측 최남선을 만나 “한규설 등 원로대신을 포섭하기는 실패하였지만 천도교와 기독교 연합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는 말을 들음
	2월 19일 신석구, 피어선기념성경학원에서 오화영으로부터 민족대표로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기도하기 시작
	2월 19일 정춘수, 저녁기차로 개성을 출발 상경

단 계	진행사항
2단계	2월 20일(목) 오전 박희도, 청년회관으로 찾아온 강기덕으로부터 “천도교, 기독교에서 한다는데 우리도 할 것이다. 종교측에서 먼저 하면 우리도 뒤이어 하겠다. 일자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천도교와 예수교 연합으로 하되 국장 2일 전이나 2일 후에 할 것이며 확실한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고 알림 2월 20일 낮 이승훈, 최남선 소개로 최린을 처음 만나 천도교와 기독교 합작 문제를 논의, 기독교측 인사들의 활동 자금 3-5천원 지원 요청, 최린이 이 사실을 손병희에 알렸고 손병희는 천도교 중앙총부 금융관장 노현용에게 5천원 지급하도록 지시, 이승훈은 최린을 통해 이 자금을 인수하여 박희도에게 맡겨 집행하도록 조치 2월 20일 함태영 집에서 이승훈 안세환 오화영 함태영 오기선 박희도 회합, 이승훈은 천도교측과 회담 내용에 대하여 “1)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2) 천도교와 기독교에서 각 15인 대표를 선정하고, 3) 선언서는 최린이 준비하고, 4) 선언서 외에 일본정부와 총독부에 건의서를 보내고 상하이에도 서한을 보내 열강국에 독립 지원을 호소하고, 4) 상하이에 현순, 일본에 안세환을 문서 전달자로 보내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림. 참석자들은 “독립 선언이나, 독립 청원이나”를 놓고 토론 2월 20일 낮 신흥식, 기독교청년회관으로 박희도 방문 2월 20일 저녁 수창동 협성학교 박희도 사무실에서 이승훈 오화영 정춘수 오기선 신흥식 등 회합(감리교 모임에 이승훈 참석), 천도교와 합작 문제를 갖고 또 다시 열띤 토론. 정춘수가 ‘청원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천도교와 합작에도 반대 의사 표명. 정춘수의 의견대로 기독교측은 청원운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되 이승훈과 함태영은 천도교측과 계속 교섭하고 동지 포섭을 위해 이승훈과 신흥식이 평안남북도, 정춘수가 함경도, 오화영이 개성을 맡기로 하고 거사일을 3월 3일(국장일)로 결정. 정춘수는 원산으로 출발 2월 20일 밤 11시경 박희도, 수창동 숙소로 찾아온 김원벽에게 기독교측 회합 결과를 알리며 “거사일은 국장 전후 2일이 될 것이다.” 알려 줌 2월 20일 이갑성, 세브란스의학생 이용설로부터 세브란스의학교 학생들의 운동 준비 소식을 들음 2월 20일 저녁 이승훈, 권동진 집에서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 천도교측 인사들과 회합, 천도교와 기독교 합작으로 진행하기로 재확인
	2월 21일(금) 오화영, 개성으로 가려고 남대문 역에 나가 차표 끊다가 신흥식으로부터 오후 함태영 집 회합 사실을 알고 여행 중지 2월 21일 오후 2시 함태영 집에서 신흥식 함태영 오화영 이승훈 오기선 박희도 등 회합, 천도교와 합작 문제를 논의하다가 저녁에 이갑성 집에서 다시 회합하기로 결정 2월 21일 오후 7시 남대문 이갑성 집에서 함태영 이승훈 박희도 신흥식 오기선 안세환 김세환 현순 이갑성 오화영 등 회합. 천도교와의 합작과 운동 방법론(청원론/선언론) 문제를 갖고 토론하였지만 결론을 얻지 못함. 이후 천도교와 합작 문제 등 중요한 사항은 이승훈과 함태영에게 일임하기로 한 후 동지 포섭을 위해 오화영은 개성, 이갑성은 경상도, 김세환은 경기도와 충청도, 신흥식은 평안도를 담당하고 함태영은 이상재를 포섭하는 일과 청원서 작성을 책임지고 청원서 제출을 가능하면 이른 시일에 하되 국장 후 3월 4일 청원 사실을 일반 인민에게 알리기로 하고, 안세환은 일본으로, 현순은 상하이로 가서 평화회의에 통지하기로 결정 2월 21일 저녁 신흥식과 안세환은 평양으로, 정춘수는 원산으로 출발 2월 21일 저녁 이승훈과 함태영, 최린 집으로 가서 운동방법론과 합작 문제를 갖고 논의, ‘독립선언론’으로 방향을 잡기로 합의 2월 21일 저녁 이승훈과 함태영, 안세환, 박희도 등과 회합. 최린과의 협의내용을 통보 2월 21일 승동교회에서 서울 시내 전문학교 대표자(한위건 김원벽 강기덕 김문진 등) 회합, 손병희가 주도하는 독립운동에 학생도 협조하기로 결의 2월 21일 정춘수, 원산에 도착해서 광명리 이가순 등에게 독립 청원운동 소식을 전하고 동지로 참여할 것을 권유
3단계	2월 22일(토) 이승훈, 이명룡을 만나 “기독교만으로 실행하지 못할 것이니 천도교와 함께 할 것을” 천명 2월 22일 오화영, 아침 기차로 개성으로 출발, 오후에 개성 도착, 이경중과 김지환을 만나 동지 규합을 부탁한 후 남성병원으로 가서 동생 오은영에게 집안 일을 부탁 2월 22일 이갑성, 경상도 지역(부산, 마산, 대구) 동지 모집을 위해 저녁 기차로 서울을 출발 2월 22일 김세환, 충청도 지역(해미, 공주, 천안, 오산) 동지 모집을 위해 서울 출발

단 계	진행사항
	2월 23일(일) 이갑성, 부산에 도착하였으나 동지를 얻지 못하고 마산으로 가서 이상유(이상소), 임학찬 등에게 권유했으나 실패 2월 23일 이명룡, 이승훈을 만나 운동 진행사항 청취 2월 23일 오전 이승훈, 함태영 집에서 오기선을 만나 <독립선언서>에 명의를 낼 것을 권하였지만 오기선은 운동방법론이 청원론에서 선언론으로 바뀐 것에 동의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 2월 23일 오전 오화영, 개성 남부교회 주일 예배 설교 후 김지환과 만월대로 가서 운동 논의 2월 23일 저녁 오화영, 개성 북부교회에서 예배 후 김지환 오진세 이경중 최종순 이강래등과 만나 협의, 개성 교인들은 정춘수가 와서 전한 내용과 다르다며 의문을 표시, 김지환이 직접 상경하여 이승훈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기로 결정 2월 23일 정춘수, 서울 오화영으로부터 “천도교와 합작하기로 했다.”는 서신 연락을 받고 광명리를 상경시켜 사실을 확인하기로 함 2월 23일 길전주, 장연교회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도장을 안세환에게 맡김 2월 23일 저녁 이승훈, 최남선 안내로 최린을 만나 천도교와 기독교 합작 운동을 최종 확인
	2월 24일(월) 이갑성, 대구로 가서 이만집 목사와 이상백, 백남주 장로에게 동지로 참여할 것을 권유, 대구 선교부 브라운 선교사 만나 독립운동 소식 알렸으나 냉소 2월 24일 오화영, 송도고등보통학교 학생예배 설교 후 서울 다녀 온 이만규를 만난 후 저녁 기차로 상경 2월 24일 박희도, 중앙교회 김창준 전도사를 찾아가 포섭, 승낙을 얻음 2월 24일 저녁 이승훈과 함태영과 박희도, 최린 집으로 가서 천도교측 인사와 회동, 거기서 처음으로 독립선언서 원고를 처음 보고 거사일을 3월 1일로 확정, 함태영을 기독교측 연락책임자로 선정 2월 24일 박희도, 청년회관으로 찾아온 강기덕에게 운동 진행 사항 알려줌 2월 24일 최성모, 상경하여 배재학당을 졸업한 장남(崔景煥)의 진학 문제로 수창동 박희도를 방문했다가 독립운동 참여 권유를 받고 승낙 상담하다가 배재학교 재학 중 본월에 졸업 후 진학 상담차 상경하던 날 밤 수창동 영신학교 박희도(해주 출신) 방문 독립운동 함께 하기로 결정
3단계	2월 25일(화) 이갑성, 대구에서 상경하여 함태영으로부터 현순이 상해로 간 것과 이승훈으로부터 독립선언으로 운동방법론이 변경된 것과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거사하기로 된 것 알게 됨 2월 25일 이명룡, 이승훈으로부터 3월 1일 거사 소식을 들음 2월 25일 오화영, 새벽 서울로 돌아온 후 박희도 집에 가서 “3월 4일 발표하기로 한 것을 3월 1일로 변경하였다.”는 말을 들었음 2월 25일 남대문 이갑성 집에서 함태영 이갑성 박희도 오화영 등 회집, 함태영으로부터 천도교측과 협의 결과에 대해 “최초에는 많은 사람으로 선언서를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시일이 절박하므로 예수교에서 15,6명 천도교에서 15,6명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로 한 것”을 알리고 선언서에 기재할 사항 등을 협의, 기독교측 동지 규합(연명부 작성)은 박희도와 함태영, 선언서 배분은 김창준과 이갑성이 맡기로 결정 2월 25일 최성모, 상경해서 유숙 중인 정동교회 이필주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하여 승낙을 받음
	2월 26일(수) 박희도, 남대문 이갑성 집에서 연희전문학교 일본인 교수(소기)와 선교사를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받았지만 거절 2월 26일 오후 2시 한강 인도교 부근 일본인 식당에서 최성모 박희도 이승훈 함태영 안세환 이필주 이갑성 등 회합, 거사일(3월 1일)과 거사 장소(파고다공원)를 다시 확인, 기독교측 대표자 명단 논의, 일본 정부에 청원서를 전달할 특사로 기독교측 안세환을 선정하여 천도교측 임규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 거사 후 서울에 거주하는 대표자 가족 1인 당 매월 10원씩 두 달 간 보조하기로 결정 2월 26일 광명리, 원산으로부터 상경하여 운동 준비사항 파악 2월 26일 현순, 미국 윌슨 대통령과 파리 평화회의 대표자들에게 보낼 탄원서와 호소문 책임을 지고 중국 상하이로 출발, 문건은 후에 개성의 김지환을 통해 만주 안동의 김병농 목사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 2월 26일 신흥식, 평양으로 내려온 안세환을 통해 “3월 1일 선언식을 할 것이니 상경하라.”는 이승훈의 메시지를 받고 상경 2월 26일 양전백, 서울 이승훈으로부터 “3월 1일 거사에 참여하라.”는 서신을 받고 상경하기로 결심 2월 26일 박희도, 찾아온 김원벽에게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식을 할 것이다. 학생들은 소요를 일으키지 말아 달라.”며 학생들이 별도 선언문 발표할 것을 만류, 이에 김원벽은 “어른들이 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하겠다.”고 약속

단 계	진행사항
	2월 27일(목) 신석구, 새벽기도회 중에 “4천년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그것을 찾을 기회가 되어 나설지 않으면 더욱 큰 죄가 아니냐?” 하는 ‘하늘 음성’을 듣고 참여하기로 결심 2월 27일 이명룡, 이승훈으로부터 “오늘 전동교회에서 기독교측 대표자 모임 있을 예정이지만 그대는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도장을 맡김 2월 27일 오전 박희도, 박동완과 최성모와 김창준에게 정오에 정동교회 이필주 사무실에서 열릴 기독교측 대표자 회합에 참석 통보 2월 27일 오후 1시 정동교회 이필주 사무실에서 이승훈 이필주 최성모 오화영 김창준 박희도 박동완 신석구 이갑성 함태영 등 회합, 독립선언서와 청원서 초안 확인, 독립선언서에 서명 날인할 기독교측 대표자로 이승훈 길선주 이필주 이갑성 오화영 정춘수 유여대 김병조 이명룡 양전백 박동완 김창준 최성모 신홍식 김병조 신석구 등 16명 확정. 대표자들의 인장을 함태영에게 주어 천도교측 대표와 함께 날인하도록 조치, 이상재를 포섭하는데 실패했다는 함태영의 보고를 듣고 이갑성을 다시 보내 설득하기로 함. 거사 이후 가족 구호 문제를 논의, 박희도가 가족 구호금 분급 2월 27일 길선주, 장연교회 사경회 인도 중 안세환으로부터 “3월 1일 총독부에 독립을 청원하고 일반에 독립선언을 밝히기로 했으니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음 2월 27일 저녁 이갑성, 재동 이상재 집을 방문하여 독립선언서에 기명할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 2월 27일 의주 용운동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던 중 선천교회 영수 도형균으로부터 “독립선언은 3월 1일에 경성과 각 지방에서 발표한다.”는 이승훈의 기별을 전달 받고 의주지역 독립운동을 준비 2월 27일 김세환, 그동안 경기도와 충남지역을 돌면서 확보한 대표자(해미의 김병제, 남양의 동석기, 이천의 이강백, 오산의 김광식, 수원의 임응순) 명부를 갖고 상경하여 박희도를 만났으나 이미 민족대표자들의 서명날인이 끝났으므로 명부를 숙소(여관)에서 소각 2월 27일 저녁 안세환, 일본정부에 청원서 제출할 청원서를 휴대하고 일본으로 출발 2월 27일 저녁 천도교측 이종일,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2만여 매 인쇄
3단계	2월 28일(금) 양전백, 상경하여 봉래동 신행여관 투숙 2월 28일 이갑성, 세브란스병원 김석현으로부터 강기덕을 소개받고 학생운동권 소식을 듣고 별도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3월 1일 독립 선언식 이후 선언문 배포 일을 학생들이 맡아 줄 것을 부탁 2월 28일 이갑성, 오전 11시경 김창준이 가져온 독립선언서 6백매를 세브란스의전 학생 이용상을 통해 대구와 마산에 각 2백매, 김영수를 통해 군산에 2백매 배포하도록 지시 2월 28일 오후 이갑성, 남대문밖 정류소에서 김성국을 만나 이종일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독립선언서 1천 매를 수령, 강기덕에게 가져다 주도록 지시 2월 28일 오후 박희도, 연희전문학교 교수 베커 선교사를 정동 사택으로 찾아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말하며 협성학교 일을 부탁, 같은 선교부 내에 살고 있던 중앙교회 담임목사 빌링스 선교사를 찾아가 같은 내용을 통보 2월 28일 신홍식, 아침에 서울 도착, 정동교회로 가서 박희도와 이필주, 최성모 등을 만나 운동 진행사항 청취 2월 28일 정춘수, 서울 다녀온 광명리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본 후 자신의 의도와 달리 독립선언문이 되었지만 대표자 명부에 자기 이름이 있음을 보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저녁 기차로 상경 2월 28일 길선주, 상경하기 위해 장연을 출발 2월 28일 저녁 이승훈 이필주 최성모 신홍식 박희도 김창준 박동완 오화영 신석구 함태영 등 가회동 손병희 집에서 모인 민족 대표자 모임에 참석, 천도교 및 불교측 대표자들과 회합, 이갑성이 독립선언식 장소 변경을 건의, 손병희 제안으로 명월관 지점(태화관)으로 변경 2월 28일 이명룡, 손병희 집 회합에 참석치 남대문교회 예배당 안 의자에서 잠 2월 28일 유여대,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가 의주에 도착하지 않아 정명채 김두칠 등과 독자적인 선언문 등사하여 3월 1일 시위 준비 2월 28일 저녁 승동교회에서 강기덕 김원벽 등 시내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 회집, 독립선언서 배포 계획 수립 2월 28일 밤 정동교회 예배당에서 김문진 한위건 김옥주 장기조 등 중등학교(경신 중앙 보성 양정 선린상업 배재 휘문 약학교) 대표자 회동, 독립선언서 배포 계획 수립 2월 28일 김지환, 개성으로부터 상경

단 계	진행사항
3단계	3월 1일(토) 아침 이갑성, 세브란스의전 학생 이용설에게 독립선언서 3, 4매 전달, 이용설은 선언서 1매를 세브란스의전 교수 스코필드에게 전달
	3월 1일 아침 김지환, 이승훈을 방문했다가 “미국 대통령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탄원서와 독립선언서를 상하이로 보내야 하니 함태영에게 가서 문건을 받아 만주 안동현 김병농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함태영으로부터 탄원서 1통과 독립선언서 10매를 받아 기차 편으로 서울을 출발
	3월 1일 오전 양전백, 세브란스병원에서 함태영을 만나 거사 장소가 명월관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
	3월 1일 오후 2시 이승훈 이필주 오화영 양전백 이명룡 이갑성 신흥식 오화영 신석구 박희도 김창준 박동완 등 기독교측 대표자들 인사동 명월관 ‘별유천지 6호실’에 회집, 천도교와 불교측 대표자들과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경무청에 연행됨, 파고다공원에서는 한위건과 정재용, 이병주 등 학생 대표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 시위를 시작
	3월 1일 오후 2시 유여대, 의주 서부교회에서 독립선언식 거행, 선천으로부터 전달된 독립선언서 배포하며 만세시위
	3월 1일 저녁 길선주, 기차 편으로 서울에 도착, 경무청에 자수
	3월 1일 저녁 정춘수, 원산으로부터 기차 편으로 서울에 도착, 오화영 집에 머물다가 3월 7일 경찰에 자수
	3월 1일 오후 안세환, 일본 도쿄에 도착, 간다(神田)경찰서에 출두하여 일본 정부 각료 면담 요청
	3월 2일(일) 안세환, 일본 도쿄 경시청장을 면담
	3월 3일(월) 고종황제 발인예식 거행

위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품고 주변 동지들과 협의를 시작하는 작업이었다. 그 작업은 서울과 선천, 두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로교의 이승훈과 감리교의 박희도는 1918년 11월말부터 1919년 1월 초순 사이에 국내외에서 간행되는 신문에 실린 파리 강화회의 및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대한 기사를 읽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품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훈은 중국 상하이에서 들어온 선우혁을 만나 신한청년당이 준비하는 파리 평화회의의 대표자 파견운동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박희도는 기독교청년회 학생 지도부와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이 추진하는 독립선언운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주변의 동지를 포섭하기 시작했다. 즉 이승훈은 평북 선천에서 회집한 평북노회 사경회와 노회, 전도회 모임을 통해 이명룡과 양전백과 만나 협의하였고 박희도는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기구인 서울의 기독교청년회와 협성학교(영신학교) 등을 통해 동지를 포섭하였다. 이처럼 기독교계 인사들이 독립운동 준비를 하는 동안 천도교측에서도 1월 하순부터 손병희와 권동진, 오세창, 최남선, 최린 등을 중심으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른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천도교측에서는 독립운동을 준비하면서 ‘대중화’(大衆化)와 ‘일원화’(一元化), ‘비폭력’(非暴力)의 3대 원칙을 정하고 ‘민족대표’를 구성을 위해 “기독교측과 연락을 취해 보자.”는 최남선의 의견에 따라 이승훈과 접촉함으로써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으로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²¹

2단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동지를 규합하며 독립운동 내용과 방법론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천도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송진우와 최남선, 최린 등을 만난 이승훈은 천도교측과 연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는 선천으로 돌아와 이명룡과 양전백 외에 유여대, 김병조 등 평북노회 소속 목사들을 포섭하였고 상경하는 중에 평양에 들러 신흥식과 길선주, 안세환을 포섭하였으며 2월 17일 서울에 올라와 함태영과 이갑성을 포섭하였다. 신흥식 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로교 인사들이었다. 이후 이승훈은 서울에 머물면서 감리교 인사들과 천도교 인사들을 접촉하며 ‘연합전선’을 확대시켜 나갔다. 감리교측은 미감리회와 남감리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미감리회의 박희도는 같은 교회(중

²¹ “최린 자서전”, 〈한국사상〉 4집, 일신사, 1962, 166-167; 김도태, 『남강 이승훈전』, 문교사, 1959, pp. 275-276.

양교회)의 김창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박동완, 그리고 해주에서 올라온 최성모를 포섭했고 최성모는 정동교회 이필주 목사를 포섭했다. 박희도는 또한 김원벽과 강기덕 등 학생 운동권과도 계속 협의하였다. 이렇게 세 갈래로 시작된 기독교측 논의는 2월 17일 서울 수창동 박희도 사무실에서 이승훈과 박희도, 정춘수, 오화영, 신흥식 등이 회합함으로써 기독교 연합전선이 구축되었다. 이후 기독교측 대표자들은 박희도와 이갑성, 함태영 등의 사무실 혹은 집에 모여 1) 천도교와의 합작 문제, 2) 운동 방법론(독립선언이나 독립청원이나) 문제, 3) 지방 대표자 포섭, 4) 파리 평화회의 대표자 파견, 5) 일본 정부와 의회에 청원할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기독교측을 대표하여 이승훈은 천도교측(최남선과 최린)과 합작을 협의하였고 천도교측으로부터 운동자금 5천원을 빌려 와 박희도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조치하였다.²² 이로써 천도교와 기독교 합작은 되돌릴 수 없는 원칙이 되었고 그에 따라 운동방법론도 ‘독립선언론’으로 방향을 잡았다.

3단계는 서울과 지방, 종교대표와 학생대표, 국내외 운동 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며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단계였다. 천도교측(불교 포함)과의 합작 문제를 매듭지은 기독교측 인사들은 서울 및 지방에서 선언서 및 청원서에 서명할 기독교측 민족대표 구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안세환과 신흥식은 평안남도 평양, 유여대는 평안북도 의주, 이갑성은 경상도 부산과 마산과 대구, 정춘수는 함경도 원산, 오화영은 개성, 김세환은 충청도와 경기도를 맡아 지방 교회 대표들을 접촉하였고 이를 통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독립운동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박희도와 이갑성은 기독교청년회와 협성학교, 세브란스병원을 매개로 해서 김원벽과 강기덕 등 서울 시내 전문학교 학생 대표들과 접촉하며 학생 운동권과 연대를 모색했다. 처음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려고 했으나 종교계 지도자들과 접촉하면서 계획을 바꾸어 독립선언서 배포와 2차 독립운동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기독교측에서는 천도교측에서 준비, 인쇄한 독립선언서를 지방으로 배포하는 책임을 맡았고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해외로 대표자를 파송하는 일도 기독교측이 맡았다. 즉 현순을 중국 상하이로 파송하여 신한청년당이 추진하는 파리 평화회의 대표자 파견을 돕도록 하였고 안세환을 일본 도쿄로 파송하여 일본 정부와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런 준비 작업을 거쳐 ‘국장 2일 전인’ 3월 1일에 서울과 평양, 원산, 개성, 선천, 의주 등 지방에서 동시에 독립선언식이 거행될 수 있었다.

2) 교파와 종파를 초월한 연대운동

3·1운동이 교파와 종파를 초월한 민족독립운동으로 본격적으로 기획, 준비된 것은 선천에서 평북노회에 참석 중이던 이승훈이 천도교측의 최린과 최남선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2월 12일 송진우를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3월 1일 독립선언식이 거행되기까지 기간은 불과 17일에 불과했다. 준비기간도 짧았을 뿐 아니라 모든 준비 과정을 총독부 경찰망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서 추진해야 했기에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더욱이 기독교계 민족주의자들은 8년 전(1911년) 일어난 105인사건으로 혹독한 시련과 탄압을 경험한 바 있었기에 한층 강화된 ‘무단통치’ 상황에서 선뜻 민족저항운동 전면에서 또다시 나서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은밀하게’ 전개된 준비 작업이었기에 민족대표 구성과 운동방법론 설정, 운동경비 모금과 지급, 국내외 운동세력 연결과 지방 연락망 구축작업이 쉽지 않는 않았다. 이 부분에서도 ‘종교적’ 요소와 환경이 작용해서 가능하였다.

²² “노현용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674; “손병희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93; “이승훈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342-343.

(1) 민족대표 구성과정

3·1운동 준비단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독립선언서> 작성과 이 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 선정이었다. 이 작업은 천도교측에서 주도하고 기독교측이 참여,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천도교측 논의를 시작한 손병희와 권동진, 오세창, 최린, 최남선 등은 이 운동을 기획하면서 대중화와 일원화, 비폭력 등 3대 원칙을 세웠다. 그리하여 천도교측 지도부 인사들은 대중화와 일원화 원칙에 의거하여 이 운동을 천도교만의 운동으로 전개하지 않고 당시 ‘조선 민족’을 포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로 민족대표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1910년 강제합병으로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적’ 기구나 조직, 단체는 전무하였다. 결국 개인이 민족을 대표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서 천도교측 인사들이 ‘민족대표’로 추대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첫 번째 인물들이 구한말 정치 관료와 사회단체에서 지도자로 활약했던 ‘원로급’ 인사들이었다. 즉 “구한국 대신으로서 국변(國變) 후에 일본작위를 고사하고 그 성품이 고결한 사람으로” 알려진 윤용구(尹用求), “을사보호조약시 참정대신 즉 총리대신으로 그 조약을 한사(限死) 반대한 사람으로” 알려진 한규설(韓圭謨), “소위 개화당 영수로서 갑신정변 후에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여 일인(日人)의 침략을 반대하다가 제주도에 귀양살이까지 한 저명한 귀족 혁명가”로 알려진 박영효(朴泳孝), 그리고 “과거 광무연간(光武年間)에 독립협회장으로서 특히 미국인간(美國人間)에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윤치호(尹致昊) 등이었다.²³ 그러나 이들 원로들과의 접촉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천도교측 지도부 인사들은 종교계로 눈을 돌렸다. 최린의 증언이다.

“국변 이후로 각종의 정치적 색채를 가진 사회단체는 물론이요 심지어 학술단체까지도 모조리 해산을 당하였고 다만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단체만이 간신히 잔명(殘命)을 보존하였을 뿐이었다... 민족을 대표함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무슨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요 무슨 결사도 없고 오직 종교단체 뿐이니 천도교만이 아니라 예수교회, 불교회 등의 대표를 망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작정하였다.”²⁴

이처럼 천도교측은 처음부터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가 연대하는 ‘3대 교단 동맹’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연대 대상으로 기독교를 지목했다. 즉 천도교측 운동 논의가 시작되었던 1919년 1월 말 최린과 오세창, 권동진 등은 “예수교 측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려고 1천 6백 명 가량이 되는 목사 장로 중에 4, 5백 명은 동지가 된다고 하며 그 주동자는 이승훈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승훈과 친분이 있던 최남선과 송진우를 통해 정주 오산학교 졸업생 김도태를 이승훈에게 보내 연락을 취하였던 것이다.²⁵ 마침 그 무렵 같은 평북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들과 독립운동에 관해 논의하며 마침 중국 상하이에서 들어온 선우혁을 통해 해외 독립운동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이승훈도 최남선의 연락을 받고 상경하여 천도교측 인사들과 만나 연대에 동의함으로써 천도교-기독교 연합운동이 성사되었다. 이후 천도교측은 불교측 인사들과도 접촉을 시도하여 한용운과 백용성 등 불교 승려 2명이 민족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²⁶ 이런 천도교측의 불교 접촉과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3·1운동에서 기독교-천

²³ “최린 자서전”, p. 166.

²⁴ “최린 자서전”, pp. 164-165.

²⁵ “권동진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188.

²⁶ 최린은 2월 24일 설악산 신흥사 승려로서 서울에 올라 와 <唯心>이란 불교잡지를 간행하고 있던 한용운을 만나 민족대표 참여를 권하였고 한용운은 2월 27일 해인사 승려로서 서울에 올라와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백용성에게 권하여 민족대표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최린 자서전”, pp. 171-172.

도교-불교 연대가 이루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족대표’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없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선천의 양전백 목사는 재판과정에서 2월 12일 서울에 올라가 천도교측과 처음 접촉을 시도하고 내려온 이승훈으로부터 “예수교와 천도교와 각 학교 일반사회가 합동하여 총독부와 파리강화회의에 조선독립을 허락하여 달라고 청원할 것이라, 1회는 50인 중 천도교 28인, 야소교 20인, 기타 2인으로, 2회는 100인으로, 계속 10회까지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²⁷ 2월 23일에는 평양에서 함태영으로부터 “금번 50인이 총독부에 청원할 것이라.”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²⁸ 또한 이갑성은 2월 19일 자기 집에서 모인 기독교측 회합에 대해 “독립청원을 우리들만으로 하는가 또는 우리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가입시키자고 하니 일동은 자기들만 할 수 없으니 각 도에서 대표자로 할 유력한 사람 2, 3명씩을 선택하여 그런 사람들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였다.”라고 증언하여 기독교측만으로도 전국적으로 30-40명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예상하고 지방 대표자 포섭에 나섰음을 밝혔다.²⁹

이처럼 논의 초반에는 (천도교와 기독교 합하여) 적게는 50명, 많게는 1백 명까지 예상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수를 반으로 줄여 천도교와 기독교 대표를 합쳐 30명 수준으로 확정된 것은 2월 20일 이승훈과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 천도교측 대표와 만나 협의한 결과였다. 이승훈은 이 회합의 결과를 2월 21일 기독교측 대표자 모임에서 “최초에는 많은 사람으로 선언서를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시일이 절박하므로 예수교에서 15-16명, 천도교에서 15-16명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하고 일본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낼 일”을 결정했음을 밝혔다.³⁰ 천도교측의 권동진 역시 “2월 20일 오전 10시 최린 오세창 이승훈이 나의 집으로 왔었는데 동지는 천도교 예수교 각 15인씩 하자고 최린이 말하였고 불교측에서도 2인을 가입시켜 도합 32인으로 한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³¹ 이렇듯 2월 20일 이승훈과 천도교측 대표자들과 회합에서 비로소 기독교와 천도교 각 15명, 여기에 최린이 개인적으로 접촉해 왔던 불교 대표 2명을 포함하여 민족대표자를 32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교주 손병희를 정점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천도교에서는 15명 대표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손병희의 위임을 받은 최린과 권동진, 오세창 등이 대표자 인선 및 포섭에 나서 5일 만에 15명의 명단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측 입장은 달랐다. 단일 교파, 단일 교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훈이 속한 장로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라는 단일 교단에 총회와 노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감리교는 박희도가 속한 미감리회와 정춘수와 오화영이 속한 남감리회가 별도 연회와 지방회로 조직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독교측에 할당된 15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문제였다. 기독교측 인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대표자 포섭작업에 나섰다. 박희도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이승훈은 다시 이갑성 집에 와서 전날 밤 집합한 자 전부가 모인 가운데서 천도교측은 합동에 따라 독립 선언서를 발표할 일과 그 선언서에 동교인 중 대표자로서 15인을 열기기로 한다 하니 우리 측으로서도 동수의 대표자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일동은 그러면 우리도 15인의 대표자를 선정하기로 하

27 “양전백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260.

28 “양전백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261.

29 “이갑성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291.

30 “이승훈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351.

31 “권동진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188.

자하고 그 자리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으니 다시 다른 목사를 권유하여 15인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³²

그 무렵(2월 21일) 회합에 참석하고 있던 기독교 인사들은 이승훈과 이갑성, 오기선, 박희도, 안세환, 함태영, 현순, 오화영, 정춘수, 신흥식 등 10명 미만이었다. 이들 중 현순은 상하이로 파송될 예정이었고 함태영과 안세환은 대표로 서명은 하지 않고 ‘2선’에서 운동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표자를 포섭할 필요가 있었다. 이갑성이 경상도, 오화영이 개성, 신흥식이 평양, 정춘수가 원산, 김세환이 경기도와 충청도로 대표자 포섭을 위해 지방 여행을 시도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다. 장로교의 경우 이미 이승훈에게 동참 의사를 밝힌 이명룡과 양전백, 유여대, 김병조, 길선주 등이 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감리교 경우엔 숫자를 채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미감리회의 박희도는 김창준과 박동완, 최성모를 포섭했고 최성모는 이필주를 포섭했으며 남감리회의 오화영은 신석구를 포섭했다. 그 결과 장로교 7명, 감리교 9명(미감리회 6명, 남감리회 3명)으로 기독교측 대표자가 확정되었고 그 때가 2월 27일이었다. 여기에 천도교측 15명과 불교측 2명을 합하여 총 33명의 ‘민족대표’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기독교 인사들이 천도교 및 불교 인사들과 연대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심리적 갈등과 번민이 없지 않았다. 2월 20일 이승훈이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과 회합하여 기독교-천도교 연합방침을 확정된 후 기독교측 내부에 반발이 없지 않았다. 남감리회측 논의를 처음 시작했던 정춘수는 이승훈으로부터 “천도교와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천도교와 합동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것은 우리는 기독교 목사의 신분이므로 감정으로써 일을 하면 그것은 인도 정의에 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하려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합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기독교만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³³ 이런 주장을 한 후 정춘수는 원산으로 내려갔고 2월 28일에야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주장과 달리) 천도교 및 불교 대표들과 함께 ‘민족대표’ 명단에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그가 3월 1일 저녁 서울에 도착한 후 5일 만에 경찰에 자수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수적인 신앙인 신석구도 처음엔 천도교와 함께 하는 것에 주저하였다. 그는 오화영으로부터 민족대표로 참여하라는 권면을 받은 후 즉각 결정하지 못하고 1주일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였다. 그에겐 두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걸렸다.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상용(相容)키 난(難)한대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여 즉시 대답치 아니하고 좀 더 생각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사천년(四千年)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代)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대 차질 기회에 차져보랴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직각(直刻)에 곳 뜻을 결정하였다.”³⁴

신석구는 기도하던 중 ‘신의 음성’을 듣는 초월적 종교체험을 거쳐 독립운동 참여를 결심하였다. 신석구 외에 이승훈과 유여대, 신흥식, 김창준, 박희도 등 다른 기독교 인사들도 이와 같은 종교적 의식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유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등

32 “박희도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434.

33 “정춘수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550-551.

34 <신석구 자필 자서전>, 1949; 이덕주, 『신석구 연구』, 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pp. 107-108.

으로 설명했다. 기독교인으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종교적 동기’가 분명했다.³⁵ 3·1운동을 ‘종교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민족대표’로 참여한 기독교측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3·1운동 당시 교회 공적인 조직의 고위직 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장로교의 경우 과거 노회장과 총회장을 역임했던 양전백 목사가 있었지만 나머지 인사들은 지역교회 목사(길선주·유여대·김병조)이거나 평신도(이승훈과·이명룡·이갑성)였다. 그리고 감리교의 경우도 최고 수장인 미국인 감독 아래서 지방교회들을 관리하던 감리사 중에도 민족대표 참여자가 없었다. 미감리회의 경우 한국인 감리사가 2명(최병현과 오기선) 있었는데 오기선은 모의 초반에 참여했다가 운동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여 중도 이탈하였다. 결국 감리교의 경우도 지역교회 담임목사(이필주·신흥식·최성모)와 전도사(박희도·김창준), 평신도(박동완)로 구성되었다.³⁶ 남감리회의 경우는 3명(정춘수·오화영·신석구) 지역교회 담임자였고 감리사는 한 명도 없었다. 이로써 보면 기독교측 대표자들은 당시 교회 조직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운동에 참여하였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민족대표’라는 칭호를 차용하였다. 이처럼 평범한 종교인들의 행위에 대해 일반 시민사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표하지 않았다. 일반사회가 종교인들의 민족 대표성을 받아들였다는 말이다. 민족주의 정치·사회 조직이 와해된 식민통치 상황에서 종교가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였음을 반증하는 예다.

(2) 운동방법론: 선언이나? 청원이나?

2월 20일 이승훈과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의 회합에서 기독교와 천도교 연합으로 운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기독교측 내부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을 벌인 대목이 운동방법론에 대한 것이었다. 논의 초기부터 ‘독립선언론’으로 방향을 잡은 천도교측과 달리 기독교측 인사들은 개인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다. 재판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독교측 민족대표들의 입장을 분석하면, 독립선언론 입장을 취한 인사는 이승훈과 이명룡, 오화영, 신석구 등 4명이었고 독립청원론 입장을 취한 인사는 길선주와 양전백, 김창준, 이갑성, 박희도, 신흥식, 정춘수 등 7명이었으며 이필주와 박동완, 최성모 등은 입장이 불분명했다.³⁷ 숫자로 보면 청원론이 우세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측 독립운동 논의는 월슨 대통령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 원칙과 이 문제를 논의할 파리 평화회의에 대한 소식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은 파리 평화회의에 민족 대표를 파견하여 월슨 대통령과 평화회의에 참석하는 열강국 대표들에게 “조선도 이번 기회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호소하는 동시에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일본 정부와 총독부, 의회에도 “조선의 독립을 허락해 달라.” 청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2월 초 상하이에서 파견된 선우혁을 만남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이승훈도 초기에는 ‘청원론’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2월 16일 평양 기흥병원에서 이승훈을 만난 길선주의 재판증언에서 확인된다.

“이승훈이가 나에게 대하여 정부와 총독부에 대하여 독립청원을 하고 또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킨다고 말하였다. 나는 청원서에 명의를 내는데 승낙하고 인장을 보냈지 선언서에 대하여서는 찬성한다거나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말한 일이 없고 그 독립운동에 찬성할 뜻에

35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초기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pp. 246-247.

36 <미감리회 조선연회록> 1918, pp. 49.

37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pp. 237-238.

답하여 모든 것을 이승훈에게 맡기겠다고 말하였다.”³⁸

이승훈은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 독립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일반 시민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선언서를 인쇄, 배포하는 식으로 운동을 시작하였다. 길선주는 이승훈을 만나기 전에 이미 상하이에서 온 선우혁으로부터 “인민 대표가 정부와 총독부에 독립청원을 하면 독립을 허락할 것이며 타국에서도 이렇게 하여 독립을 하고 있으니 조선서도 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³⁹ 같은 내용으로 참여를 권하는 이승훈에게 동참할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길선주는 후에 재판정에서 “나의 생각에도 총독부와 기타 당국에 제출할 청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런 줄로 생각하고 대표자로 명의를 기재할 것을 승낙하였다.”⁴⁰고 진술하였다. 길선주는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청원론’ 입장을 고수하였다.

양전백도 ‘청원론’ 입장을 취하였다. 그도 재판정에서 “함태영이가 [2월 27일] 이 선언서를 보일 때 비로소 피고는 그 취지에 찬성하였는가?”라는 판사 질문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 총독부에 청원하는 것은 큰 일이므로 찬성하고 있었으나 선언서와 같이 적은 일에 대하여서는 오늘까지도 불찬성이다.”라고 대답하였다.⁴¹ 이갑성도 2월 16일 자기 집에서 모인 기독교 대표자 회합에서 “선언서의 발표는 좋다고 생각하나 그 발표를 우리들 무자격자로서만 하게 되면 일반이 자격을 인정하여 주지 않을지도 모르므로 그럴 바에야 조선에 대하여 모든 권력을 가진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⁴² 천도교와의 합작을 반대했던 정춘수도 강력한 ‘청원론’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2월 20일 오전 박희도의 협성학교 사무실에서 모인 기독교측 회합에서 “독립은 아직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독립을 하려면 다른데 간섭 없이 조선 사람만으로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결이란 것을 이해하며 민족자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에 조선민족 자치의 청원서를 제출하고 기타 조선 내의 각 사회단체 또는 각국 영사관에게도 그 일을 통지하자.”고 제안하여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었다.⁴³ 이렇듯 논의 초기 단계에서 기독교 진영은 ‘청원론’ 입장을 취하였다.

이런 기독교측 입장은 천도교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특히 2월 21일 최린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승훈과 함태영, 최린 등 3인 회동에서 운동방법론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최린은 천도교측 방법론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대하여 조선의 독립을 허하여 줄 청원서를 제출하고 또 동일한 문서를 조선총독부와 의회, 정당 수령에게 보내며 한편 파리 강화회의와 워싱턴 대통령에게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주시를 희망하는 뜻의 탄원서를 송부하고 조선인민에게는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는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 최린은 천도교측이 일본에 보낼 청원서와 국제사회에 보낼 탄원서도 준비하지만 가장 큰 의미는 민족사회를 향한 <독립선언서> 배포에 두고 있음을 밝혔다.⁴⁴ 이에 대하여 함태영은 기독교측은 청원서

38 “길선주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121-122.

39 “길선주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116.

40 “길선주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112-113.

41 “양전백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262.

42 “이갑성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291.

43 이후 원산으로 내려간 정춘수는 2월 28일 서울을 다녀 온 광명리로부터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본 후 “나는 원래 민족자치의 청원에는 찬성했으나 이 독립선언서에 명의를 낼 것은 승낙한 일이 없는데 무슨 일로 이 선언서에 기재하였느냐?” 질문하면서 “선언서를 읽어보니 그 문장에는 일본에 대하여 반대하는 문구는 없고 온당하다고 하였으나 민족대표자 중에 나의 명의를 있으므로 그것이 마음에 맞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빨리 33인 뿐으로 되었으며 또 어째서 독립선언서라고 하였을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선언서는 이미 배포한 것이고 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상경하였다. “정춘수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550-551; “정춘수 신문조서(제2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삼일운동 1), 국사편찬위원회 1990, pp. 155-156.

44 “함태영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647.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최린과 토론을 전개했다.

함태영: [기독교측에서는] 정부에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려고 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인민에게 배부할 생각은 없다.

최 린: 정부에 청원하는 것은 당사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따름이므로 그런 것은 민족자결의 의사표시가 될 수 없으니 그대들이 독립선언서를 배부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의 방법과 상위 되니 그대들과 합동할 수 없다.

함태영: 그러면 독립선언서를 먼저 배부하는가 또는 정부에 대한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는가.

최 린: 독립선언서 발표 당일 총독부와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함태영: 독립선언서를 배부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과 다르니 다시 한 번 협의한 뒤 통지하겠다.

선언서와 함께 청원서와 탄원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천도교도 기독교도 모두 동의하는 바였다. 문제는 선언과 청원 사이에 어떤 것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집중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천도교측은 ‘선언’에, 기독교측은 ‘청원’에 무게를 두었다. 최린은 개인적으로 강력한 ‘선언론’ 주창자였다. 그는 이승훈과 함태영에게 “지금 독립운동은 월손씨가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의한 독립운동이므로 독립선언이어야지 독립청원은 의의가 없다. 독립운동은 현하 조선 안의 사회상으로서 천도교와 기독교의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전 민중을 총동원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독립운동의 일원화가 조선민족의 혼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역설하면서 기독교측도 ‘선언론’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⁴⁵ 이런 최린의 호소에 이승훈과 함태영이 호응하고 기독교측 인사들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최린과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승훈과 함태영을 곧바로 안세환과 박희도를 불러 회담 결과를 알려주며 “우리는 원래 독립선언서를 배부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천도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던 것이지만 이 주장을 포기하고 천도교파의 주장대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는 동시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자.”며 설득하였다.⁴⁶ 특히 이승훈은 “천도교에서는 절대로 청원을 하지 않기로 한다 하므로 천도교와 합당한 이상 어쨌든지 독립선언을 아니할 수 없어 그 일을 결정하였다.”며 〈독립선언서〉 발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천도교와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방법론 부분에서 기독교 쪽이 양보하는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선언서 발표와 함께 기독교측에서 추진했던 청원서와 탄원서도 함께 발표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향 전환(청원론→선언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탈한 기독교 인사도 없지 않았다. 오기선은 대표적이다. 그는 2월 20일 함태영 집 회합부터 논의에 참가했는데 “먼저 정부에 독립의 청원을 하여 그 희망을 얻은 후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청원론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2월 23일 “천도교와 합동하여 독립선언서를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그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결국 독립선언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다.”⁴⁷ 그러나 기독교측 이탈자는 오기선 한 명으로 끝났다.

기독교측이 주장했던 독립청원론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비폭력 운동노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독립선언론 입장에서 보면 청원론이 소극적이고 비굴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틀 안에서 독립을 추구하려는 비폭력 방법론이었다. 특히 성경을 ‘절대 권위’로 인식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

45 “최린 자서전”, p. 170.

46 “함태영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647.

47 “박희도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457-458; “이승훈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372.

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성경 구절을 근거로 (바람직 하지 않은) 세속 권력에도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 가르쳤다. 그런 배경에서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일본정부에 우선 “독립을 시켜달라.” 청원하고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과 파리 평화회의에 참가하는 열강국 대표들에게 “조선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호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일본정부가 허락하든 말든) “우리는 독립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일본의 무력 탄압을 불러올 뿐 아니라 두 민족 간의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었다. 천도교측에서는 처음부터 운동 원칙에서 ‘비폭력’을 표명하였지만 25년 전(1894년)의 ‘동학농민항쟁’을 기억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는 천도교측의 폭력시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털어낼 수 없었다.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 천도교의 독립선언론은 ‘무장 투쟁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승훈이 2월 21일 회답에서 최린에게 “천도교측에서는 만주방면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한다는 풍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질문한 것도⁴⁸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런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측이 ‘선언론’으로 전환함으로 천도교와 기독교 연대는 지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훗날 최린은 “우리 3인의 회합에서 의견이 일치된 것은 삼일운동의 근본방침을 결정한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⁹ 이처럼 기독교측을 대표하여 천도교측과 협상하였던 이승훈과 함태영의 판단력과 지도력이 있었기에 종교간 연대는 유지될 수 있었다.

(3) 운동 경비 지원과 거사일 결정

천도교와 기독교 연대는 운동경비 보조와 독립선언식 날짜를 3월 1일로 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빛을 발하였다. 우선 운동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천도교측은 교주 손병희의 지휘 하에 권동진, 오세창, 최린 등 중앙총부 임원진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이들이 민족대표로 참여하게 됨으로 중앙총부 재정으로 천도교측 대표들의 활동비를 충당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측 사정은 달랐다. 기독교 대표들은 모두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단하고 운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중앙조직(총회나 연회, 노회나 지방회)이나 담임한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결국 기독교 대표자들은 운동 활동에 드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하였다. 기독교 대표자들은 이승훈이나 이명룡, 이갑성, 박동완 등 평신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들이어서 준비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거사 이후 투옥된 다음 가족 생활비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다. 더욱이 경찰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 은밀히 진행되는 독립운동이어서 후원자를 얻기도 힘들었다. ‘명분’이 중요했던 운동방법론과 달리 운동경비는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였다. 2월 19일 이갑성 집에서 기독교측 인사들의 본격적인 회합이 이루어졌을 때 경비 문제가 제시되었다. 모임에 참석한 기독교 인사들은 각자 얼마씩 분담해서 경비를 마련하자는 원칙을 정하였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훈은 2월 20일 최린과 권동진, 오세창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최린의 증언이다.

“[이승훈은] 작일 회의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는 비용에 관한 문제이었는데 동지들까지 각기 분담해 가지고 다소간이라도 변통해 보자고는 하였으나 시기가 급박한 오늘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니 천도교 측에서 우선 5천원만 돌려주었으면 만사여의할 듯싶다만 만일에 5천 원이 못된다면 3

48 “최린 자서전”, p. 170.

49 “최린 자서전”, p. 170.

천원가량이라도 우선 급한 비용은 될 듯하니 기여히 돌려주기를 원한다는 말이었다.⁵⁰

“돌려 달라.”는 말은 “빌려 달라.”는 뜻이었다. 이런 이승훈의 요청은 최린과 권동진을 통해 손병희에게 전달되었다. 손병희는 기독교측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고 당시 천도교 교령 박인호를 통해 중앙총부 금융관장 노현용에게 “내가 갚을 것이니 우선 중앙총부에 보관된 공금이라도 5천원을 인출해 기독교측에 제공하라.” 지시하였다. 이런 손병희의 지시로 이튿날 노현용은 5천원을 권동진에게 전달했고 권동진은 그 돈을 이승훈에게 전달했으며 이승훈은 또 그 돈을 박희도에게 맡겨 집행하도록 조치하였고 박희도는 이 돈을 조선교회회사 유명근(柳明根)에게 맡겨 두고 기독교측 인사들의 활동 경비로 지출하였다.⁵¹

기독교측 경비 지출은 1) 대표자들의 여행경비, 2) 수감된 후 가족 생계비, 3) 선언서 배포 비용, 4) 기타 활동경비 등 크게 네 분야로 이루어졌다. 우선 여행 경비에 관하여 중국 상하이로 떠나는 현순에게 가장 많은 2천 원을 지불하였고 일본으로 떠나는 안세환에게도 7백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국내 경비로 김창준과 이갑성, 김지환, 함태영,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등에게 40원에서 140원을 지출하였다. 투옥 후 가족 생계비 보조에 대해서는 2월 26일 한강 인도교 회합에서 결정하였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대표자 가족에게 1인당 1개월에 10원씩 2개월 분을 보조하기로” 결정하였다.⁵² 이에 따라 이필주와 박동완, 신석구, 이갑성, 오화영, 박희도, 김창준 가족에 70원에서 1백 원씩 지출하였다. 독립선언서를 지방에 발송하는 비용으로는 이갑성과 이주창, 함태영 등에게 20원에서 50원씩 지출하였다. 다음은 재정 지출을 담당한 박희도를 비롯하여 경비 지원을 받은 피의자들의 심문조서를 근거로 작성한 기독교측 경비 지출 내역이다.⁵³

항 목	진행사항
여행 경비	현순 중국 여행경비 2,000원, 안세환 일본 여행경비 700원, 김창준 국내 여행경비 100원, 이갑성 경상도 여행경비 50원, 김지환 만주 안동 여행경비 140원, 함태영 평안도 여행경비 50원, 오화영 개성 여행경비 50원, 정춘수 원산 여행경비 40원, 최성모 여행경비 40원 총 3,170원
수감자 가족 생계비	이필주 100원, 박동완 100원, 신석구 100원, 이갑성 80원, 오화영 80원, 박희도 100원, 김창준 80원 총 640원
독립선언서 발송비	이주창 20원, 이갑성 150원, 함태영 40원, 이용상 15원, 김병수 25원, 김성국 20원 총 250원
기타 경비	한강 인도교 회합 식비와 교통비 80원

활동경비로 지출된 총액은 4,240원에 달하였다. 이 중 대표자들의 여행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3,170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였다. 여행경비 중에도 중국으로 파송된 현순과 일본으로 파송된 안세환에게

50 “최린 자서전”, p. 169. 한편 손병희는 재판과정에서 권동진으로부터 “예수교측에서는 시골서 사람이 가지고 온다고 하였으나 시기가 늦을 것 같으니 5천원만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시골서 오기를 기다리면 늦을 것이니 일시 그 돈을 꾸어 주겠다.”고 대답한 사실을 증언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이승훈은 고향(정주)에서 운동자금을 마련해 올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손병희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93.

51 “손병희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79-83, 93; “이승훈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342-343, 351.

52 “오화영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538

53 지출을 담당한 박희도의 진술과 수취한 대표자 진술 사이에 지불된 금액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박희도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448-449; “이필주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133; “김창준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167; “이갑성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293-294, 306, 309; “최성모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573; “오화영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543; “안세환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739.

지불한 경비가 2,700원으로 제일 많았다. 나머지는 가족생계비 지원 640원(15%)과 독립선언서 지방 발행경비 250원(8%)이었다. 이렇듯 천도교에서 지원한 5천원이 있었기에 기독교측 대표자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또한 이승훈으로부터 “5천 원이 안 되면 3천 원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천도교측이 즉각적이고 충분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천도교와 기독교 사이의 신뢰 관계와 연대는 더욱 공고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5천원은 천도교측으로부터 ‘빌려 온’ 돈이었다. 기독교계로서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었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 빚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3월 1일을 거사 날짜로 정하는 과정도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3·1운동은 1월 18일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와 1월 22일 고종황제 승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추진되었다. 3월 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리 평화회의에 민족대표를 파송하여 독립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3월 3일로 예정된 고종황제 발인예식을 전후로 하여 서울에 모여들 군중을 대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준비되었다. 우선 최린은 해방 후 증언록에서 3월 1일을 거사일로 정하게 된 철학적, 종교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예로부터 천시(天時), 지리(地理), 인화(人和)는 사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3대 요건이라고 하는 말도 있거니와 이러한 시기야말로 가위(可謂) 천여(天與)의 시기라 한 것이다. 둘째로 이 날은 조선 민족에 영원한 기원이 될 날이다. 이 운동은 조선민족의 성스러운 과업으로서 타일에 이 시일과 이 운동을 합쳐서 부르게 된다면 그것이 곧 이 운동의 명사가 되는 것이라 이름이란 단체를 대표하는 말이므로 이름과 실체가 부합되어야 하는 법이다. 이제 3월 1일을 요약해서 부르게 되면 ‘삼일’이 되고 여기에서 운동을 더해 붙이면 ‘삼일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일’이란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철학적 용어로서 다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말하자면 삼(三) 교단에 일체가 되어서 일으킨 운동이라는 의미도 되고 영토(嶺土) 인민(人民) 주권(主權)의 삼(三) 요건으로서 일(一) 국가가 성립된다는 의미로서 삼위일체가 부합되는 것이다.”⁵⁴

그러나 이러한 최린의 진술은 해방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분히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19년 당시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대표자들이 이렇듯 종교·철학적 의미를 고려하며 ‘차분하게’ 거사일정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거사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월 20일 이승훈과 함태영이 최린과 권동진, 오세창, 최남선 등 천도교측 인사들과 만나 기독교-천도교 연합으로 운동을 전개하되 ‘독립선언’으로 운동방법론을 확정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즉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대표자들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배포하는 시점을 잡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대표자들은 자연스럽게 ‘배례(拜禮) 군중’이 많이 모이는 ‘국장’을 전후로 한 시기에 거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3월 1일로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천도교와 기독교측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다. 우선 박희도는 2월 20일 오전 자신을 찾아온 강기덕에게 “천도교와 예수교 연합으로 하되 국장 2일 전이나 2일 후가 될 것이다.”라는 언질을 주었다.⁵⁵ 그러나 그날 저녁 2월 20일 저녁 박희도 집에서 이승훈과 정춘수, 오화영, 박희도, 오기선, 신흥식, 이갑성, 안세환, 현순 등이 회합하여 논의하면서 “국장시(3월 3일)를 이용하여 선언서를 인쇄, 배포할 것”을 의논하였다.⁵⁶ 그리고 하루 뒤인 2월 21

54 “최린 자서전”, pp. 173-174.

55 “박희도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p. 437-438.

56 “신흥식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485.

일 저녁 이갑성 집에서 모인 기독교측 대표자 회합에서는 천도교와의 합작을 재검토하며 ‘청원론’으로 방향을 잡은 후 “청원서는 빨리 제출하여 국장 후 3월 4일에 그 일을 일반 인민에게 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⁵⁷ 이렇듯 기독교측 대표자들이 모일 때마다 거사 예정일이 바뀌었다. 그것은 운동의 성격과 방법론에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월 21일 이후 이승훈과 함태영이 기독교측 실무대표로 최린과 자주 만나 운동방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하면서 거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최린과 이승훈은, 함태영 등은 거사일정에 대하여 의논하다가 2월 25일 회합에서 “목하 강화회의 진행 중임으로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좋고, 국장 중이어서 많은 사람이 지방에서 모이게 되니 그 무렵에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3월 1일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⁵⁸ 이승훈은 이 같은 결정을 그날 이갑성 집에서 모인 기독교 대표자 회합에서 밝혔다. 그 무렵 최남선이 작성하여 최린에게 전달되었던 <독립선언서> 원고본도 나와 천도교와 기독교, 불교 대표자들에게 회람되어 읽히기 시작했다. 민족대표자들의 선언서 날인은 2월 27일 이루어졌다. 최린은 재판정에서 독립선언식을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거행하기로 결정한 과정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문: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발표하기로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는가.

답: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시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발각될 우려가 있었고 또 이태왕의 국장 전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3월 1일을 택했고, 장소는 파고다공원이 중앙에 있고 국장 때문에 시골 사람들도 다수가 들어가므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데 형편이 좋을 것으로 그곳을 골랐던 것이다.

문: 최초에는 3월 5일에 발표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답: 그런 말은 없었지만 최초에 3월 2일이라는 설이 나왔으나 2일은 일요일로 예수교파의 형편이 나쁘다는 것으로 3월 1일로 했던 것이다.⁵⁹

위 진술에서 천도교측과 기독교측 논의 과정에서 한 때 3월 2일로 거사일로 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3월 3일(월요일) 국장일에 최대 인파가 몰릴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기독교측에서는 3월 3일 거사를 고려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고종황제 발인예식이 거행되는 날 군중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국장 직후나 직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장 후는 ‘파회’(罷會) 분위기라 군중 동원이 쉽지 않았고 그렇다면 국장 하루 전에 가장 많은 인파가 서울에 몰려들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국장 하루 전인 3월 2일이 일요일(주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예배에 전념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하루 더 당겨 3월 1일, 토요일을 거사일로 정한 것이다. 여기서 ‘종교적’ 요소, 특히 일요일을 ‘안식일’로 규정하여 세속적인 행사를 금하는 기독교 관습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도교나 불교측으로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3월 2일이 거사에 가장 적합한 날이었으나 목회자들이 대부분인 기독교측 대표자들의 입장을 존중한 결과였다. 이렇듯 3월 1일 거사일 결정도 종교간 타협과 양보의 산물이었다. 이런 식으로 3·1운동 모의과정에서 ‘종교간 연대’는 빛을 발하였다.

57 “오화영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535.

58 “최린 선생 취조서”, 『삼일운동비사』, p. 581.

59 “최린 신문조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삼일운동 Ⅰ), p. 23.

4. 맺음글

지금까지 3·1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자를 중심으로 3·1운동 모의단계에서 이루어진 ‘종교간 연대’ 과정을 살펴보았다. 우선, 3·1운동의 역사적 배경으로 한말 선교초기부터 형성된 기독교 민족운동 흐름과 그 ‘치외법권적’ 활동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1910년 강제합병 이후 무단통치 상황에서도 선교사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한국 교회와 기독교계통 학교, 기관들은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적’ 영역으로 남았다. 그 결과 (선교사들의 의도와 달리)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논의와 정보교환이 가능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총회와 연회라는 중앙(서울) 조직과 노회와 지방회라는 지역교회 조직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과 원산, 평양 등 두 개 이상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가 연합으로 선교하는 지역에서는 초교파 민족운동 연대도 가능하였다. 또한 중국 만주와 상하이, 미국 하와이와 본토 지역, 일본 도쿄에 설립된 해외 한인교회와 기독교청년회를 통해 국외의 국제정치 정세와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가 국내 교회와 기독교 조직을 통해 유입됨으로 국내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3·1운동의 촉발 계기는 월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와 고종황제의 승하로 만들어졌다.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관한 기사를 읽고 개인적인 관심과 의지로 시작된 기독교 지도자들의 독립운동이 짧은 기간 내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민족독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다. 그것은 ‘민족대표로 참여한 교회 지도자들의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 의식과 함께 서로 다른 교파와 종파, 지역과 환경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의 ‘연대 의식’(solidarity)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기독교 특유의 ‘종교 민족주의적’ 환경과 조직이 있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을 본격적으로 기획, 준비한 1-2월은 전통적으로 교회 혹은 지방 단위로 노회와 지방회, 사경회와 전도회 등이 개최되었던 ‘집회의 계절’이었다. 일제강점기 ‘치외법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관여하고 있던 이런 종교 집회와 모임을 통해 민족의식을 지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회합이 기능했다. 특히 당시 서울에서는 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연합하여 감리교 선교백주년 기념집회를 비롯하여 초교파적으로 운영되는 주일학교와 기독교청년회, 예수교서회, 세브란스병원과 연희전문학교 등이 있어 이들 초교파 조직과 기관들을 통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교역자들의 만남이 가능했다. 이런 초교파 ‘종교’ 집회와 기관, 단체들을 통해 기독교 인사들의 독립운동에 관한 논의와 정보 교환 및 동지 포섭이 시작되었다. 이런 기독교 조직과 집회를 배경으로 한말 때부터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교회 지도자들, 특히 105인사건 때 함께 수난을 받았던 민족운동 동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라는 주제로 개편을 시도하는 새로운 국제적 시대환경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었다.

3·1운동 모의단계에서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를 구성하고 운동방법론을 확정하며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교간 연대’가 빛을 발하였다. 기독교측 독립운동 논의는 1월 하순부터 서울의 박희도, 선천의 이승훈을 중심으로 교파별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월 12일 이승훈이 상경하여 천도교측 송진우를 만남으로 천도교와 기독교 사이의 연대로 운동이 전개되었다. 천도교와 합작과 운동방법론(선언론/청원론) 문제를 놓고 기독교 내부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기독교측을 대표하여 천도교측과 협상을 벌였던 이승훈의 지도력으로 바탕으로 난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천도교측은 기독교측에 독립운동 경비 5천원을 ‘대여해’ 줌으로 두 종파 사이의 우호적 연대는 더욱 확고해졌다. 또한 기독교측은 천도교측이 주선한 불교측의 민족대표 참여도 수용하였고 그 결과 한국 근대사 초유의 기독교-천도교-불교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종교간 연대는 3월 1일 이후 전개된 서울과 지방의 대중투쟁운동과

‘독립선언’의 결과로 나타난 임시정부 수립운동에서도 계속 드러났다.⁶⁰

결국 3·1운동을 거치면서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등 제 종교는 식민통치 상황에서 종교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향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교 민족주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3·1운동은 종교간의 서로 다른 신념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함으로 민족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간 연대’를 경험하는 장이 되었다. 이런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 민족주의’와 종교간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간 연대’는 3·1운동 1백주년을 2년 앞둔 오늘, 민족과 사회 문제를 둘러싸고 교파간, 종파간에 갈등과 분열을 극대화되고 있는 오늘 시대상황에서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정신적 가치’로 남아 있다.

60 이덕주, “기독교와 민족운동-3·1운동 대중투쟁단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의 신학〉 제47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6.

3·1만세운동과 기독교에 대한 논찬

장규식

중앙대 교수

이덕주 교수의 발표는 3·1운동 준비단계에서 수행한 기독교계의 역할과 천도교계와의 종교간 연대에 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잘 정리해주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의 3·1운동 참여가 교단 차원이 아니라, 명망 있는 교계 지도자들 사이의 에큐메니칼한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힌 점은 정교분리 원칙에 기반한 기독교 민족운동의 사회적 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하지만 토론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교수님의 발표문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또는 재고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1.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3·1운동을 선도한 배경이 조직과 연락망의 장점 때문 만인가?

일제 무단통치 하에서 종교계가 민간 차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국적 연락망을 갖춘 조직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종교계가 3·1운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Nation, Nationalism의 번역어로서 ‘민족’, ‘민족주의’ 등의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을사늑약 이후 자강계몽운동기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식자층은 우승열패를 국제사회의 공례로, 생존경쟁을 진화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회진화론에 기초해, 민족주의를 국가와 민족을 보전할 유일한 교법으로 받아 들였다. 이렇게 성립기의 한국 민족주의는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자강(自強)’을 화두로 삼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매일신보』의 논자는 자강을 자국의 종교와 역사를 능히 보전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무형(無形)의 자강(自強)’과 부국강병을 의미하는 ‘유형(有形)의 자강(自強)’으로 구분하고,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무형의 자강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유형의 자강에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 선상에서 최병헌 목사가 “종교가 입국(立國)의 근본이오 진화의 근원”이라 하여 당시 국가의 위기를 초래케 한 근본 원인으로 유교의 쇠퇴를 꼽고, 이를 대신해 국권을 회복하고 문명개화를 이루어나갈 기초로서 새로운 종교운동을 제창하였는데, 바로 이 무형자강·종교입국론은 한국 민족주의의 성립 과정에서 하나의 사상적 특질이었다.

그리하여 개화지식인 사이에 기독교(개신교) 개종이 유행처럼 번져 나갔고, 민중종교 동학이 천도교

로 개편되었으며, 고유의 민족종교로 단군교대종교가 중광되었다. 따라서 「3·1독립선언서」의 발표와 이후 국내 독립만세운동 과정에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1919년 3월 11일 만주 길림성에서 대한독립의군부 명의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과정에 대종교 출신 인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한 사실은 전국적 조직망과 더불어 이같은 무형자강·종교입국론에서 그 연유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¹

2. 천도교 측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측과 연락을 취해 보자”는 최남선의 의견에 따라 이승훈과 접촉함으로써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합으로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가?

파리강화회의 개최에 발맞춰 기획된 독립운동이 예열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게 된 계기는 1919년 2월 초 중앙학교 숙직실과 최린의 집에서 최린, 최남선, 송진우, 현상윤 4인이 회동을 하면서부터다. 이들은 당초 대한제국의 고관 출신 인사들로 민족대표를 세우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으로 방향을 바꿔 최남선이 기독교계와의 접촉을 맡음으로써 이승훈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의 서술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검찰 신문조서에 대한 사료비판의 필요성

발표문 3장에서 이덕주 교수는 기독교계와 천도교계가 종교간 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을 검찰 신문조서를 기초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나 관련 사실을 ‘피의자’의 기억에 따라 재구성한 부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부분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진술을 하고, 또 동지들에게 돌아갈 피해 등을 고려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사건의 재구성은 신문조서보다는 판결문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승훈이 최초 상경한 것은 2월 11일이고, 2월 17일 재차 상경했을 때 천도교 측과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월 20일 박희도의 숙소에서 이루어진 감리교계 인사들과의 회동에서는 기독교계 독자적인 거사를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다 다음날인 21일 최남선의 주선으로 이승훈과 최린의 회동이 이루어져 양측의 합작 시도가 본격화한다. 그날 밤 이갑성 사택에서 열린 제1차 장감 지도자 연석회의는 이승훈과 함태영에게 천도교 측과의 교섭사무를 일임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음날 최린과 만나 독립선언이나 청원이나를 놓고 협상을 해 독립선언으로 합의를 한 뒤, 당일 밤 함태영 사택에서 열린 제2차 연석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그리고 24일 최린의 집에서 3인이 다시 만나 독립운동의 일원화에 최종 합의를 한다.

그러니까 거사일을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으로 정하고, 33인의 민족대표 구성에 합의를 한 것은 모두 24일 이후의 일이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신문조서를 근거로 2월 12일에 이미 천도교 측과 50인의 민족대표 구성에 합의를 한 것처럼 서술하고, 23일 시점에도 여전히 독립청원의 방침을 고수한 채 거사를 준비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승훈이 천도교 측의 최린과 직접 접촉을 한 시점은 2월 21일이다. 따라서 민족대표 구성, 운동방법론, 운동경비 지원과 거사일 결정 등을 둘러싼 천도교 측과의 협의와 연대는 모두 2월 2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판단된다.

¹ 장규식, 「20세기 전반 한국사상계의 궤적과 민족주의 담론」, 『한국사연구』 150, 2010. 참조

3·1만세운동과 종교계

좌장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

